

기호학 연구 제57집

기호학 연구 제57집
Semiotic Inquiry No. 57



한국기호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2018

차례

김경원 : 디자인 썬킹의 신화성 - 롤랑바르트 기호의 신화론을 배경으로	7
김수환 : 공산주의와 기호 - 언어 통치에서 수행적 전환으로	27
김휘택 : 이미지와 의미 부여에 대한 일고찰 - 바르트의 이미지론을 중심으로	59
박수진 : 玉局齋 李運永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近代性 樣相 -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을 중심으로	91
서명수 : 〈오! 수정〉의 아이러니 미학 - 반복과 차이의 구조를 중심으로	121
선미라 : 칼 맑스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	155
손성우·태지호 : 누구를 위한 기념일인가? - 기념일에 관한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	177
송태미 : 『미생』에 나타난 신체 행위소 구조의 이중성에 관한 고찰 - 장그래를 중심으로	211

디자인 씽킹의 신화성

— 롤랑바르트 기호의 신화론을 배경으로

김경원*

【 차 례 】

- I. 서론
- II. 디자인 씽킹과 창의성의 이데올로기
- III. 디자인 씽킹의 신화성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해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담론을 해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호가 생성하는 함축의미를 구조적으로 해석한 바르트의 방법론적 틀을 활용해 디자인 씽킹이 신화화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디자인 씽킹은 본래 전문적인 디자인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디자인의 아이디어 기획 과정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방법론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디자인 씽킹은 사회문제, 경영, 마케팅 전략 등 디자인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알려지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르트는 신화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했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명시의미보다 내재한 함축의미를 해석하는 ‘구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디자인 씽킹은 이러한 창의성의 발현을 하나의 도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 이는 디자인 씽킹이라는 도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물체성을 구현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의 담론과 사회적 코드가 만나 신화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는 근·현대 인간이 생산해 낸 문화적 코드에 의한 신화적 가치를 말한다. 디자인 씽킹은 그 자체가 가지는 기표

*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보다 함축의미인 상징적 가치가 커지게 되었다. 이는 신화적 속성을 가진 하나의 기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디자인 씽킹을 통해 발현된 창의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혁신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생산해 내면서 신화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현상을 기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정은 대상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둘러싼 주변부의 모습을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본 논문은 디자인 씽킹의 대중적 유행과 같이 일상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호를 활용해 사회 현상에 대한 비평적 분석의 외연 확장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열쇠어 : 디자이너의 사고방법, 디자인 씽킹, 신화, 창의성, 이데올로기

I. 서론

최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창의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디자인적 사고방법’ 또는 ‘디자이너의 생각하는 방식’에서 유래한 디자인 씽킹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은 크게 두 개의 관점에서 기술이 가능하다. 하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설계 과정에서 활용하는 일종의 창의적인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디자인을 위한 방법이 아닌 특정 문제를 폭넓게 바라보고 사회적 문제나 경영, 마케팅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디자인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방법과는 별개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문제에 디자인적(的) 사고방식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디자이너의 사고방법(Designerly Thinking)’으로 후자를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일반명사로 통용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이라는 용어와 그 유래가 된 ‘디자이너의 사고방법’ 또는 ‘디자인적 사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디자인 씽킹’이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사고

방법'과의 관계성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의 사고방법’ 또는 ‘디자인적 사고’는 1960년대 이후 디자인의 산업화로 스타일링(styling)의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스타일링이란 대량생산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된 디자인 방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영국의 디자인 리서치 소사이어티(Design Research Society), 미국의 디자인 메소드 그룹(Design Method Group)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버밍엄 심포지엄(1965)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되었다.¹⁾ 이후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과 로버트 맥킴(Robert McKim)과 같은 사상가들이 디자인적 사고 방법에 대해 주장했으며 하버드 대학의 디자인 대학원장이자 건축가인 피터 로우(Peter Rowe)가 1987년 자신의 저서 『Design Thinking』에서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디자인 씽킹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디자인이 마케팅의 일부로 활용되고 디자인의 전략적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디자이너의 창의적 방법론이 ‘디자인 씽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디자인 씽킹이라는 말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디자인 컨설팅 회사 IDEO²⁾가 2000년에 기존의 디자인적 사고방법을 종합해 공개하면서부터였다. 동시에 경영학자인 로저 마틴(Roger Martin)이 『The Design of Business』이라는 저서를 통해 디자인 영역 밖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씽킹을 소개하면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들였다. IDEO와 로저 마틴은 디자인 씽킹을 대중적인 유행으로 전파시켰고 TED 강연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두에게 익숙한 용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디자인 씽킹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미

1) 정희경·이정연, 『PAIRS,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리서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8~39쪽.

2) IDEO는 1991년 설립된 미국의 디자인 컨설팅 기업으로 수많은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 대중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국 스탠퍼드 대학의 디·스쿨³⁾에서는 디자인 씽킹을 하나의 상품화된 교육과정⁴⁾으로 판매하고 있다. 디자인 씽킹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원하고, 유용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가능성과 기술 측면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있다.⁵⁾ 사람들이 원하는 ‘유용한 목표’라는 것은 디자인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 지향점을 말하는 뮈토스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구현하는 디자인의 실현가능성, 즉 로고스적인 성향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신화는 뮈토스가 전승되는 속성과 담화로서의 속성이 결합되면서 언어 이전의 선형적 형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송효섭은 신화성과 반신화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화의 기호작용은 뮈토스와 로고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뮈토스가 신화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디자인 씽킹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면 ‘창의성’이라는 이상을 실현시켜준다는 믿음을 담보로 하는 강력한 담론이다. 하지만 동시에 창의성이라는 가치 의미를 형식으로 변형시키면서 신화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기호작용으로서 뮈토스가 믿음의 이야기인 것과 같이 디자인 씽킹의 신화성은 창의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세계를 기호화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바르트(R. Barthes)가 ‘대중문화의 여러 대상이 신화화된 것처럼 신화란 근·현대 인간의 이성으로 인한 신화적 가치를 말하는 것’⁷⁾이라고 지적한 바와

3) 스탠퍼드 디·스쿨(Stanford d.school)은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공동 창업자 하소 플래트너(Hasso Plattner)가 IDEO의 디자인 씽킹을 가르치는 코스를 개설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 35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모태로 설립된 교육과정이다.

4) IDEO는 ‘Insights for Innovation’이라는 온라인 코스를 399 달러에 팔고 있으며, 스탠퍼드 대학은 “From Insights to Innovation”라는 4일짜리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을 열어 참가비로 12,600 달러를 받고 있다.

5) IDEO,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Toolkit*, New York : Riverdale, 2012, p.2.

6) 송효섭, 「훈민정음의 신화성과 반신화성-도상성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4집, 한국기호학회, 2018, 96쪽.

같이 디자인 씽킹은 단순히 대중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기호의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II. 디자인 씽킹과 창의성의 이데올로기

디자인적 사고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정의는 각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합의된 하나의 의미를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적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기존의 논리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의 발현에 있다. 이때 ‘새로운 생각’은 다시 논리화 할 수 있는 체계로 재구성 되었을 때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창의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디자이너와 비 디자이너로 구분할 수도 있다. 반면 디자인 씽킹에서 말하는 ‘디자이너’는 일반적인 전문인으로 알려져 있는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인 씽킹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 즉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나이젤 크로스(Nigel Cross)는 “디자인 행위는 모든 사람이 하는 어떤 것이면서 우리를 동물이나 기계와 구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⁸⁾라고 주장했던 바와 같이 디자인은 개념적으로 인간이 하는 활동의 범주에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앞서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확장된 의미로서 디자인의 개념⁹⁾을 적용해 ‘계획하는 모든 인간은 디자인을 한다’라는 명제를 성립할 경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자아와 같이 생각 또는

7) 롤랑 바르트 저, 이화여대 기호학 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53쪽.

8) N. Cross, Design Thinking Understanding How Designers Think and Work, Palgrave Macmillan, 2011, p.15.

9) 특정 개념을 확장해 본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그 언어적 기원에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디자인 씽킹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념은 디자인의 라틴어 어원은 ‘데시그나레(designare)’이다. 이는 ‘계획, 의도, 목적, 모델, 그림’을 의미한다. 즉 디자인의 본래 뜻은 인간의 특정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든 사고과정의 주체로서 디자이너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 씽킹의 담화는 디자인이라는 복합적인 대상을 단순하고 선형적인 프로세스로 유형화 시켜 어떤 단일 방법론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스스로 디자이너가 된 사람들에게 창의성이란 것이 모든 이상적 결과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IDEO의 CEO인 데이비드 켈리(David Kelly)의 주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켈리는 “자신이 창조적인 사고를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부딪히고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놀라움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는다.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여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고를 수 있게 되며,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선순환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는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대해 아무런 지식 없이도 사람들에게 디자인 방법이라는 권능을 부여하면 ‘창조적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창의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理念, ideology)란 일반적으로 특정 범위 안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생각 또는 견해를 말한다. 철학적 의미로는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상부구조의 관념으로 생산 양식 등의 사회 하부구조와 관계성을 놓고 이해되기도 한다. 칸트(Kant)는 순수이성의 개념을 이념이라고 불렀고 헤겔(Hegel)은 이념에 대해 보이는 관념의 형태들이 사회의 기초로부터 발생해 보편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는 발상의 방법을 포함한 문제해결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씽킹은 공감(empathize), 정의(define), 구상(ideate), 프로토타입(prototype)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도식화된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접근이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1단계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정

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관찰을 통해 공감대를 찾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2단계인 정의에서는 관찰을 통해 발견한 최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문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3단계는 구상단계로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의 4단계는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형태의 대상으로 탈바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실제 눈앞에 펼쳐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화는 실제 세계에서 드러난 대상이 아닌 코드화 과정을 거친 기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난 기호체계를 통한 신화적 도상의 기호학적 속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 씽킹의 신화성이 구현되는 것은 문화 안에서 기호로서 코드화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령 디자이너가 디자인 씽킹에 어떠한 문제를 대입했을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적 가치부여를 할 수 도 있고 혹은 과정을 통해 발현된 창의성에 대한 가치로 드러낼 수도 있다. 신화적 도상은 그 도상화의 과정에서 일종의 코드화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곧 신화적 도상이 재현하는 대상을 탐색하는 일이 된다.



[표 1]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표 1]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도식화 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기표 간의 도상적 관계가 드러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디자인 씽킹이라는 도상의 명시적 의미보다 그 안에 내재한 함축의미를 통해 상징적 가치가 커지게 된다. 예컨대 1단계에서는 공감의 키워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페르소나(Persona)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방법은 로고스적 성향을 가진 논리적 관찰방법을 드러내고 있

지만 사실 관찰이라는 방법으로 자의적이고 비논리적 이야기인 뮈토스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2단계인 정의에서는 공감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를 논리화 하는 단계로 하나의 담화를 구성해 내는 초안을 생성한다. 3단계에서는 발산과 수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더블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방법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성을 발현을 실현한다. 하지만 여기서 발현되는 창의성은 앞의 단계에서 이미 규정된 의미를 형식으로 규정짓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된다. 4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의 프로토(proto-)에 대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토’는 ‘최초, 원형’을 뜻하는 말로 프로토타입을 생성한다는 것은 최초의 원형을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뮈토스가 갖는 기호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뮈토스는 기원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이것이야 말로 디자인 씽킹이 창의성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기호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창의성이 이데올로기로서의 보편적 정당성을 가진 조건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의 엔그램 뷰어(Google Ngram Viewer)¹⁰⁾를 활용해 창의성과 관련한 ‘creativity’ 표제어를 검색해 보았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작활동을 의미하는 ‘creative’와는 대조적으로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말은 19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 이 다이어그램만으로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현대 사회가 창의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형적 인식을 가졌는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10) 구글은 19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든 책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엔그램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특정 표제어가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비스로 표제어를 통해 특정 시기의 특징적인 모습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2] ‘creativity’ 표제어의 활용추이

디자인 씽킹에서 주목할 점은 디자이너가 문제의 주체와 해결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는 ‘문제를 찾아내는 욕망의 주체이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디자이너는 창의성을 발현하는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혁신이라는 이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실천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에서 동시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디자인 씽킹을 신화화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디자인 씽킹을 대중적으로 널리 퍼트린 스탠퍼드 디·스쿨에서 주장하는 논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스쿨은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감 있게 도달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디자인 씽킹의 목적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사람들을 창의적이다/창의적이지 않다고 규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¹¹⁾ 여기에서 나타난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존재로 이상적인 일을 성취하도록 돕는 신화적 존재로 설명된다. 결국 디자인이 삶을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상정하면서부터 디자인 씽킹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되며, 이는 대부분의 신화적 경향이 갖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바르트는 기호에

11) <https://dschool.stanford.edu/>

대해 “사회적 약속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의적 기호, 한 가지 기능만을 가지는 표상적 기호, 그리고 특정한 시각적 기호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암시하는 유연적 기호가 있다”고 했다.¹²⁾ 즉 어떤 기호가 인지될 때 자의적인 것에서부터 표상적인 것으로 함축되면서 이들의 근본 가치관이나 신념이 반영된 ‘신화’가 생성되고 이것이 곧 사회의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와 만나 유연적 기호가 생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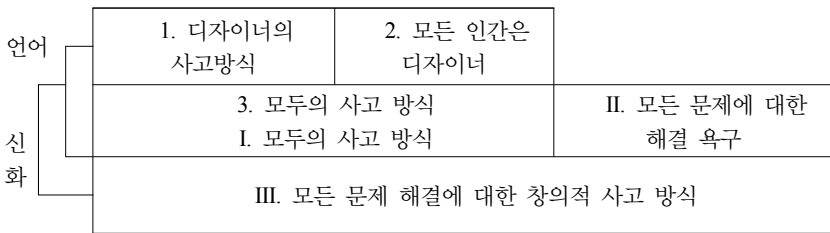
III. 디자인 씽킹의 신화성

디자인의 과정 또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디자인 씽킹’ 자체에서 신화성을 찾아 보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자인 씽킹에 대해 기술하거나 맥락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로고스이자 뮈토스의 성격을 드러낸다. 바르트는 신화학이 역사적 과학인 관념학(idéologie)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 안의 관념들(idées-en-forme)’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관념의 의미를 가지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관념에 관한 언어를 포괄한다.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는 두 개의 기호학적 체계들이 함축되어 있다. 어떠한 기표에 의한 기의가 기호를 만들어 내는 과정인 랑그(langue)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기호는 다른 하나의 기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표는 새로운 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기표와 기의에 의해 제3의 새로운 기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호에 기의를 부여해 다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바르트는 이것을 가리켜 ‘신화’라 했다.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이라는 기표가 모든 인간은 디자이너라는 기의를 내포했을 때 디자인 씽킹을 상징하는 프로세스는 모두를 위한 사고방식이라는 기호가 되었다. 이것은 프

12) R. Barthes, *Elements of Semiology*(trans. Annette Lavers & Colin Smith), New York : The Noonday Press, 1967, pp.129-130.

1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0, 166쪽.

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의 시각언어로서 기호이다. 이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이라는 기의, 즉 문제에 대한 해결 욕구와 만났을 때 디자인 씽킹은 제3의 새로운 기호로서 모든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사고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신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디자인적 사고는 인지적 측면이 강했으나 이것이 디자인 씽킹이라는 언어로 된 뮈토스로 드러났고 이는 곧 디자인 행위로부터 기원한 전승된 이야기가 되었다. 디자인의 기원인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부터 비롯된 믿음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와 행위가 만나 당위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 방식을 해석하기 위해 바르트의 신화 형성과정 도식¹⁴⁾에 디자인 씽킹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표 3] 디자인 씽킹의 신화 형성과정 도식

1차적 메시지인 디자인 씽킹이 디자인의 근본적인 개념과 만나 모든 인간은 디자이너라는 의미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대중의 일반 관점을 통해 보편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고 사고하는 인간은 모두 디자이너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기호를 생산했다. 모두의 사고방식이 디자인의 대상인 ‘문제’와 결합해 문제 해결에 대한 발전적 사고로 이어진다. 디자인 씽킹은 모두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발전적 사고라는 기호를 생성하고 이는 1차적 체계의 이면에 숨겨진 2차적 체계의 메시지 즉 ‘신화’로 드러난다. 소쉬르가 발견한 바와

14) 롤랑 바르트, 앞의 책, 272쪽.

같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필연적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단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문화 단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디자이너의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디자인적 사고의 문화체계 안에 디자이너의 범주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면서 모두의 사고방식이라는 사회적 코드가 개입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디자인 씽킹의 활용을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코드화의 과정은 신화적 도상을 거쳐 생성된다. 이것은 모두 대상이 기호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호가 어떤 것을 의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호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어떤 것이 반드시 구체적 현실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기호의 의미는 구체적 단순지시대상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디자인 씽킹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되게 하는 사회적, 문화적 체계인 ‘코드’라는 것이다. 실제 디자인 씽킹이 지시하는 대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며 그것과 관계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 존재하는 코드는 기호가 기표에 특정 기의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구조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가 “현대사회에서 대상이 아니라 이름이 욕구를 자극하며, 꿈이 아니라 의미가 팔린다”고 했듯이 디자인 씽킹의 대중적 유행은 디자인적 해결방법 즉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차용해 디자인의 대상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디자인 씽킹이라는 행위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디자인 씽킹을 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호하고 정답 없는 문제(wicked problem)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문제의 온전한 해결 보다 풀어나가는 과정 즉 프로세스에 집중한다는 논리이다. 전문디자이너와 사용자가 함께 디자인을 만드는 상황이 일반화 되면서 일상의 수많은 디자인을 취사선택하는 모든 인간이 간접적으

로 디자이너의 역할 혹은 디자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 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사회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디자인이 사물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 씽킹이 활용되고 있고 동시에 기호화된 ‘디자인’은 모든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제껏 있어왔던 방법들을 새로운 것으로 포장해 정당화 한다는 점은 비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디자인 씽킹에서 다루는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행위는 특정하게 규정된 과정을 통해 모든 보편적인 문제를 창의적 혁신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신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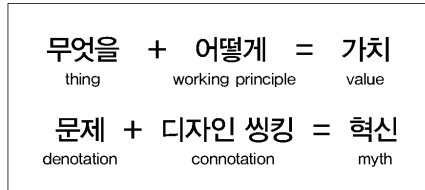
디자인 씽킹이라는 기호가 신화적 형태를 드러내는 것을 형식 논리학적 방식을 빌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역적 방법에서 대전제와 다음에 이어지는 소전제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일반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것을 예상하게 된다. 즉 관찰된 행동을 통해 이미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begin{array}{ccccc} \text{무엇을} & + & \text{어떻게} & = & \text{결과} \\ \text{thing} & & \text{working principle} & & \text{improvement} \end{array}$$

[표 4] 연역적 논리 구조

디자인 씽킹에서는 이러한 논리방법에서 달성하려는 결과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정해지지 않은 가치로서 ‘어떻게’라는 작동원리와 만났을 때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즉 작동원리를 통한 가치생성이란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정된다. 즉 디자인 씽킹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리의 구조는 이미 신화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어떠한 대상(무엇)에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디자인 씽킹은 이미 완성된 언어적 체계를 통해 형성된다. 신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작동원리로 명시함으로써 이해되고 강요시킬 수 있다.



[표 5] 디자인 씽킹의 논리 구조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맞닥뜨린 ‘문제’는 디자인 씽킹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를 통해 혁신이라는 가치를 생성해 내는데 이것은 곧 신화화 되는 형태와 동일하다. 디자인 씽킹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사고방식(mindset)으로 새롭고 적절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의도적인 과정을 갖는 행위라는 것이다. IDEO는 디자인 씽킹에 대해 “당신의 창의적인 능력과 어려운 문제를 디자인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믿음(faith)을 부여 한다”고 강조한다.¹⁵⁾ 이러한 내용은 2012년 발행된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Toolkit』의 디자인 씽킹에 대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씽킹은 인간중심적이다. 디자인 씽킹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필요와 동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디자인 씽킹은 협력적이다. 디자인 씽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15) 원문에서는 “Design Thinking gives you faith in your creative abilities”라고 표현함으로써 디자인 씽킹이 다루는 창의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또는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 훌륭한 생각들은 언제나 하나의 생각보다 강하다. 다양한 관점과 서로의 창의성을 북돋우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 씽킹은 낙관적이다. 디자인 씽킹은 커다란 문제이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제약에 상관없이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디자인 씽킹은 실험적이다. 디자인 씽킹은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반복해서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선언적 기술 방식은 디자인 씽킹이 가진 신화성 또는 뮈토스가 되고자 하는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디자인 씽킹은 프로세스라는 구조로 담론을 형성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각이나 사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은 언어 체계를 넘어 디자인 씽킹이 대상화 하는 어떠한 ‘문제’와의 관계 작용에 의해 함의되고 전승되는 속성을 가진다. 디자인 씽킹이라는 프로세스의 형태로 이야기될 때 이것은 디자이너의 사고방법과 같이 하나의 인지 방식이 아닌 집단의 행위적 측면으로 ‘가치’를 가지는 대상으로 전승되어 신화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표와 지시대상 사이에서 코드를 과도하게 적용했을 때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표준화된 디자인 씽킹이라는 하나의 사고 과정이 있고 이 전형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작용하면서 디자인 씽킹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의 과정이 특수한 결과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형상화된다. 여기서 보편적인 생각의 과정과 디자인 씽킹 사이에는 분명한 동형 성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의 실제적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 씽킹을 통해 발현되는 ‘창의성’ 그리고 그 결과인 ‘혁신’을 있는 것으로 가정할 뿐이다.

16) IDEO, *Op. cit.*, p.11.

IV. 결론

본 논문은 디자인 씽킹이라는 기호가 지니는 의미와 그로부터 드러난 담론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디자이너의 사고방법에 대한 배경적 의미를 파악하고 현대사회에서 디자인 씽킹의 활용을 둘러싼 창의성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위를 고찰했다. 둘째, 바르트의 신화 형성과정 도식을 활용해 현대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비평적 담론을 제시했다. 디자인 씽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증가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에코는 “기호의 생산은 이데올로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기호학은 코드 이론과 기호 생산의 이론으로서 사회 비판의 형식이며 사회적 실천의 많은 형식 중 하나이다”¹⁷⁾라고 강조하면서 기호학의 기능을 말한 바 있다. 바르트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일상의 신화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기호학의 과제이며 역할이라고 했다.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디자이너는 기능적이고 이성적 효율성과 미학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동시에 조율하는 전문가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디자인 양식과 형태 생성의 많은 부분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디자인 씽킹의 활용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편승해 도식화된 방법을 단계별로 숙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현하고 혁신적 결과물 또는 해결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생성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 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융합적 접근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디자인의 경계를 이완시키거나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장르나 경계를 없애고 포용하는 시도를 하

17) 움베르토 에코 저, 서우석 옮김, 『기호학 이론』, 문학과 지성, 1985, 325쪽.

고 있다. 둘째는 디자인을 대상이 아닌 매개체 또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전문 영역이었던 디자인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디자인이라는 대상을 일반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세 번째 경향으로 이어진다. 셋째, 장르와 영역의 이완·해체와 함께 지금까지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있었던 디자인의 관심 대상을 사회문제와 같은 디자인 밖의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본 논문이 바르트의 신화 형성 도식을 통해 디자인 썬킹과 같이 대중적 유행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담론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 지점은, 다양한 기호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호학이 의미의 창출과 해석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화적 도상을 생성하는 모습을 기술하는 것으로도 현상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둘러싼 주변부의 모습을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의 기호 신화론을 통해 디자인 썬킹을 하나의 신화화 된 현상으로 보고, 디자인 썬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비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0.
-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대 기호학 연구소 역, 동문선, 1997.
-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_____, 『신화의 질서: 도상기호학적 탐구』, 문학과지성사, 2012.
- _____, 「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매체의 통합, 분리, 횡단에 따른 뮈토-세미오시스의 지형」, 『기호학연구』 45집, 한국기호학회, 2015, 33~54쪽.
- _____, 「훈민정음의 신화성과 반신화성-도상성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4집, 한국기호학회, 2018, 93~117쪽.
- 에치오 만치니 저, 조은지 옮김,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안그라픽스, 2016.
- 움베르토 에코 저, 서우석 옮김, 『기호학 이론』, 문학과 지성, 1985.
- 전동렬,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정희경, 이정연, 『PAIRS,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리서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IDEO,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Toolkit*, New York : Riverdale, 2012.
- Cross, N., *Design Thinking Understanding How Designers Think and Work*, Palgrave Macmillan, 2011.
- Barthes, R., *Elements of Semiology* (trans. Annette Lavers & Colin Smith), New York : The Noonday Press, 1967.
- _____, *Mythologies* (trans. Anntte Lavers), New York : Hill and Wang, 1972.
- <https://dschool.stanford.edu/>
- <https://www.designcouncil.org.uk/news-opinion/design-process-what-double-diamond>
- <https://www.ideo.com/>

Mythologies of Design Thinking:

Based on Roland Barthes's Mythologies

Kim, Kyung-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discourse on design thinking through the perspective of Roland Barthes' Mythologie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explore the mythologization process of design thinking using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Barthes, which structurally interprets the connotations produced using semiosis. Design thinking originally refers to a method which is us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ideas about designs in order to create the final products for professional designs. However, design thinking has recently attracted more interest from the public because it has become known as a tool for solving various problems which exist outside of the field of design, such as social issues, management, and marketing strategies. Barthes points out that myths are used as a tool to deliver ideologies. H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thinking'. It interprets the inherent connotative meanings more than the denotative meanings, which are explicitly shown. One of the most powerful ideologies which our society embraces today is creativity. Design thinking realizes the manifestation of creativity through a schematized process. This can be explained by considering design thinking as an icon that is specifically turned into a figuration to realize its objectness, in which a discourse for solving issues and social codes meet together and form a mythology. The mythologies that Barthes cites in his book refer to mythical values created by the cultural codes which humans have produced in our modern and contemporary age. The symbolic value of design think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signifier which design thinking itself presents. This means that design thinking has become a sign that has mythical properties. In other words, the ideology of creativity embodied by design

thinking has attained a mythological status, as it produces a new cultural code through innovatio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 phenomenon using the perspective of semiotics is an important tool that allows us to examine the concept of an object and its surroundings thoroughly. This paper attempts to expand the external scope of critical analysis about social phenomena by using the signs which continuously reveal themselves in common ideologies, such as design thinking, which has been gaining more popularity recently.

Keywords : Designerly Thinking, Design Thinking, Mythology, Creativity, Ideology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공산주의와 기호*

- 언어 통치에서 수행적 전환으로

김수환**

【 차례 】

- I. 공산주의와 언어: 소비에트의 경우
- II. 언어로의 전화: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
- III. 역설과 총체성의 논리: 보편주의와 평등의 문제
- IV. 후기 사회주의: 스탈린의 패러다임 전환
- V. 수행적 전환: 역설의 소비에트
- VI. 담론의 끝: 공산주의, 언어와 더불어 살기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공산주의와 언어의 관련성 문제를 현실공산주의(구 소비에트)를 대상으로 고찰한다. 소비에트 체제를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행해진 언어로의 전화(linguistic turn)”의 결과물, 곧 “총체적으로 언어화된 사회”로 규정하는 보리스 그로이스(B. Groys)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공산주의 체제의 언어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견해와 연결시켜 논의해본다. 스탈린 사망 이후 소비에트 내부에서 발생했던 담론구조의 심오한 변동현상에 주목한 알렉세이 유르차크(A. Yurchak)의 연구는 권위적 담론형식의 수행적 반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창조적 일탈 및 전유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독특한 역설을 파헤침으로써 그로이스의 도발적 견해를 적절히 보완하는 동시에 ‘언어 제국’ 소비에트의 종말을 둘러싼 의미심장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열쇠어 : 소비에트 공산주의, 보리스 그로이스, 언어, 역설, 알렉세이 유르차크, 수행적 전환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및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CF-362-2009-1-B00005).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I. 공산주의와 언어: 소비에트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와 언어(기호)의 문제를 연결시켜 바라보는 기존 관점은 주로 대중 의식 조작 및 동원을 요체로 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언어 비판이 그 주종을 이룬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신어(Newspeak)” 개념에 빗대 소비에트의 전형적인 이념적, 정치적 언어를 노보야즈(novoyaz)라 칭하기도 했고,¹⁾ 언어유도(Sprachlenkung) 개념을 요체로 하는 파시즘 언어가 전체주의의 틀 안에서 분석되기도 했다.²⁾

한편, 언어적 구성을 체제의 작동 원리 자체와 연동시키는 논의는 오늘날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훨씬 더 일반적이다. 포스트-포드주의 신경제 체제를 일종의 “기호자본주의”로 규정하고 그 속에 내재된 위기와 (해방적) 역량을 동시에 강조하는 자율주의의 입장이 대표적인데,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과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언어다. 금융의 세계가 언어적 관습을 통해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배적인 새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언어를 통해, 그리고 언어적 수행과 유사한 수단들을 통해 생산된다.³⁾ 이런 입장은 역설적으로 그와 같은 기호자본주의 속에 ‘내재하는’ 공산주의, 곧 “자본의 공산주의”⁴⁾를 말하게 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공산주의와 언어의 관련성 문제를 (단지 통치를 위한 언어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본질 및 작동원리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1) М. Кронгауз, “Бессилие языка в эпоху зрел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лово за слово: о языке и не только*, РАНХ и ГС Дело, 2015, 77-89쪽.; 남혜현, 「의례의 언어로서의 소비에트 노보야즈」, 『슬라브어 연구』 21(2), 한국슬라브어학회, 2016, 115-131쪽.

2) 김종영, 『파시즘언어』, 한국문화사, 2003.

3) 크리스티안 마라찌, 『자본과 언어: 신경제에서 전쟁경제로』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3, 8-13쪽.

4) P. Virno,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London: Semiotext(e), 2004.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현대자본주의(혹은 ‘도래할 미래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공산주의(구 소비에트)를 대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들과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소비에트 체제를 “총체적으로 언어화된 사회”로 규정하는 보리스 그로이스(B. Groys)⁵⁾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공산주의 체제의 언어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견해와 연결시켜 논의해볼 것이다. 스탈린 사망 이후 소비에트 내부에서 발생했던 담론구조의 심오한 변동현상에 주목한 알렉세이 유르차크(A. Yurchak)의 연구가 그것으로, 권위적 담론형식의 수행적(performative) 반복이 발생시킨 독특한 역설에 천착하는 유르차크의 관점은 그로이스의 도발적 견해를 적절히 보완하는 한편 ‘언어 제국’ 소비에트의 종말을 둘러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언어로의 전화: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

지난 세기 75년간 존속했던 소비에트 연방을 ‘공산주의’로 간주할 수 있을까? 언뜻 동어반복처럼 느껴지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이 질문에는 나름의 맥락이 존재한다. 언제부턴가 귀에 익숙해진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⁶⁾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5) 보리스 그로이스는 러시아 출신의 철학자, 예술 비평가, 미디어 이론가로 현재 뉴욕 대학교 러시아 및 슬라브 연구 글로벌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스탈린 시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혁명적 아방가르드의 계승자로 부각시킨 문제적인 데뷔작 『스탈린의 종합예술』(1995) 이래로 현대예술 및 매체에 관한 흥미롭고 도발적인 이론적 성찰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재 동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사상이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요성과 명성에 비해 그간 한국에 소개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17년에 3권의 책(『새로움에 관하여』, 『코뮤니스트 후기』, 『반철학 입문』)이 번역 출간되었다.

6) “공산주의라는 이념(The Idea of Communism)”은 바디우의 책 *The Communist Hypothesis* (Verso 2010)의 마지막 챕터 제목으로, 이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돌아가며 열린 “공산주의라는 이념” 컨퍼런스의 모태가 되었다. 지난 2014년(9월24일 - 10월1일)에 서울에서 제 3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바디우가 인정하는 대문자 사건은 예수부활과 1871년 파리 코뮌 뿐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그가 꼽는 “진리사건”에 포함

시도들이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고 말해야한다. 오늘날 공산주의를 논할 때 불가피한 것이 되어버린 이 질문에 그로이스는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전의 그 어떤 사회보다도 더 멀리 공산주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⁷⁾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소비에트에서 언어(즉 정치)가 돈(곧 경제)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이다.

이후로 내가 말하려는 공산주의는 정치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기획을 가리킨다. 경제는 돈을 매개로 기능한다. 그것은 숫자들을 통해 작동한다. 정치는 언어를 매개로 기능한다. 그것은 단어들, 이데올로기, 주장, 프로그램, 탄원들 뿐 아니라 명령, 금지, 결의안과 판결문 따위를 통해 작동한다. 공산주의 혁명은 돈의 매개로부터 언어의 매개로 사회를 번역transcription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행해진 언어로의 전회linguistic turn다(7쪽).

여기서 ‘언어로의 전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학적 설명, 그러니까 언어적 구조와의 유비나 세미오시스의 메커니즘 따위의 전형적인 표현과 연동되지 않는다.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실행된”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말 그대로 ‘언어’(라는 새로운 화폐) 없이는 사회적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로이스의 재기어린 비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언어적으로 결정되고 언어적으로 비판되는 이런 세계에서는 “가게에서 파는 신발이나 계란 혹은 소시지에 대해 항의하는 일이 가능하다.”(13쪽).

그로이스는 소비에트를 “권력과 권력을 향한 비판이 동일한 매개를 통해 작동하는 사회”(10쪽)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언어를 매개로 정치적

되지 않는다.

- 7) 보리스 그로이스, 『코뮤니스트 후기』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10쪽. 이후로는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 표기함.

결정들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정의는 애초에 그런 결정들 자체가 언어를 매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권력을 향한 저항의 수단임을 넘어서 해당 권력 자체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이 [공산당] 지도부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언어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토록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한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일탈에도 그토록 격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어 바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점, 그리고 만일 언어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 잃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15쪽)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inguistification)”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법한 이런 진단은 과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소비에트의 독특한 세미오시스에 주목한 사람이 그로이스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모종의 근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소비에트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은 분명 평범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슬라보예 지젝은 “진정한 기호의 제국은 바로 스탈린의 소련이었다”라는 말로 소비에트의 독특한 의미론적 포화상태를 지적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세미오시스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공식적 표현들의 경우 제 아무리 사소한 변경일지라도 격렬한 해석활동을 촉발하는 신호, 어쩌면 혼란이나 패닉사태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메타언어적 지시로 해석될 수 있었다. 즉, 거기서 말(외형)은 단지 무언가를 지칭하는 수단(그릇)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세계 자체를 지탱하는 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해진 아주 작은 변형조차도 세계 자체를 향한 발언, 나아가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⁸⁾

8) 슬라보예 지젝,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박정수 옮김, 그린비, 2009, 331쪽.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젝의 이런 해석은 사실 형식만 남은 기호의 진공상태를 오히려 의미의 포화상태로 거꾸로 진단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언어가 발휘하는 이런 절대적인 권능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로이스의 독특함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언어학자 스탈린”을 동원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로이스는 스탈린의 유명한 논설 「언어학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관하여」를 다시 읽으면서, 그것을 ‘사회의 총체적인 언어화’라는 소비에트식 존재론에 부합하는 적절한 언어관으로 부각시킨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학문적 논의에 직접 개입한 이 이례적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혁명 이후 1930년대 들어 소비에트 언어학은 일종의 ‘관치 언어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주의Marrism가 득세하게 되는데, 이는 언어가 상부구조의 일종이며 그 본질이 계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니콜라이 마르(N. Marr)의 언어관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런 상황이 1950년 여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게 된다. 언어학자 치코바바가 5월 9일 『프라우다』紙에 마르의 신언어학설을 비판하는 장문의 논설을 게재한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신문지상에서 격주로 이어졌는데, 1950년 6월 20일 스탈린이 글을 게재하며 전격적으로 직접 개입한 것이다. 스탈린은 가상의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글을 7월4일과 8월2일자 신문에 재차 게재함으로써 사실상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고, 결국 마르크주의는 파산을 맞게 된다.⁹⁾

이 글에서 스탈린은 마르의 계급적 언어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언어는 “모든 구성원들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스탈린이 산파 역할을 했고 사실상 키워 왔다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언어학을 그 자신의 손으로 다시 깡그리 부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많은 이들의 고민

9) 치치코바의 회상에 따르면, 『프라우다』紙를 통한 논쟁은 사전에 스탈린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20세기 소비에트 언어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이 사건의 역사적, 담론적 배경을 둘러싼 상세한 내용은 이기웅,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마르크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193~239쪽,와 『코뮤니스트 후기』의 옮긴이의 말 「소비에트의 재발명: 돈이 아니라 언어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170-172쪽을 참조하라.

거리였다. 스탈린 통치가 계급주의적 국제주의를 벗어나 러시아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신호라는 해석이 유력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의 언어학 논설을 둘러싼 이런 저런 해석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그로이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텍스트의 의미를 과감하게 자기 식으로 전유한다.

그로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스탈린은 결코 언어를 상부구조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할 수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스탈린의 지도력 또한 결과적으로 제한될 것이고 그의 권력도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도력을 무제한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언어의 범위와 능력을 무제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언어는 인간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산에서 토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토대에서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전 영역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다른 모든 활동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인간활동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언어의 활동 영역이 상부구조의 활동 영역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사실상 무제한적이다.(80쪽).

여기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언어의 활동영역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언어가 “모든 인간 활동 및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즉 돈과 자본을 전적으로 대체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적 과정들은 “토대와 상부구조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시장) 경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은 언어의 바로 이런 능력이다”(82-83쪽). 그런데 『자본론』에 관해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르크스가 말한 ‘화폐’의 권능을 떠올릴만한 이런 정식화에서, 그로이스가 겨냥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로이스/스탈린이 말하는 언어의 권능은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갖는 추상적 보편성에 대응되기는 하지만 본질상

그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III. 역설과 총체성의 논리: 보편주의와 평등의 문제

공산주의에서 언어가 가지는 특별한 능력의 요체는 (그로이스가 말하는) “역설(paradox)”의 힘과, 그것이 수반하는 “총체성(totality)”의 논리에 있다. 앞선 논설에서 언어를 규정하면서 스탈린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기이한 역설의 태도를 취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상부구조도 토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산력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부구조이자 토대이며 동시에 생산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언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82쪽) 언어에 대한 이런 모순적 규정(A도 B도 아니지만 동시에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의 배후에는 언어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로이스는 서로 모순되는 명제들의 동시적인 타당성을 인정하는 논리, A와~A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 역설의 논리를 두 가지의 담론적 선례와 연결시킨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외견상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피스트들의 매끄러운 말속에 담긴 역설을 폭로하는 동시에 오히려 그와 같은 역설의 필연성을 설파하는데, 이런 그의 말이야말로 역설의 최초의 선례다. “소피스트적 담론과 철학적 담론의 차이는 오로지 다음의 사실에 놓여 있다. 철학은 소피스트적 담론이 감추고 싶어 하는 자기모순을 공공연하게 주제화한다(...)플라톤에 따르면, 오직 역설만이 논리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명료함을 낳을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는 역설의 명료함 위에 세워지며 역설에 의해 통치된다.”(27-28쪽)¹⁰⁾

10) 그로이스는 소피스트를 매끈하게 짜인 말의 텅 빈 외관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기업가”로, 역설적 구조를 감춘 그들의 말을 일종의 “언어적 상품”으로 묘사한다. 이때

두 번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사고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모순과 역설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을 뜻한다.”(56쪽). 변증법적 유물론은 삶이 내재적으로 모순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역설을 통해 삶을 포착할 것을 추구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역설의 방식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될 때 그것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전략의 동시적인 실행으로 구현될 수 있다. 스탈린의 저 유명한 “일반노선”은 사실상 “좌파와 우파 대립자들의 요구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의 단 하나의 차이점은 “당 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입장들의 상충된 요구들이 동시에 수용되고 옹호되고 있다는 것이다.”(59쪽)¹¹⁾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말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설을 관통하는 공통의 핵심은 무엇일까? 세계 전체를 향한 열린 총체성이 바로 그 핵심이다. 철학자의 담론에 의해 역설이 폭로될 때 나타나는 명료함의 효과는 오직 그것이 전체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역설은 언어적 총체성의 이콘icon이다(...)그런데 언어의 총체성이란 가능한 모든 테제와 안티테제들의 통일을 사유한다는 것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역설은 그것이 언어의 총체성을 향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콘이 될 수 있다.”(33-34쪽).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로지 전체, 즉 총체성만이

그들의 말은 돈을 매개로 “역설을 타협으로 바꿔치기”한다. “타협, 그것은 역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지불된 역설이다.”(32쪽)

- 11) 그로이스는 이와 같은 역설의 정치 전략의 최초 사례로, 1908년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좌익 진영의 유명한 논쟁을 든다. 지하투쟁을 단념하고 당을 합법 정당으로 재조직하기를 바라는 ‘청산파’와 두마(의회)를 떠나 당 전체가 지하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는 ‘소환파’의 요구 사이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두마에 대표단을 보내고, 지하에서는 그 두마를 포함한 체제 전체와의 투쟁을 실시한다.”(58쪽). 이 ‘모순적’ 제안의 의도는 명백하다. 즉 투쟁은 양쪽 모두에서, 그러니까 평화적 수단을 통해 두마 내부에서, 그리고 혁명을 예비하면서 두마 바깥쪽에서 ‘동시에’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이 사회의 ‘전체’ 영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58쪽).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A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A의 부정을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A의 부정이 금지된다면, A의 부정은 전체에서 배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는 전체로서 살아 있는 것이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61쪽)

이런 식의 논리가 확립되면, 다양한 대립물들의 운명이 그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주어진 주장의 정당성이 그 주장의 반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내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63쪽)이다. 여기서 흔히 경직되고 도그마적이라고 비판받는 소비에트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색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사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이 이데올로기가 모순되며 현실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주장들에 대해 그것이 보여주는 모종의 면역력에 있다. 이런 면역력의 근거는 그러한 비판을 무시하는 태도나 빈약한 수용력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면역력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세계관이 모순적이라는 증거가 이 세계관을 논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확증해준다고 보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확신에서 나온다.”(64쪽).¹²⁾

결국, 그로이스가 그려내고 있는 소비에트라는 언어의 왕국은 모순과 역설, 무엇보다 총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판명된다. 그것은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형식논리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구별된다. 흔히 생각하는 (공산주의적) 도그마는, 이렇게 세계 전체를 향한 ‘열린’

12) 그로이스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이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그러한 비판들은 스탈린식 정통 교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소비에트 내부 반대자들의 갖가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와 같은 비판들은 애초부터 그 교리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었던 바, “이 시기에 변증법적 유물론을 배운 학생들 가운데 이런 상호 모순되는 비판들에 당황했던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기본적으로 단 한가지의 조언만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비판들을 통합하여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 결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얻게 된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서구의 비판들을 (재)비판하면서 수천에 달하는 출판물들이 등장했다.”(64-66쪽)

총체성의 논리로 전복된다.

언어는 오직 그것이 전체와 더불어, 총체성과 함께 시작할 때에만 경제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런 의미에서 철학 왕국의 한 형태였다.(91쪽)

여기서 그로이스가 말하는 역설과 총체성의 논리가 이른바 ‘보편주의’의 문제와 연동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로이스에 따르면, 소비에트에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 시민들 또한 “철학적 사상가로 인정받았을 때에만 그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를테면, “오늘 칠레 공산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순간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어떤 새롭고 파괴적인 모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거나, 봉급이 인상되지 않거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만 했다”(91쪽)는 사실이다. 요컨대, “진정한 소비에트 시민이란 충분히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즉 자신의 부분적인 필요를 전체의 맥락 속에 가져다놓을 줄 아는 사람”(92쪽)이다.¹³⁾ 그런데 바로 이것, 전체 언어의 규모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야만 할 필요성이야말로, 온갖 종류의 특수주의(particularism, 공동체주의, 정체성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현재가 상실해버린 (공산주의적) 보편주의에 해당한다.¹⁴⁾

13)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에트인에게 부여된 원칙적인 요구가 “소비에트식 사고가 아니라 소비에트적이면서 동시에 반소비에트적인 사고, 곧 총체적인 사고였다는 것”이다. 그로이스에 따르면, 브레즈네프 시기에 최초의 반체제 인사들이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말은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가들을 매우 당황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 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알고”있는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나이브하게 구축되었고, 너무 일면적이고 너무 비변증법적”이었기 때문이다.(93쪽).

14) 그로이스는 한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그 자체로 ‘보편적인 독트린’, “잠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사회의 모델을 창조하려는 시도”였음을 강조하면서, 이 책을 쓰도록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사람들이 감히 보편주의에 입각해 생각하고 행동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Борис Г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위부터 아래까지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이와 같은 보편성의 요구는 (공산주의 국가를 플라톤의 국가로부터 구별 짓는) ‘평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철인이 되는 것이 지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의무였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작 실현된 것은 돈이 아니라 언어의 평등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들을 언어화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운명에, 그리고 삶에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평등의 매개물이다. 권력의 언어화는,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든 발화자들의 평등이라는 조건에서만 작동할 것을 강요받는다.”(155쪽).

역설과 총체성의 개념을 자기 식으로 전유하면서, 언어가 돈을 대신하는 ‘기호의 제국’ 소비에트를 (재)발명해 내는 그로이스의 묘사는 분명 신선하고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돈과 언어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의 잔인한 이분법은, 특히 우리시대 포스트 좌파 담론의 무기력함 - 차이, 정체성, 다양성, 혼종성, 윤리적 상대주의 따위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타협적, 절충적 공회전 - 을 배경으로 한층 더 신선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¹⁵⁾

문제는 몹시 대답하고 파격적인 그의 주장들이 언어 왕국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담론체계의 내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분석적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직 언어만을 수단으로 작동되는 철인들의 왕국”(86 쪽)이라는 정의는 그 언어의 성격(역설)과 목적(총체성)만을 명시할 뿐 그것의 문법과 스타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ойс, Постскрипtum 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остскриптуму,”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журнал, 65/66 июнь 2007. <http://xz.gif.ru/numbers/65-66/groys/>

- 15) 이 점은 특히 “밖에서 본 공산주의”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3장에서 두드러진다. 그로이스는 전체를 바꾸지 않은 채로 무한한 점근선을 그리는 타협적인 대화를 통해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는 서구 좌파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혁명적 주체는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의 근거에 구성적으로 포함된 오점(폭력, 오염)을 드러내려 했던 소위 “저주받은 철학자들”이나 포스트구조주의의 “이성의 모호한 타자를 추구하는 담론”은 “어떤 식으로도 자본주의와 대립적 관계를 맺을 수”없으며, 기껏해야 다른 소피스트들의 언어에 상처를 낼 수 있을 뿐이다.

이유로 인해 그로이스의 접근이 이 독특한 언어시스템의 다이내믹(변화)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호의 제국을 둘러싼 그로이스의 묘사는 그것의 ‘끝’을 (자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¹⁶⁾ 만일 그로이스식의 “메타노이아(metanoia)”가 아니면, 이 특별한 (언어)시스템의 끝(종말)에 관한 다른 설명은 어떻게 가능할까?

IV. 후기 사회주의: 스탈린의 패러다임 전환

바로 이 지점에서 그로이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제출된 또 한편의 연구가 특별한 흥미를 끈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달고 있는 알렉세이 유르차크(Alexei Yurchka)¹⁷⁾의 연구서는 (언어의 왕국

16) 소비에트의 해체가 “공산당 지도부의 주도하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산주의의 자기폐지”의 결과, 즉 철학적으로 볼 때 “메타노이아(metanoia)”라 불리는 순수하게 수행적인 종결/전환의 결단에 해당한다는 그로이스의 주장은, (어떻게 해도 종결될 것 같지 않은, 어쩌면 종결의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것 같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현실을 배경으로 강렬한 울림을 갖는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계속하기를 그만두는 것, 지나간 길을 따르기를 그만두는 것, 악무한의 쳇바퀴 굴리기를 그만두는 것”(139쪽)이야말로 혁명적 주체의 고유한 자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이는 그로이스가 그러한 언어제국이 자신의 끝에 관한 ‘다른’ 내러티브 - 냉전에서 서의 패배나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과라는 식의 뻔한 설명 이외의 - 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즉 스스로의 종말을 설명할 ‘내적 논리’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17) A.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Univ. 2005). 1960년생인 유르차크는 러시아 출신으로, 1997년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언어 및 문화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버클리 대학교 인류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출간 이래 지금껏 관련 학계의 비상한 주목과 더불어 러시아학 분야를 넘어서는 폭넓은 관심을 받은 이 책으로 유르차크는 2007년 전미 슬라브동유럽유라시아 학회가 수여하는 최고 저작상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저자가 직접 러시아어로 옮긴 러시아어본 *Это было навсегда, пока не кончилось: последнее Советское поколение* (М: Н.Л.О. 2014)으로 러시아 계몽자상(Просветитель)상 인문학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및 소비에트 시기 문화연구에서 이 책의 방법론이 갖는 특별한 함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서평을 참조할 수 있다. 김수환,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의 눈으로 본 후기 사회주의: 알렉세이 유르차크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1호, 한국러시

소비에트라는) 『코뮤니스트 후기』와 동일한 전제서 출발하면서도, 그로이스가 메타노이아 개념을 통해 우회해 버렸던 바로 그 지점(소비에트의 ‘끝’)을 정확하게 겨냥한다.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라는 책의 부제가 보여주듯이, 이 특별한 제국의 끝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심은 20세기 소비에트 역사의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다. 이 시기는 대략 스탈린의 사망(1953년)에서 시작해 해빙기(호루시초프)와 정체기(브레즈네프)를 아우르는 30여 년의 기간이다. 유르차크이 “후기 사회주의(Late Socialism)”라는 말로 부르는 이 시기 동안, 소비에트 시스템 내부에서는 모종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 내적 변화는 다시 나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¹⁸⁾이라 불리게 될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전환을 발생시켰다. 이 내적 변동과 전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낳은 구체적인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이 유르차크의 저서의 목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로이스와의 흥미로운 접점이다. 앞서 말한 ‘내적 전환’의 시작점, 후기 사회주의의 시대를 연 패러다임 전환의 첫 단추로 유르차크이 꼽고 있는 것은 (그로이스의 책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언어학자 스탈린’의 개입이다. 최고 지도자가 학문적 논의에 직접 개입했던 저 이례적인 사건, 그로이스가 소비에트식 존재론에 부합하는 심오한 언어철학으로 재해석했던 스탈린의 논설 「언어학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관하여」는 유르차크에 의해 전혀 다르게 조명된다. 그에 따르면, 언어를 상부구조로 상정하는 속류 마르크스주의적 언어모델(마르크주의)을 공격하면서 스탈린이 내놓은 대안은, “언어의 객관적인 본성,” 즉 “언어 구조와 진화, 인지, 심리학과 생물학 간의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지배하는 객관적인 과학법칙들”(45쪽)이었다.

아문학회, 2012, 187-199쪽.

18) Yurchak, 앞의 책, p. 26. 이후로는 본문의 괄호 안에 꼭 수표기함.

스탈린의 개입은 과학과 예술 분야에 남아있는 이상적인 아방가르드의 사유를 근절하고, 그것을 ‘사실주의’적인 객관적 과학 법칙으로 대신하는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논리적 결론이었다(.....)1930년대에 이론의 과학성이 학자의 당파성(*partinost*)(개인이 당의 세계관에 입각해 사유하는 것의 일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면 이제 ‘과학성’은 ‘객관적인 과학 법칙’과 연동되기 시작한다.(46쪽)

유르차이 보기에, 언어학의 경우는 당시에 지적, 과학적, 정치적, 미학적 담론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스탈린의 개입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주목할 것은 과학성의 기준이 “학자의 당파성”에서 “객관적인 과학법칙”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결코 학문의 객관화 경향 따위에 국한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심오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는 (스탈린이라는) “주인(master)의 자리”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주인의 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외부에 자리한 채 객관적 진실에 대한 외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주인의 형상”(10쪽)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모든 다른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상위의 ‘메타담론’이 바로 주인의 자리다.

오해하지 말 것은 메타담론의 원천으로서의 이런 ‘주인의 자리’가 세상 만물에 관해 자기 멋대로의 해석과 평가를 내놓는 전체주의 사회의 통념적 독재자 형상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리’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구체적인 인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유르차이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가 모더니티 이데올로기 내부의 일반적 역설(“르포르의 역설Lefort’s Paradox”)로 규정한 바 있는, 이데올로기적 언명과 통치 사이의 근원적인 균열과 모순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때 주인의 자리란 이 모순을 일시적으로 은폐함으로써 근대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모종의 “상상적 외부 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소비에

트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근대성 자체의 소비에트식 발현”에 해당한다.¹⁹⁾

르포르가 주장하기를, 모든 유형의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본연적으로 내재하는 이 모순은 오로지 “주인(master)”의 형상을 통해서만 은폐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외부에* 자리한 채 객관적 진실에 대한 *외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이 주인의 형상은 “진실이 그를 통해 나타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모순을 감춘다(1986, 211-12) 요컨대, 유토피아적인 계몽의 이념에 기초한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그것 외부에 자리한 상상적 위치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바, 그러한 상상적 외부자리가 의문시되고 파괴될 때 그것의 정당성은 위기를 겪게 된다(10-11쪽).

유르작에 따르면, 르포르의 역설의 소비에트식 판본은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혁명적 기획 자체로부터 생겨났다. “그 두 가지 목표란 과거의 정전(개논)을 영원히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미학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런 창조적 실험과 혁신을 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다.”(11쪽). 사회를 선도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정치적 프로그램의 통제 하에 복속되어야만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바로 이런 역설, 즉 “문화 생산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공공연히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것의 독립과 실험을 진작하고자 하는 소비에트 국가의 끝없는 열망”(12쪽) 속에 내재하는 이 역설은, 이데올로기 담론의 외부에 서서

19) “서구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도 근대성의 한 부분이다. 푸코가 강조했듯이, 심지어 스탈린주의나 파시즘 같은 권력의 ‘병리적 형태들’조차 ‘그것들의 역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별반 독창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이미 다른 사회에서 나타난 바 있는 메커니즘들(...)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정치적 합리성의 이념과 장치들을 사용하고 확장했을 뿐이다(Foucault 1983, 209). 근대 프로젝트의 일종으로서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근대성의 핵심적 모순들을 공유한다.”(10쪽).

그에 대한 주석적 논평을 행하는 르포르의 “주인” 역할, 곧 스탈린을 통해서만 은폐된 채 기능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탈린이 “주인의 주관적 지식에 기초한 모델로부터 객관적인 과학적 법칙에 근거한 모델로” 옮겨간다는 것은 스탈린이라는 “메타-주석자”의 자리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스탈린 자신에 의해 개시된 이 최초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뒤이은 그의 사망은, 단지 독재자 한명의 사라짐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니다. 이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심오한 변화,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담론 구조 전체의 심오한 변동과 재조직화를 불러오게 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르포르의 역설을 감춰줄 수 있는 외부 목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이 역설을 구성하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부조화는 고삐가 풀려 버렸다. 결국 이 변화는 후기 사회주의 시기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이데올로기의 언어부터 이데올로기적 의례, 실천, 조직들의 본성까지)의 담론 구조에 심대한 변형을 야기했다.(14쪽)

그렇다면, “주인의 자리”의 이와 같은 사라짐이 이데올로기적 담론 체계 전반에 야기한 실제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스탈린이라는 ‘외부 주석자’가 사라짐으로써, 특정 텍스트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정해줄 수 있는 ‘외부 정전’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특권 또한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로 인해 이제는 “그 어떤 텍스트라도 잠재적으로 ‘탈선(deviation)’으로 읽힐 수 있는 위험”(47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외적인 규범(이데올로기적 표준)의 부재가 규범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모든 표현들이 반규범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당연한 대응은 단 하나 뿐이다. 고착화된 형식적 표현에 강박적으로 집착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길이다. 권위적인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정해진 형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것, 즉 “표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이제 소비에트의 모든 담론 생산자들의 피할 수 없는 강박이 되었다.²⁰⁾ 바로 이것이 스탈린이 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 유르차이 “형식의 헤게모니”라는 말로 지칭하는 담론의 “초규범화(hypernormalization)” 상황이다.²¹⁾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꾸준히 표준화를 겪었고, 모든 텍스트들은 마치 하나의 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처럼 점점 더 비슷해졌다. 당의 텍스트들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최소화하여, 예전에 이미 생산된 텍스트들처럼 들리게 하는데 몰두했다. 그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텍스트에 끝없는 수정을 가했고, 이는 결국 권위적 언어의 점진적인 단일성, 익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낳았다. 집단적 글쓰기, 상호 모방, 그리고 규칙화된 편집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문체는 평범해졌고, 텍스트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최소화되었다. 중앙위원회의 연설문작성자들이 “블록-글쓰기(block-writing)”(49쪽)라고 불렀던 이 새로운 텍스트 집필 방식을 통해, 텍스트의 서사구조는 많은 정형화된 연설과 담화들이 “처음부터 끝으로 읽어도, 끝부터 처음으로 읽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순환적인 것이 되었다.²²⁾

한편, 자신들의 텍스트들에서 그 어떤 모호함도 피하려는 지도부의 노

20) 공식적 표현의 형식상의 아주 사소한 변경조차도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언어 형식을 향한 편집증적인 집착에 관한 지적의 앞선 지적을 상기하라.

21) 2장의 제목은 “형식의 헤게모니: 스탈린의 섬뜩한 패러다임 전환 Hegemony of Form: Stalin’s Uncanny Paradigm Shift”이다.

22) “문장들은 점점 길어졌고, 동사 수는 줄었으며, 명사들은 사슬처럼 엮여서 긴 명사구를 만들곤 했다. 수식어는 몇 개씩 중첩되면서 최상급 형식을 취했다(...)소비에트의 권위적 언어는 모든 구조적 층위(통사, 형태론, 서사 등)와 맥락들에서, 점점 더 인용 가능하고 순환적인 것이 되었다”(49-50쪽). 여기서 유르차는 담론의 이런 변화과정을 어휘, 형태론, 통사론, 화용론, 서사구조, 시간성, 나아가 상호텍스트적 층위에서 상세하게 분석하는데, 이는 그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류학자일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전문지식에 통달한 매우 탁월한 ‘담론분석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력은 언어적 구조의 엄격한 표준화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표준을 대단히 다루기 불편한 것으로 만드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 저 악명 높은 “참나무 언어(duvovyi iazyk),”(61쪽) 클리셰로 넘쳐나는 딱딱한 나무 같은 문어체 언어는 바로 이 과정에서 생겨났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형식의 “초규범화”는 연설문이나 당 문서 같은 언어적 장르뿐만 아니라 시각적 선전물이나 정치적 의례 같은 권위적 담론의 ‘비언어적 장르들’(가령, 레닌과 마르크스의 초상화, 정치국 위원들의 사진, 낫과 망치를 형상화한 설치물들, 포스터, 깃발, 정기적인 퍼레이드행사 등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레닌의 새로운 초상화는 이전에 비해 더 고정되고 반복적인 스타일로 그려졌던 바, 즉 한정된 배경과 포즈들, 더 적은 색채와 조각 기법, 재료, 색, 질감 등을 사용하면서 매번 반복될 수 있는 시각적 구조의 고정적 요소들을 활용했던 것이다.”(55쪽)

표준화된 형식에 대한 강박이 극단화되어 거의 편집증에 가까워진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는, 그러나 어떤 점에서, 유르차이 풀어내려는 ‘진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완전히 예측가능해진 담론의 상투적 표현들이 사회전체를 가득 뒤덮어 움짱달짝 못하게 되어 버린 듯한 이런 갑갑한 상황 속에서, 소비에트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의미심장한 역설적 전환이 발생한다. 후기 사회주의의 권위적 담론을 작동시키고 실천을 조직했던 핵심원칙이었던 “수행적 전환”이 그것이다.

V. 수행적 전환: 역설의 소비에트

유르차는 1950년대 이후 소비에트에서 권위적 언어를 평가하던 ‘외적’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가 ‘초규범화’ 혹은 ‘내적 표준화(normalization)’라고 부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낸다. 언어적, 비언어적 장르를 포괄하는 그의 꼼꼼한 묘사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당대의 소비에트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고유한 담론 시스템으로서 소비에트 체제를 바라보는 유르차의 독특한 시선이 부각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평범한 시민들은

권위적 언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피해갈 수 없으며 고도로 규범화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진술적 의미로서 문자 그대로(literally) 읽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진술이 “사실”을 재현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 그 대신에 소비에트 시민들은 권위적 언어를 (.....) 수행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76쪽).

여기서 강조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들은 헤게모니를 쥔 권위적 언어담론을 결코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사실 그럴 수도 없었다). 권위적 이데올로기 담론에 참여하는 것, 이를테면, 정확한 언어 형식을 반복하고, 의례에 참여하고, 선거장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따위의 일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들이 나름 매우 중대한 “효과들”을 창출하기 때문인데, 이 효과들은 많은 경우 그 행위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의 (진술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것들이었다. 둘째, 소비에트의 시민들은 권위적 담론이 초규범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은 헤게모니를 쥔 권위적 언어가 고도로 규범화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의 진술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수행적 전유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초규범화된 형식의 편재성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역설의 논리, 그가 “수행적 전환”이라 지칭하게 될 흥미로운 역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유르차는 긴 이론적 우회를 거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을 도입한 오스틴에 따르면, 언어에는 무언가를 서술하는 (가령, “날씨가 춥다”, “내 이름은 조이다”처럼 현실을 묘사하거나 사실들을 제

시하는) “진술적 발화(constative utterance)”와 더불어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는(do) 발화들의 전체 집합을 포함한다.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말해진 “유죄!”라는 말, 공식적인 진수식에서 선포된 “이 배를 퀸 엘리자베스 호라고 명명하노라”라는 말, 혹은 “내일 비가 온다는데 나는 6펜스를 걸겠다”같은 발화는 사회적 현실을 묘사하는 대신에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수행한다. 오스틴은 이런 종류의 발화를 “수행적(performative) 발화” 또는 “수행적인 것(performative)”이라고 불렀다. ‘의미’를 전달하는 진술적 발화가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반면에 ‘힘’을 전달하는 수행적 발화는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없고 다만 적절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화자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후자에서는 의도가 아닌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²³⁾(19쪽).

유르차는 오스틴의 이 구분을 더욱 확장해 담론 일반의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을 구분하면서, 소비에트라는 담론 시스템의 이해에 있어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하나의 주장을 내놓는다. 즉, 소비에트 시기 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이라는 이 두 차원의 ‘동시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담론의 진술적 차원(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으로는 그것의 진정한 화용론적 함의(그것이 어떤 효과를 산출하는가)를 결코 알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알기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1970-80년대 소비에트인들은 당 대회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의례들(퍼레이드, 콤포몰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이런 집회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손을 들어올렸다 (그들은 어차피 결정에 자신의 견해가 중

23) 예를 들어, “선서와 같은 발화행위는 수행되기 위해 심리적 상태로써 의도될 필요가 없다. 누군가 내심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를 품은 채로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서라는 행위의 실행(execution)의 실제성이나 효력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이는 그의 거짓말이 들통 났을 때 그것[그의 의도]이 법적 구속으로부터 그를 면제시켜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19쪽)

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정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집회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의’를 뜻하는 이 손드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집회라는 관례적 맥락에서 투표행위가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진술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합법적 투표로서 인정하는 규칙과 규범의 체계 속으로 해당 투표를 묶어두는 것이다(수행적 차원). “투표를 투표로 만들어주는 것은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의 이 결합이다.”(23쪽).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특정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선거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으나 투표 행위에 참여하는 일 자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왜 그런가? 그가 “이 선거엔 어차피 한 명의 후보(혹은 하나의 결의안)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어차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표(라는 이 관례적 절차)를 무시해도 좋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와 더불어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투표라는 이 의례의 성공적인 수행이 다른 중요한 실천과 사건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제도 자체의 재생산 뿐 아니라 그것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학생, 고용자, 시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가능성들의 재생산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투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보다 더 중요하다.(23쪽)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보다 ‘투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의례적인 투표 절차의 성공적인 수행이 다른 중요한 사건과 실천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들에 참여하는 것은 그를 관계들의 체계와 집단 속에서 ‘정상적인’ 소비에트인

으로 재생산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진술적 차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만(가령,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된다!), 투표의 수행적 차원에는 가깝게 밀착해 있어야만 한다(결정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손을 들어 올려야만 한다!). 체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절차인 이 투표 참여는, 심지어 향후 방금 투표한 결정에 ‘반하는’ 여러 관심사와 의미들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내포하는 중대한 행위인 것이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보다 ‘투표하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담론의 진술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 간의 비중이 역전돼버린 상황, 다시 말해 수행적 차원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반면에 해당 담론의 진술적 의미는 점점 더 중요치 않게 되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역전의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앞서 말한 담론의 “초규범화” 상황에서 비롯한 결과다. 어차피 똑같은 정해진 형식의 정확한 ‘복제’만이 문제라면, 다시 말해 그 담론이 *어떻게* 재현되는지가 그것이 *무엇을* 재현하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면, 이제 그것은 반드시 진술적 의미로서 ‘문자 그대로’ 읽힐 필요가 없어진다. 담론의 진술적 차원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그에 따라 수행적 차원이 현저히 부상하는 이 상황은, 1950년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서 “르포르의 역설”이 다시 열리면서 등장한 “형식의 헤게모니” 상황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1950년대에 시작된 변화, 그 아래에서 소비에트의 권위적 담론이 생산, 유통, 수용되었던 조건의 변화가 야기한 부산물이었다(...)중국에는 고정되고 규범화된 담론 형식의 복제 그 자체가 중요해지면서 이런 담론 형식들의 진술적 의미들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 과정, 그러니까 발화행위의 수행적 차원(즉 이러한 행위를 형식의 차원에서 재생산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행위들의 진술적 차원은 열린 결말, 비결정적인 것, 혹은 그저 부적절한 것이 되는 과정을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이라 부를 것이다.(26쪽)

그런데 후기 사회주의 분석가로서 유르차의 진가는 그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간다는 데 있다. 유르차는 이와 같은 수행의 과정에서 담론의 진술적 의미가 부적절함을 넘어 ‘비결정적인 예측불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엄격하게 형식화된 공식 담론의 수행적 반복 행위를 통해 그것의 진술적 차원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의미들을 위한 공간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26쪽).²⁴⁾ 유르차에 따르면, 수행적 전환은 의례화된 형식적 행위들을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공적 삶 속에서 [공식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들을 전적으로 제약하지도 않았다. “그와 반대로, 의례와 발화행위 형식의 수행적 재생산은 다양하고 복수적이며, 그래서 (권위적 담론의 진술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는) 예측불가능한 의미들이 일상생활에서 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enabled)* 만들어 주었다.”(25쪽)

앞으로 이어질 이 책의 장들에서 나는 1950년대와 1960대에 일어난 권위적 담론의 수행적 전환이 소비에트 시민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적 의미, 규범, 가치와 복잡한 방식으로 분화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 소비에트 시민들은 특정한 의미, 규범, 가치를 거부할 수도, 활발하게 수용할 수도,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수도, 혹은 그것에 무관심할 수도 있었다(...)그것은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의미들, 삶의 스타일들이 소비에트 내부 어디에서든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29쪽)

24) 이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유르차는 모든 화행이 문맥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긋나게’ 마련되며, 이런 점에서 결코 사전에 완벽하게 의도되거나 결정될 수 없다는 데리다의 주장을 동원한다. 수행적 반복에 내재된 창조적 힘을 부각시키는 그의 관점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재생산되는 규칙과 관례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지는 변화와 예측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20쪽). 그런가하면 유르차는 수행성의 기호적 측면을 강조했던 데리다의 견해를 수행성의 사회적(즉 제도적, 권력적) 차원을 강조했던 부르디외의 해석과 접목함으로써, “엄격하게 통제된 제도적 맥락들 속에서도 의도치 않은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발화행위”의 힘, 곧 버틀러식의 “수행적인 것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종합해낸다.

실제로 1장(서론)과 7장(결론)을 제외한 유르착의 저서 전체는 이런 예측불가능한 창조적 열림의 다채로운 사례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할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화된 권위적 담론형식의 반복적인 재생산이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 속에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긋남과 열림의 공간을 확보하는지, 지배 시스템 안에서 언제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목소리들을 지켜내는지 하는 것들이다. 요컨대 그것은 일찍이 미셸 드 세르토가 말한 “일상의 실천(the practice of everyday life)”²⁵⁾의 다양한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온갖 창조적 일탈의 전술들(“little tricks,” 98쪽)은 공식 담론과 의례들에 ‘반하여’ 혹은 그것의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전술들은 공식 담론의 반복적인 재생산 과정 자체를 ‘통해서’ 그것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유르착이 말하는 창조적 해석 가능성, 일탈의 시공간을 여는 작업(“탈영토화”)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외부’가 아니라 그것의 반복적인 수행 ‘한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유르착이 제공하는 생생한 에피소드들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은 소비에트의 평범한 인간들이 발명한 수많은 ‘작은 트릭들’의 배후에서 어김없이 발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적 공식 담론 자체라는 사실이다. 새롭고 다채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소비에트 체제 자체였다.²⁶⁾

25)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26) 가령 5장의 제목이기도 한 “상상의 서구(Imaginary West)”는 사실 국가가 만든 것이었다. 국가는 문화적 국제주의를 장려하는 동시에 서구의 나쁜 부르주아 문화를 제한해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1950-60년대 소비에트의 일상 속에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는 해외 라디오 스테이션을 차단했지만 동시에 단파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보급했으며, 서구의 록음악을 금지시켰지만 동시에 녹음

이와 관련해 반드시 지적할 것은, 이 창조적 전술의 과정이 반드시 기존 공식 담론에 표현된 규범이나 의미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유르차에 따르면, “담론 체제(regime)속으로 사소한 내적 전치(displacements)와 돌연변이(mutations)들을 도입”하는 이런 행위들은 참여자들 대부분에게 하찮게 여겨지고, 관찰자들 대다수에게 포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들은 시스템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매개변수들과 맞설 필요가 없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해당 시스템이 가진 가능성, 약속, 긍정적 이상, 도덕적 가치를, 그 가치들이 그 안에서 표현되는 시스템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을 피해가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8쪽). 바로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소비에트의 보통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 즉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삶에 부여했던 - 국가 수사학에 의해 제공된 공식적 해석과 상당 부분 다른 -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충직한 콤포소물 간부가 자신의 공식적 삶과 서구 록 음악 매니아의 삶을 어떻게 ‘모순 없이’ 결합할 수 있었는지(5장), 이론 물리학자 그룹이 어떻게 당대의 공식적 삶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milieus)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4장), 동지와 적을 가르는 공식적 분할선과는 다른 독특한 ‘우리 편(svoi)’의 사회성(sociality)을 당대의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3장) 등을 보게 되는 것이다.²⁷⁾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후기 사회주의의 “수행적 전환”은 어떻게 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기를 보급했다. 이런 이중적인 정책은 소비에트의 ‘정상적인’ 젊은이들의 서구 세계를 향한 상상과 서구 록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그것을 정당화했다. 서구 록음악과 공산당의 이념을 결합시키려는 일부 젊은이들의 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해진다(231쪽).

- 27) “후기 소비에트 사회에서 권위적 담론의 의례와 텍스트가 수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진술적 차원에서는 묘사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들이 부여됐다고 해서, 개인이 다양한 집회, 가능성, 가치, 사회주의의 전제들에 친밀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당이 동원한 미사여구를 융통성 없이 해석하는 데에서 벗어나 본래의 의미, 가치, 약속들을 되찾아오는 것(recapture)도 가능했다.”(28쪽)

VI. 담론의 끝: 공산주의, 언어와 더불어 살기

지금까지 살펴본 유르착의 분석이 겨냥하는 최종적인 지점이 결국 소비에트의 “끝”이라는 가장 논쟁적인 지점에 가닿아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체제의 권위적 담론 형식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이 오히려 그에 대한 창조적 일탈 및 전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설, 바로 이 역설이 유리착의 저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 결국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소비에트의 제도 자체였다는 인식, 아이러니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 통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끈다. “한 체제 내부에서 불변적 권위를 지닌 담론이 도처에서 점점 더 많이 재생산될수록 그 체제는 더욱 더 심오한 내적 전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283쪽).” 체제의 권위를 담은 형식과 표상의 재생산 과정에 대중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권위적 담론은 절대적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져 새로운 해석을 행해 열리게 마련이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형태의 의미 있고 창조적인 삶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유르착이 그려내고 있는 후기 사회주의의 풍경은 흔히 쇠퇴(decay)나 정체기(stagnation)로 불리는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내적 재조직화의 과정에 더 가깝다. 책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주의란 “단순한 국가의 헤게모니 수사학이 아니라 창조적 세계, 상상의 공간, 그리고 의미있는 사회성의 형식들로 가득 찬 정상적인 삶(normal life)”(295쪽)으로서 경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그 체제의 영원성이 그토록 강하게 유지되었던 것은 어쩌면 전적인 오해가 아닐 수 있다. 그 체제의 붕괴가 그토록 놀라웠던 이유는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세계들’이 그들의 삶을 그토록 복잡하고 충만하며 창조적인 것으로, 즉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원했던’ 것이다. 막상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유르차이 이 책 전체에서 그려내고 있는 역설의 상황, 외부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분명 ‘모순’으로 느껴지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모순 없이’ 가동되었던 상황은, 소비에트의 (급작스런)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의 배후를 이룬다. 즉 그의 관점에 입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해진다. 이 역설이 모순으로 체험되지 않는 한 이 체제는 계속해서 (어쩌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해, 이 역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체제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그 역설이 글자 그대로 ‘모순’으로 폭로되기 시작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였다). 소비에트의 붕괴가 그토록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체험된 이유, “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영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로이스는 『코뮤니스트 후기』의 서문에서, 공산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언어 안에서, 언어를 통해 수행되는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썼다. “온전히 언어만을 매개로 사회를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을 언어가 획득할 수 있을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러할까?”(13쪽)

유르차이 묘사하고 있는 후기 사회주의 소비에트의 실상은, 그로이스가 발명해 낸 저 전능한 언어의 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거기서 언어는 진술적 차원에 닿을 내리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적 형식의 껍데기로 부유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세계는, 그 반쪽짜리 언어의 깜짝 놀랄만한 역량을 반증하고 있다. 언어가 무언가를 온전히 ‘의미하지’ 못할 때에조차, (그 무능력의 상황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인간은 그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언어의 불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의 조건인 것이다. 최소한 언어와 더불어 살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말이다. 문제는 인간이,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언어와 더불어 살기’라는 저 근본적인 실존의 조건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지의 여부다. 인문학 혹은 인간학의 화두가 ‘다른’ 말을 하는 존재들(이른바 인종

적, 성적,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점점 더 인간 언어 바깥의 존재들(기계, 동물, 생명)을 향한 관심(포스트휴먼 혹은 트랜스휴머니즘)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 오늘날,²⁸⁾ 공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언어적 실존을 되묻게 하는 예외적 토포스로 (재)등장하고 있다.

28) 기호학과 관련해 이런 경향의 함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최근 번역서 2권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마우리치오 랏자라토, 『기호와 기계: 기계적 예측시대의 자본주의와 비기표적 기호계 주체성의 생산』, 신병현, 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에두아르도 콘, 『숲은 생각한다: 숲의 눈으로 인간을 보다』, 차은정 옮김, 사월의책, 2018.

참고문헌

- 김수환,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의 눈으로 본 후기 사회주의: 알렉세이 유르차크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1호, 한국러시아문학회, 2012. 187~199쪽.
- 김종영, 『파시즘언어』, 한국문화사, 2003.
- 남혜현, 「의례의 언어로서의 소비에트 노보야즈」, 『슬라브어 연구』 21(2), 한국슬라브어학회, 2016. 115~131쪽
- 마우리치오, 랏자라도 저, 신병현, 심성보 옮김, 『기호와 기계: 기계적 예측시대의 자본주의와 비기표적 기호계 주체성의 생산』, 갈무리 2017.
- 보리스, 그로이스 저, 김수환 옮김, 『코뮤니스트 후기』, 문학과지성사, 2017.
- 슬라보예, 지젝 저,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 에두아르도, 콘 저, 차은정 옮김, 『숲은 생각한다: 숲의 눈으로 인간을 보다』, 사월의 책, 2018.
- 이기웅,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마르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193~239쪽.
- 크리스티안, 마라찌 저, 서창현 옮김, 『자본과 언어: 신경제에서 전쟁경제로』 갈무리, 2013.
- Badiou Alain, *The Communist Hypothesis*, translated by David Macey and Steve Corcoran, Verso, 2010.
- Certeau Michel de,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Virno Paolo,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London: Semiotext(e), 2004.
- Yurchak Alexei,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Кронгауз Максим, “Бессилие языка в эпоху зрел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лово за слово: о языке и не только, РАНХ и ГС Дело, 2015. сс. 77-89.
- Юрчак Алексей, Это было навсегда, пока не кончилось: последнее Советское поколение, Москва: Н.Л.О., 2014.
- Гройс Борис, Постскрипtum 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остскриптуму,”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журнал, 65/66 июнь 2007. <http://xz.gif.ru/numbers/65-66/groys/>

Communism and sign:

From linguistic rule to performative shift

Kim, SooHwan

This paper aims at (re)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munism and language in terms of historical experiences of Soviet Union in 20th century. Critically reviewing Boris Groy's famous thesis about Soviet communism as the "kingdom of language", in which Soviet system is regarded as the result of "linguistic turn, executed in the dimension of social practice", i.e., as a state of "total linguistification of society", I will examine it in comparison with another very interesting view on the language system of communism(socialism): Alexie Yurchak's controversial thesis on "performative shift" in late socialism. Yurchak's unique view on Soviet socialism as a specific discourse system, thoroughly illuminating peculiar paradox of Soviet discourse system in the period of late socialism, in which performative repetition of authoritative ideological discourses does not prohibit, but rather enable the possibility of creative deviation from or unexpected reappropriation of them, could provide us with profound insights on the problematics around the collapse (the end) of "linguistic imperial" of Soviet Union.

Keywords : Soviet communism, Boris Groys, language, paradox, Alexei Yurchak, performative shift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이미지와 의미 부여에 대한 일고찰

– 바르트의 이미지론을 중심으로

김휘택*

【 차 례 】

- I. 서론
- II. 개인적 차원의 의미 영역
 - 1. 의미에 대한 구조적 접근
 - 2. 함축 의미: 개인적 의미부여
- III. 이미지의 의미
- IV. 푼크툼punctum, 스튜디오studium, 의미부여
 - 1. 스튜디오와 신화, 객관성
 - 2. 푼크툼과 개인적 의미부여
- V. 의미의 새로운 배열
- VI.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의미부여와 관련된 논의들을 바르트의 저술들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에노의 연구는 언어적 차원에서 외시와 함축의미가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함축 의미의 개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바르트의 광고 이미지 분석은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층위들이 종합되어야 광고 이미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를 통해 통합 관계에서 벗어난 이미지들의 의미가 가지는 주관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바르트의 사진론을 일별하면서, 바르트가 제시한 스튜디오와 푼크툼의 개념을 일별하고, 대상에 개인적인 의미 부여가 이론적으로도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 3의 의미를 통해 무던 의미의 개념

*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을 파악했다. 이 무딘 의미의 개념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상의 의미가 주체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다. 주체는 이미지와 같은 대상을 접하면서, 의미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사실은 기호학 이론들에서 제공하는 의미의 층위들이 분석 차원에 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쇠어 : 롤랑 바르트, 의미 부여, 이미지, 스튜디오, 폰크툼, 자연스러운 의미, 무딘 의미

I. 서론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그가 수행한 기호학적 프로그램 전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는 ‘텍스트’라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참여한다. 바르트는 회화, 사진, 문학과 같은 특정 분야보다는 이를 아우르는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서 ‘텍스트’를 사용한다. “시각 이미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몸과 몸짓들조차 하나의 시각 텍스트로서 읽을 수 있다는 그의 다소 고집스러운 믿음”¹⁾이 이러한 단정을 뒷받침한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미지를 텍스트에 편입시키는 것은 단순한 용어의 범주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언어학을 회화에 ‘적용’시키고, 예술사 속에 얼마간의 기호학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회화와 텍스트를 제도적으로 갈라놓는 간격(검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인가가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이 해묵은 문화적 신성성을, 작업으로서의 텍스트와 텍스트로서의 작업이라는 일반화된 “작업량 기록 *ergographie*”으로 대치하면서, ‘회화’와 마찬가지로 ‘문학’ (그리고 그것들의 메타언어학적 상관물, 비평과 미학)이 가졌던 가치를 무효화할 것이다.²⁾

1) 김성도, 「바르트와 이미지: 시각 기호학을 넘어」, 『불어불문학연구』 105집, 2016, 244쪽.

2) R. Barthes, “La peinture est-elle un langage?”,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p.97. 이하 바르트 전집 인용 시에는 한 저서의 저술 명을

그에게 있어, 회화에 대한 분석은 이제 그것에 대한 메타언어가 아니라, 텍스트라는 일반화된 범주에 속하는 한 작업으로 분류된다. 물론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³⁾ 이미지가 그의 저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텍스트는 그것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저자와 독자를 나누게 된다는 점이다.⁴⁾ 텍스트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판단의 중지 그 자체의 단계를 가진다. 이것이 이른바 텍스트를 체계로 보는 구조주의적 시각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자의 해석이다. 텍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기호로 만드는 것, 텍스트의 개인적·사회적인 의미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 즉 텍스트를 현동화 하는 것은 결국 독자의 몫이다. 이미지는 기호이자 기표이다.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저자는 매우 치밀한 전략으로 기표와 기의를 결합한다. 하지만 독자는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텍스트를 읽는다. 독자는 이미지를 비어 있는 기표로 만나고, 기표에 해당하는 기의를 채운다.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효과를 낳는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에 발생하는 의미와

밝히고 이후 Tome N°와 페이지 번호만 제시한다. (예 R. Barthes, *OC I*, p.000.)

- 3) 다음 박평종의 언급은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은 시각 이미지에 관해 그가 발표한 몇 편의 저술 중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이전의 사진과 영화에 관한 텍스트가 주로 구조주의 기호학의 토대 위에 놓여있다면 『밝은 방』은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이 책은 전제와 추론, 분석과 종합을 통해 엄밀한 사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는 다만 ‘쾌락주의자hédoniste’의 입장에서 마음에 끌리는 사진을 선택하고, 그 이미지를 ‘애호가amateur’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박평종,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에 나타난 지향성의 문제」, 『프랑스학연구』 56집, 2011, 155쪽.
- 4) 이경률의 경우, 사진을 연극에 비유하는데 이를 통해 사진의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진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일종의 무언극으로 간주되며, 그때 사진 이미지는 우선 존재론적 지시대상 말하자면 연극적인 지시 행위로서 사진-인덱스(photo index)가 된다. 그래서 사진 인덱스는, 연극에서 매시지자 연출자의 의도와 관객의 수용에 의해 장치되고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동자의 의도와 관객의 수용에 의해 드러나고 읽혀진다. 다시 말해 사진 인덱스는 이미지 그 자체의 분석(구조 문맥주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산라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주체-작동(sujet-operator)과 주체-관객sujet-spectator)의 두 가지 관점(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경률, 「사진 영상의 상상적 의식작용과 자극·신호」, 『기호학연구』 20집, 2006, 232쪽.

관련된 논의들을 본고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개인적 차원의 의미 영역

1. 의미에 대한 구조적 접근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이하 강의)는 언어기호를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기표는 청각 영상image acoustique, 기의는 개념concept에서 유래한 말이며, 각각 표현면과 의미면을 가리킨다. 기표와 기의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서로를 요청하는 관계”⁵⁾이다. 그러면서도 그 관계는 자의적이다. 다음 언급을 보자.

기호학이 학문으로 조직되는 때에, 전적으로 자연적인 기호에만 근거하는 팬터마임과도 같은 표현 양식도 당연히 기호학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양식을 수용한다고 해도, 기호학의 주요한 대상은 기호의 자의성에 근거한 체계 전체일 겁니다. 사실 한 사회에서 수용된 모든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집단의 습관, 즉 규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연스러운 표현성을 가지고 있는 예절의 기호들(아홉 번 엎드려 절하면서 황제에게 절하는 중국인들을 생각해 보라)도 규칙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이 규칙이 그 기호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기호들 안에 내재하는 내적 가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자의적인 기호는 그렇지 않는 다른 기호보다 기호학적 방식의 이상을 더 잘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현 체계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언어는 모든 표현 체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하나의 개별적인 체계에 지나지 않지만, 언어학은 기호학 전체의 일반적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⁶⁾

5)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6, p.99.

6) *Ibid.*, pp.100-101.

위 언급을 보면, 랑그 속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자의적이지만, 규약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규약은 기표나 기의, 그리고 그들의 결합인 기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어의 기표와 기의는 서로 자의적이지만, 사회나 집단의 규약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결합된다. 기호가 언어 속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어떠한 규약 속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자의성 가진다. 표현면과 의미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 현상적 대상이 있다면, 이 양면은 각각 기표와 기의로 환원될 수 있고, 자의성의 역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 “언어학은 기호학 전체의 일반적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소쉬르가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사회 심리학’, 나아가 ‘일반 심리학’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자의성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의문점이 생긴다. 강의에서는 기의에 대한 설명은 기표와의 관계를 통해 제시된다. 이 책 9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1부의 제1장은 언어 기호의 성격을 제시한다. 1절은 기호, 기의, 기표, 2절은 첫 번째 원칙: 기호의 자의성, 3절은 두 번째 원칙: 기표의 선적 성질로 명명되어 있다. 기표의 선적 성질은 기표에 대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절을 통해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의는 일목요연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들고 기표와 같이 한 절로 제시된 것도 아니다. 기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언어 기호의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에 절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흥정표는 엘름슬레우 Louis Hjelmslev의 기호학을 통해서 기의와 관련된 과학적 접근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소쉬르는 언어 기호를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간주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엘름슬

레우는 기표와 기의의 명칭을 표현과 내용으로 대체하고, 기호 분석에 있어서 표현면과 내용면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두 가지 면이 실질substance이나 형식 forme과 분절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과 음운의 문제가 표현의 실질, 표현의 형식으로 나뉘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것처럼, 의미 문제도 내용의 실질, 내용의 형식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호의 표현과 내용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며, 기호 분석에 있어서 <표현의 실질>과 <내용의 실질>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역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레마스는 엘름슬레우가 분석한 네 가지 층위, 표현, 내용, 실질, 형식을 자신의 이론 기반으로 삼았다.⁷⁾

안느 에노Anne Hénault는 위와 유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의미의 최소 단위인 의소의 규정을 세 가지 가설을 제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선언적인 것으로 의미 작용의 형식이 분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작용의 분절가능성divisibilité de la signification’⁸⁾은 엘름슬레우의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색깔에 대한 웨일스어와 프랑스어의 비교, 나무, 목재, 숲의 어휘장 분석, 언어 간 통사론적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은 의미의 형식이 기표와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⁹⁾

두 번째 가설에서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분절의 층위 위에서 이루어져

7)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23쪽.

8) A. Hénault,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PUF, 2012, p.27.

9) 박인철은 엘름슬레우의 ‘기호소figure’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그는 표현과 내용 사이의 동형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으로 엘름슬레우의 연구를 요약해낸다. “엘름슬레우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언어 기술은 기호의 표현과 내용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분석해야 하며 이 분석은 궁극적으로 표현과 내용 각각에서 수적으로 제한된 단위를 추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위들은 기호가 아니라 비(非)기호이며 엘름슬레우는 이를 “기호소figure”라고 부른다.”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2003, p.84. 여기에서 기호소는 음소와 의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의미에 대한 분절적 체계의 구성은 기표의 분절과 상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음소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의소가 도출되는 것이다. 음소는 단소라는 상위 층위를 가지고 단소는 문장이라는 상위 층위를 가진다. 예노 역시 표층부터 분절해간다. 첫 번째 층위를 텍스트 자체로 규정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층위는 의미작용의 ‘기본적인 구성소composantes élémentaires’, 즉 의소sèmes를 기술하는 단계이다.¹⁰⁾ 우리는 이 의소들이 랑그 차원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에서 총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노의 세 번째 가설은 의소들의 이항대립을 통한 의미작용의 최소 층위 상정에 관한 것이다. 예노는 음소들의 대립이 음운론의 변별적 대립과 같다고 언급한다. 의소의 도출 방식 역시 이항 대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노는 엘름슬레우가 예상했던 의소들의 제한된 목록inventaire limité d’éléments minimaux과 “인간의 다양한 언어들에 사용된 모든 의미작용의 기본 요소들을 담은 ‘심층’의 사전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가장 야심찬 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를 예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¹¹⁾

왜냐하면 의소 분해의 최종 층위, 즉 보다 복잡한 총체(혹은 의미소 sémème)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본적인 것에 관계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층위를 규정하기 위한 유효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구현되었고 이후 고전적인 것이 될, 의소 분석이나 어휘장의 구조화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은 의소들이 갖고 있는 전적으로 관계적인 성질인 이 이론의 기본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있다.

10) A. Hénault, *op.cit.*, 2012, p.31. 두 번째는 담화 층위niveau discursif와 세 번째 층위 이야기 층위niveau narratif로 규정된다. 이 두 층위는 언어학적 차원이자기보다는 그 레마스의 이야기 이론에 바탕을 둔 기호학적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11) *Ibid.*, p.34.

에노는 언어에 행해진 의소 분석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에노가 얻은 결론은 랑그 차원에서 음소와는 달리 한정된 의소들의 총체를 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작품이나, 한 작가의 작품의 총체, 즉 ‘폐쇄가 실현된 담화’에서는 의소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은 뽀띠에Bernard Pottier의 의자siège의 어휘장 분석 등이 제한된 영역에서의 의소 분석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 에노의 언급을 보자.

랑그에서 의소로 분석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폐쇄된 자료체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반대되는 이유로, 어떤 폐쇄clôture된 형태를 가진 실제 텍스트들의 분석에 관계될 때 의소 분석은 한 작가에 고유한 어휘 코드의 애매함을 없애준다. 바로 이러한 폐쇄가 텍스트들에게 적용된 조작들의 체계적 성격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록의 철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¹²⁾

위 언급들을 종합하자면, 엘름슬레우가 지적한 표현면의 기호소는 즉, 의소는 하나의 한정된 수의 전체로서 구성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노는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음소에 대응하는 의소가 아니라, 특정 대상이 확정된다면, 의소들은 그 대상의 최소 단위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의미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기술은 의미 단위들의 한정과 그 의미 단위들의 관계로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 단위들의 관계는 최소 단위로부터 중간 단위, 전체에 이르는 층위의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한 작품이건, 한 작가의 작품 전체이건 자료체를 한정할 수 있을 때, 의소는 최소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언어학강의』에서는 기의가 “폐쇄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역

12) *Ibid.*, p.51.

으로 생각되는 단어의 한계들 안에서”¹³⁾ 자리 잡고 있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는 언어 집단에 속한 개인이 기의에 대한 기표, 혹은 기표에 대한 기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¹⁴⁾ 사회 속에서 기호의 양면은 규약으로 결합되어 있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면 이 규약을 따라야 한다. 언어 체계는 사회 속에서 의미를 교환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외시(dénotation)와 함축 의미(connotation)의 분리는 주목할 만하다.¹⁵⁾

2. 함축 의미: 개인적 의미부여¹⁶⁾

기호학이 사회생활 속의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이 분리는 기호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미 작용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함축 의미의 경우는 의미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랑그 차원의 기의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보다 의미의 다양한 양태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음 김정용이 제시한 함축 의미의 개념¹⁷⁾을 보자.

기호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의미, 이런 의미는 사람의 문화적 경험에 따라 생산되는 것으로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은

13) F. de Saussure, *op.cit.*, 1916, p.159.

14) *Ibid.*, p.101.

15) 바르트는 언어적 차원에서 기표(표현 단계)와 기의(내용 단계)가 결합하는 체계를 외시(dénotation)라고 규정하였고, 이 차원이 두 번째 차원의 표현 단계가 되고 여기에 다시 다른 차원의 내용 단계가 결합하는 것을 함축 의미(connotation)이라고 명명했다. R. Barthes, *L'aventure sémiologique*,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p.77.

16) 여기서 ‘의미 부여’는 프랑스어 *signification*을 저자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 용어의 해석으로 ‘의미 작용’이 보편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동열의 경우 이 의미 부여를 ‘encoding’을 번역하는 데 사용한다.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77.)여기서는 바르트의 이론에서 해석할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와 자신의 생활 세계가 가지는 맥락 안에서의 해석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7) 김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327쪽.

사람이 집에서 경험하는 것에 따라 다른 함축 의미를 갖는다. 가령 가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사람에겐 집이 <낙원>이지만, 가정이 복잡하고 불화가 많은 사람에겐 집은 <지옥>이라는 함축 의미를 띤다.

위 정의에서 함축 의미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어떤 기호에 대해 개인이 수행하는 의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함축 의미를 통해 만들어지는 신화¹⁸⁾는 바르트가 단정하듯이 파롤이다. 파롤은 랑그의 개인적 사용 측면을 말한다. 따라서 함축 의미는 기호에 대한 개인적 의미 부여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는 의사소통에서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의 차원은 서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떠한 담화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상 대화, 문학의 담화 등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말들 보다 함축 의미가 개입할 확률이 크다. 함축 의미가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신화는 함축 의미의 연쇄 고리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반화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의는 랑그의 차원을 넘어서면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기의의 변형은 기호의 변형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함축 의미와 신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함축 의미가 어떤 텍스트의 유형학에 속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론가들에게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¹⁹⁾고 평가한다. 문헌학자들은 “모든 텍스트는 유일한 의미, 규범적인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적이고, 부차적인 의미들을 비평의 헛된 노력으로 여긴다”. 다른 한편으로 기호학자들은 “외시의 단계le dénoté와 함축 의미의 단계le connoté의 계층적 구분을 부인”²⁰⁾한다. 우

18) 김정용은 “함축 의미가 하나의 연쇄 고리를 만듦으로 하나의 신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책 168쪽.

19) R. Barthes, *S/Z*,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p.124.

20) R. Barthes, *OC III*, p124.

선 문헌학자들의 언급은 텍스트를 다양한 의미 산출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지금의 경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호학자들이 외시와 함축 의미의 두 단계를 부인하는 이유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외시를 진실성·객관성·법칙으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 행위를 문장과 문장의 어휘적·통사론적 구성요소들로 축소시킨 언어학의 권위에 아직도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²¹⁾

이에 대해 바르트는 외시의 체계, 즉 랑그 차원에서 결합된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특권적 지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시의 의미를 중심으로 모든 텍스트의 의미들이 배치되는 것이 서양의 과학적 비평 혹은 철학 담론의 폐쇄성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²²⁾ 바르트의 이러한 생각을 종합하면, 함축 의미와 외시는 선·후 혹은 상·하, 중심·주변의 범주로 계층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작용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외시와 함축 의미는 이항대립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우리는 함축 의미가 개인적 차원, 주관성을 가진 의미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외시는 규약적 차원, 즉 객관성을 띤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객관성과 주관성은 물론 텍스트를 장악할 수 있는 힘들이다. 하지만 텍스트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힘들이다. 주관성은 내가 텍스트를 복잡하게 채운다고 사람들이 가정하는 충만한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 충만함은 위조된 것이며, 나를 만드는 코드들의 자취일 뿐이다. 그래서 나의 주관성은 결국 스테레오 타입들의 일반성을 가진다. 객관성도 같은 방식의 채우기이다. 이 상상적 체계는 다른 체계들과 같이, 나에게 유리하게 명명하게 하고, 알게 해

21) R. Barthes, *OC III*, p124.

22) R. Barthes, *OC III*, p124.

주며 나를 망각하게 하는 데 쓰이는 이미지이다. 독서는 (둘 모두 상상계들인) 객관성이나 주관성의 위험을 포함한다. 우리가 텍스트를 진실의 관용적 혹은 금욕적 도덕 하에서 이상화된, 표현이 풍부한 대상(우리 자신의 표현에 제공된 대상)으로 정의한다면 말이다.²³⁾

주관성이 없는 객관성,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외시와 함축 의미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 뒤섞여 있으며, 계층적인 구분을 할 수 없다. 독자로 대변되는 주체들은 텍스트 앞에서 외시와 함축 의미의 사이에서 어떤 쪽에도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외시의 기반이 되는 랑그가 다른 어떤 체계들 중 하나의 체계일 뿐임을 인정하는 일이며, 랑그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권위, 즉 언어행위가 문장과 문장의 어휘적·통사론적 구성요소들로 귀결된다는 지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결국 학습 혹은 습득의 순서와 별개로 외시와 함축 의미의 경계는 없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에서 우리는 바르트의 이미지론을 통해 이를 연구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으로서 사진을 선택한 것은 바르트의 이미지론이 이론적으로 자주 거론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지로서의 사진이 가지는 매우 특수한 성격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진동선의 언급²⁴⁾은 앞으로의 논의에 주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사진이란 찍는 사람, 사진을 보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이용하는 사람의 관성이 제각각 어우러져서 모순을 빚어내는 만남의 자리이자 대결의 장이다. 사진은 이것들 사이에 있고 또 움직인다. 온갖 생각의 기호들이 난무하므로 사진에서 오해와 오독, 모순과 모호성은 필연적이다. 모든 사진은 그 대결장 속에서 처음 당면한 시간의 몸짓이다. 또 처음 겪는 사진의 의미들

23) R. Barthes, *OC III*, p126.

24) 진동선, 『사진기호학』, 서울, 푸른세상, 2015, 25쪽.

이다.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의미, 바라보고는 있지만 감춰진 의미의 다발이다.

한 주체에 의한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하나의 사건이다. 위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진에 대한 오해와 오독, 그리고 사진의 모순과 모호성은 사진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된다. 따라서 사진이 가지는 의미의 객관성과 주관성은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가진다. 이경률의 사진-인텍스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²⁵⁾이다.

사진은 언어학적인 지시소 혹은 발자국, 연기. 먼지, 흙터와 같은 단순한 물리적 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다시 관객의 주체에 따라 활용되는 화용론적 차원(la dimension pragmatique)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 텅 빈 의미의 여백의 이미지는 관객의 주체적인 내용물로 채워지면서 개인적인 기억 연상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때 사진은 관객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수신기호가 된다. 예를 들어 멀리 산 위에 연기가 피어날 때, 이것을 본 사람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따라 그 원인이 달라질 것이다. 군인이 볼 경우 그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농부가 본다면 논두렁에 피운 불로 또한 어떤 이는 동네 아이들의 불장난이나 집이 불타는 상황으로 생각할 것이다 (인텍스).

위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은 관객에게 지표로 무엇인가를 전달하지만, 그 전달의 순간, 사진은 관객의 주관성에 속하고, 사진의 의미 역시 관객이 채우게 된다. 관객은 언어 차원의 의미이든, 자신의 기억 속의 의미이든 선택할 뿐, 자신이 선택할 의미에 순서나 계층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의미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이다. 의미의 객관성은 소통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된다. 이러한 차원을 다시 바르트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자.

25) 이경률, 앞의 글, 2006, 236쪽.

III. 이미지의 의미

의미와 관련한 이미지론은 바르트의 연구에서 비교적 초기에 제시된다. 회화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객관성과 주관성의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²⁶⁾

따라서 언어행위가 갖는 중성적이며 문자 그대로이고 외시된 대로의 상태로 회화가 구성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 더욱이 회화는 더 이상 단순한 신화적 가공작업이나 주관적 투자가 끊임없이 가능한 장소도 아니다. 따라서 회화는 현실적인 대상도 그렇다고 해서 상상적인 대상도 아니다. <재현된> 것의 자기 정체성은 분명 끊임없이 되돌려 보내지고, 시니피에는 항상 이동되며(왜냐하면 그것은 사전에서처럼 명명 행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분석analyse은 끝이 없다.

여기서 ‘분석은 끝이 없다’는 말에 주목해보자. 여기에서의 분석은 일종의 글쓰기écriture로 규정된다. 분석은 확정적인 결론이나 ‘결과’를 전하지 않는다. “분석은 끝없이 언어 행위acte de langage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르트는 “(그림을 정의하는) 읽기lecture 작업은 극단적으로 글쓰기의 작업과 동일하다”고 단언한다. 회화라는 기표에 의미는 계속해서 부여된다. 의미는 매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평가도, 회화에 대해 말해는 작가도 더 이상 없다. 다만, 회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²⁷⁾ 만이 존재할 뿐이다. 다시 말해 어떤 회화나 대상에 대한 의

26) R. Barthes, *OC III*, p.97.

27) “오늘날 지식인의 글쓰기들이 지닌 이와 같은 이중성은 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완전히 청산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부각된다. 그래서 문학은 끊임없이 권위를 드러내는 언어적 지평을 형성하고 있다. 아직 지식인은 제대로 변모되지 않은 작가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스로 침몰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투사가 영원히 되지 않는 이상(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며, 당연히 망각되었다), 그는 문학으로부터 온전한 구식의 도구처럼 전수되는 이전의 글쓰기들이 주는 매혹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R. Barthes,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Paris, Editions du Seuil, 1953, p.29.

미부여에 있어서 권위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²⁸⁾ 이러한 바르트의 견해는 회화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텍스트’로 일반화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독자의 글쓰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어 행위’로서 끊임없는 매번의 분석은 각각이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김성도는 이런 차원에서 사진 이미지가 “그 매체의 유추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강력한 힘 때문에, 순수한 외시라는 인상을 심어주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사진 이미지는 공시적인 수사적 힘을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지의 의미작용에 대해 주목해 볼만한 바르트의 글은 바로 「이미지의 수사학」*Rhétorique de l'image*이다. 바르트는 여기서 언어적 메시지message linguistique, 코드화 된 도상적 메시지message iconique codé, 코드화 되지 않은 도상적 메시지message iconique non codé를 구분한다. 본고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 설명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바르트가 언어적 메시지와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미지와 의미의 문제에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음 바르트의 언급을 보자.

텍스트는 이미지의 시니피에들 사이에서 독자를 **지도**하며, 독자에게 어떤 것들은 피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수용하도록 해준다. 흔히 섬세한 배치 dispatching를 통해서, 텍스트는 독자를 미리 선택된 의미로 원격으로 안내한다. 이 모든 고정 작용ancrage 속에서, 언어행위는 분명히 설명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설명은 선별적인 것이다. 도상적 메시지 전체가 아니라, 오직 그 메시지의 몇몇 기호들에 적용된 메타-언어행위에 관계된 것이다. 텍스트는 확실히 이미지를 향해 창조자(따라서 사회의)가 보내는 시선의 권리이다.

28) *Ibid.*, pp.98-99.

29) 김성도, 앞의 글, 2016, p.246.

고정 작용은 제어이다. 고정 작용은 그림들의 투사적 힘에 대한 메시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미지들이 갖는 시니피에들의 자유로움에 비해, 텍스트는 **억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한 사회의 정신과 이데올로기가 무엇보다도 집중되는 것은 바로 이 층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³⁰⁾

위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언어적 메시지는 고정 작용을 하며, 이 작용에 의해 도상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³¹⁾을 한다. 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도상적 메시지의 독자들은 자신의 해석의 자유를 일부분 제한 받는다. 이것은 언어가 가지는 규약성 즉 사회성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적 메시지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 틀과 같다.³²⁾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바르트는 언어적 메시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르트는 여기서 함축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바르트는 이를 함축 의미소connotateurs라고 명명하고, 이 함축 의미소의 전체를 수사학rhétorique이라고 칭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적어도 지금으로서는-함축 의미소들connotateurs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총체적 이미지 속에서 불연속적

30) R. Barthes, “Rhétorique de l’image”,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 Paris, Editions du Seuil, pp.579-580.

31) 바르트는 언어적 메시지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고정 작용ancrage’과 ‘중계 relais’(Ibid., p.578.)라고 언급한다. 특히 고정 작용 대화자와 대화상대자가 정확한 시공간 및 대화 상황의 서로 일깨워주는, 언어행위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이다. 특히 바르트가 다루고 있는 광고에서, 언어 메시지는 그림이나 사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억제하고, 광고 제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32) 이와 관련하여 바르트는 『S/Z』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적 코드가 예측되어 있는 질서의 규칙이(푸생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조망**에 불과하다면 이 코드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한 시대 코드들의 공간은 언젠가 묘사할 필요가 있게 되는 일종의 과학적 통설을 형성한다.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하나의 ‘구속’이다.” R. Barthes, *OC III*, p199.

자질들을, 나아가 비고정적인 자질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함축 의미소들은 어휘 전체를 채우지 않으며, 그 함축 의미소들을 읽는 일이 그 어휘를 철저히 고찰하는 일이 아니다. 달리 말해서(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기호학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제안일 수 있다), 어휘의 모든 요소들은 함축 의미소들로 변형되지 않으며, 담론 속에는 항상 어떤 외시가 남게 되는데, 그 외시가 없이는 바로 담론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차적 메시지로, 혹은 외시된 이미지로 돌아오게 해준다.³³⁾

맥락 없이 주어진 이미지는 언어적 메시지와는 달리 즉 코드화 되지 않은 상태로는 주체들의 의미 부여를 제어할 수 없다. 코드화 된 도상적 이미지는 계열 관계, 통합 관계를 통해 의미 작용의 틀이 만들어진다. 함축 의미소들은 일종의 ‘환유법métonymie’³⁴⁾을 통해 계열 관계rapport paradigmatique를 형성한다. 마치 토마토를 보면서 이탈리아 풍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탈리아 풍’이라는 축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실체들을 포괄한다. 계열체는 연상 관계rapport associatif와 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연상 작용은 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중 하나와 관련된다. 여기서 ‘이탈리아 풍’을 일깨우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언어적 메시지이거나 혹은 광고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의 외시적 의미들의 통합체³⁵⁾에 의해서이다. 결국 개별적 이미지들은 계열 관계와 통합

33) R. Barthes, *OC II*, p.587.

34) R. Barthes, *OC II*, p.587

35) 다음 바르트의 언급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판자니 광고 속에서, 지중해산 채소들, 색채, 구성, 그리고 심지어는 풍부함까지도 비고정적인 덩어리들로 볼썽 나타나는데, 그 덩어리들은 자신의 고유한 공간과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자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장면 속에 고립되어 있고 동시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덩어리들은 그 덩어리들의 통합체가 아니라 외시의 통합체 속에 <사로잡혀> 있다. [...] 그리하여 우리는 함축 의미를 부여받은 메시지의 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매우 정확하게 외시된 메시지의 통합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함축 의미는 단지 체계일 뿐이며, 계열체paradigme라는 용어만으로 정의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도상적 외시는 통합체syntagme일 뿐이며 체계 없는 요소들에 결합하며, 불연속적 함축 의미소는 외시의 통합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현실화 되고 <말해지는> 것이다.”(R. Barthes, *OC II*, p.588)

관계에 의해서 광고의 메시지의 전달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이미지는 그것이 가진 외시 의미 이외에도 함축 의미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바르트가 함축 의미소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함축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목록화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 목록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함축 의미란 개인적 경험에 의해 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개인적 의미의 차원을 바르트가 어떻게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V. 푼크툼punctum, 스튜디오studium, 의미부여

1. 스튜디오와 신화, 객관성

우리의 입장에서 바르트의 사진 이론은 의미의 규약적 성격을 언어행위로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의미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구분되지만 혼재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바르트의 푼크툼과 스튜디오는 의미 작용의 측면에서 이러한 의미의 성격 등을 반영하는 용어의 짝이다. 규약적·객관적 성격을 갖는 것은 스튜디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스튜디오에 대한 언급³⁶⁾을 살펴보자.

물론 나는 이 사진들에 대해 일종의 일반적이고 때로는 감동된 관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감동은 도덕적·정치적 교양의 합리적인 중계를 거쳐 간다. 내가 이 사진들에 대해 느끼는 것은 **평균적인** 정서, 즉 거의 길들이기에 속한다.

따라서 스튜디오는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스튜디오으로 대변되는 사진에 대한 감정은 ‘도덕적·정치적

36) R. Barthes, *La chambre claire*, in *Oeuvres complètes*, Tome V,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p.809.

교양’을 통한 것이고, ‘평균적moyen’인 것이다. 그 의미 작용에 개인적인 함축 의미가 있дах지라도 그것은 소통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것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그는 “‘스투디움을 거쳐par le studium’, 많은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다”.³⁷⁾ 여기서 스투디움이라는 것은 언어와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는 온전한 나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이 이미 권위나 상식,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해 놓은 의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음 진중권의 스투디움에 대한 정의³⁸⁾를 보자.

사진은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흑인 장교가 프랑스 삼색기에 경례를 하는 사진에선 이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조국 프랑스는 피부색에 관계 없이 누구나 프랑스군의 장교로 받아들인다. 삼색기 아래서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하나의 국민이다.’ 이때 그 사진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시각적 표현이 된다. 이처럼 사진을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관습적 코드를 ‘스투디움’이라 부른다.

진중권이 든 위 예는 바르트의 신화론에 등장한다. 바르트에게서의 신화mythe란 어떤 것이었는가?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신화의 성격을 이야기 한다.

신화는 강제적이고 체포된 느낌을 받게 한다. 이 성격은 역사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며, 우연한 상황(라틴어 수업, 위협받고 있는 제국)에 직접 불쑥 다가온다. 신화는 바로 나를 찾으러 온다. 다시 말해, 신화가 나에게로 향한다. 나는 신화의 의도적인 힘을 경험한다. 신화는 나에게 그것이 가진 커져가는 모호함을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37) R. Barthes, *OC V*, p.809.

38)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서울, 천년의 상상, 2012, 189쪽.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르트는 신화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화란 강제적인 것이며, 역사에서 온 것이고, 신화가 가지는 모호함이 점점 커져도 이미 용인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 신화를 진중권의 언급과 같이 스튜디오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스튜디오의 성격 역시 강제적이고 용인되며, 개인이 따라야 하는, 그리고 사회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형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르트는 이 스튜디오의 원래의 뜻에서도 이러한 성격을 찾는다. 바르트는 스튜디오가 “‘학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물에 대한 주의 집중, 누군가에 대한 취향, 친절하지만 특별히 격렬할 것 없는 보통의 관심 두기(*investissement*)”³⁹⁾를 뜻한다고 언급한다. 스튜디오가 가지는 이런 의미는 바르트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미 강제된 성격의 의미가 존재한다면, 바르트가 대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지는 의미 부여는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일일 뿐이다. 바르트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진이 내 눈에는 생기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어떤 존재감을 보이는 것들에서 조차, 그 대부분이 내 안에서 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말하자면 예의상의 관심 뿐”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를 일종의 ‘계약(*contrat*)’이라고 지적한다.

스튜디오를 인정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의도를 숙명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며, 그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속하는) 교양/문화는 창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스튜디오는 일종의 교육(지식과 예절)이다.⁴⁰⁾

우리는 앞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을 살펴본 바 있다. 스튜디오를

39) R. Barthes, *OC V*, p.809.

40) R. Barthes, *OC V*, p.809.

일별하면, 이 용어의 성격을 규정하는 어휘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스튜디오는 평균, 관습, 계약, 지식, 예절 등과 관련된다. 이 어휘들을 종합하면, 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고정관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튜디오는 본고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대상의 객관적 의미이다. 바르트는 이런 고정관념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제기한다. 이 범주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2. 폰크툼과 개인적 의미부여

바르트는 스튜디오와 함께 폰크툼을 제시한다. 폰크툼은 스튜디오와 짝으로 제시된다. 폰크툼은 스튜디오와의 대립 개념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계열체로서 다가오는 의미를 말한다. 사진이 보여주는 지배적인 맥락이 아니라, 개인만의 특유한 맥락으로 사진의 어떤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바르트의 정의를 보자.⁴¹⁾

두 번째 요소는 스튜디오를 깨트리러(혹은 그것을 또박 또박 끊어보기 위해)온다. 이번에 (나는 내 최종적인 의식을 스튜디오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것이 장면으로부터 화살처럼 와서 나를 관통한다. 뾰족한 도구에 의한 이러한 상처, 찢린 자국, 흔적을 지칭하는 낱말이 라틴어에 존재한다. [...] 이 두 번째 요소를 나는 폰크툼(*punctum*)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폰크툼은 또한 찢린 자국이고, 작은 구멍이며, 조그만 얼룩이고, 작게 베인 상처이며 또 주사위 던지기이기 때문이다. 한 사진의 폰크툼은 사진 안에서 나를 찌르는(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완력을 쓰는) 그 우연*ce hasard*이다.

위에서 ‘우연’이라는 말에 주목해보자. 위 인용문을 자신의 저서에서 같이 인용한 진중권은 폰크툼이 ‘일종의 사건처럼 우리를 엄습한다’⁴²⁾고

41) R. Barthes, *OC V*, p.809.

언급한다. 폰크툼을 의미적으로 언급하자면, 사진에 대한 개인적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폰크툼이 “어떤 디테일, 즉 부분적인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폰크툼의 예들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토로하는 것**”⁴³⁾이라고 주장한다. 바르트의 이 언급에서 ‘나를 토로하는 것’은 주체의 대상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⁴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르트의 위와 같은 폰크툼에 대한 규정은 자칫 읽는 이에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는 많은 예를 들고 있지만, 그 예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폰크툼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적 의미부여의 기제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앞서 바르트의 광고 속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 기여하는지 보았다. 주목할 것은 광고 속의 이미지가 환유법을 통해 계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계열 관계는 일종의 연상 작용이다. 폰크툼의 순간에는 이 연상 작용이 광고와 달리 광고안의 다른 요소들이 가지는 맥락, 즉 그 요소들의 통합 관계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 바르트의 다음 언급을 보자.

폰크툼이 아무리 전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소간 잠재적으로 어떤 확장expansion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흔히 환유적métonymique이다. 한 소년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눈 먼 집시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를 찍은 케르테스의 사진이 있다(1921). 그런데 나로 하여금 사진에 무언가를 덧붙이게 하는 ‘그 생각하는 눈’을 통해 내가 보는 것은 다져진 비포장도로이다. 흙으로 된 이 도로의 결을 보면 내가 중부 유럽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⁴⁵⁾

42) 진중권, 앞의 책, 2012, 189쪽.

43) R. Barthes, *OC V*, p.822.

44) 진중권은 바르트가 제시한 폰크툼의 극단적인 개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학적 난점을 “근본적 위험”이라고 명명한다. 이 ‘위험’은 폰크툼이라는 개념에서 제시되는 개인적 의미 부여의 극단성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성격으로 추상화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바르트의 『밝은 방』이라는 저서는 폰크툼으로 인해, ‘수용자 미학’이 될 수 없고, ‘예술가 미학’이 되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 (진중권, 앞의 책, 2012, 200쪽)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은 개인적 의미 부여의 기제이다.

바르트는 케르테스의 사진에서, 다져진 비포장도로의 결을 보고, 그것에서 ‘중부 유럽’을 연상한다. 이 연상은 함축 의미, 즉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앞서 다루었던 「이미지의 수사학」으로 돌아가 보자.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함축 의미는 단지 체계일 뿐이며, 계열체paradigme라는 용어만으로 정의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도상적 외시는 통합체syntagme일 뿐이며 체계 없는 요소들에 결합하며, 불연속적 함축 의미소 외시의 통합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현실화되고 <말해 지는> 것이다”. 불연속적인 함축 의미는 그 목록을 만들 수도 없으며, 일종의 규약의 결과인 외시의 제한을 통해서만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의미에 기여할 수 있다. 바르트가 “그리하여 상징들의 불연속적인 세계는 순수하게 정화된 액체와 같은, 외시된 장면의 이야기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⁴⁵⁾고 한 말은 정확히 계열체인 함축 의미가 통합체인 외시의 제한을 받아 메시지로 나타나지만, 함축 의미의 불안정함, 다양성, 순간성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위 인용문의 ‘환유적 힘’은 외시의 통합 관계가 없는 순수하고 순간적인 함축 의미, 폰크툼의 발생 기제를 나타낸 것이다.

언어와 같이 강제되지 않는 이미지라는 대상에서, 개인의 의미 부여는 주체가 가진 모든 경험의 투영이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이지 않고, 그 대상이 주체에게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건이다. 이때 주체는 외시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부여 사이의 순서를 두지 않는다. 외시와 함축 의미는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미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의 잠재성과 관련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

45) R. Barthes, *OC V*, p.822.

46) R. Barthes, *OC II*, p.558

V. 의미의 새로운 배열

앞서 우리는 인용문(각주 30)에서 “이미지들이 갖는 시니피에들의 자유로움에 비해, 텍스트는 **억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한 사회의 정신과 이데올로기가 무엇보다도 집중되는 것은 바로 이 층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을 보았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언어나 언어행위의 규약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수많은 언어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여 만들어진 문화적 코드들을 통해, 이 이데올로기는 ‘억압적 가치’로 자리 잡는다. 이때, 글 읽기는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텍스트의 수용자는 텍스트로 통칭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운 개인적 의미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이미지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을 보았다.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의미는 바로 함축 의미이다. 하지만 이 함축 의미는 환유에 의한 계열체에만 속하는 의미는 아니다. 벌써 사회·문화적 맥락, 즉 외시 통합체적 질서에 제한을 받는 의미이다. 이미지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은 이러한 함축 의미와 외시가 가지는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퐁크툼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외시의 질서는 그렇게 주체의 의미부여 중 하나의 경우의 수일 뿐이다. 다음 김인식의 지적⁴⁷⁾은 다른 의미에서 본고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코노테이션’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때 ‘신화학자가 아닌 새로운 ‘신화 독자로서의 바르트의 생각에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SZ』에서는 ‘코노테이션’의 개념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의 작업이 행해진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노테이션dénotation’과 ‘코노테이션’의 이항 대립적 성격을 파기해버린다. ‘디노테이션’은 『신화학』에서의 이해처럼 실제로 의미의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그런 척 가장하고 있다는 수정된 주

47) 김인식, 「바르트기호학의 해체-물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험2」, 『기호학연구』 2권, 1996, 137-138쪽, 121-143쪽.

장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디노테이션’은 오히려 ‘코노테이션’의 마지막인 것이다(S/Z, 16).

바르트를 인용한 김인식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미 부여의 방식이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외시이건 함축 의미이건 결국 주체의 상황에 따른 수용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폰크툼과 같이 철저히 개인적 의미 부여와 관련된 개념은 무한한 의미의 생산을 상정해 볼 수 있게 한다. 무한 의미 생산의 기제를 인정한다면, 결국 논의는 다시 바르트의 이와 관련된 논의로 다시 눈을 돌리게 한다.

바르트는 「제3의 의미」le troisième sens에서 에이젠슈타인Sergei Mikhailovich Eisenstein의 영화 <폭군 이반>Ivan le Terrible의 한 스틸 사진을 통해 세 가지 의미 작용 층위를 제시한다. 이 장면은 이반에게 두 신화가 금화를 뿜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가지 의미 중에서 제 3의 의미를 주목한다. 바르트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나는 분명하고, 고정되지 않은, 완고한 제3의 의미를 (아마도 처음으로) 읽고,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의 기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적어도 그것을 명명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형태일 때부터 그 기의의 특징과 의미 발현해 왔던 역정들을 알고 있다.⁴⁸⁾

바르트는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아는 그런 기의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의사소통을 위한 외시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제1의 의미와 상징적 차원, 즉 함축 의미가 개입하는 제2의 의미와는 달리, 포착할 수 없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 부여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바르트는 어떤 이미지가 보여주는

48) R.Barthes, “Le troisième sens”,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p.487.

것과 그 이미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난 주체의 개인적 차원의 의미부여를 개념화 하고 있다. 그가 이 글에서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의미생성signifiante’⁴⁹⁾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다. 그런 점에서 박주원은 크리스테바의 의미생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내진 것, 재현된 것, 구성된 것일 뿐 결코 실재의 대상에, 그리하여 투명한 현실에 다가갈 수는 없다는 근본적 회의주의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재라고 믿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만들어진 허구라는 것, 그리하여 상징일 뿐이라는 비판의 메시지인가?⁵⁰⁾

이 질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르트의 제3의 의미는 ‘투명한 현실’에 부여되는 의미, 가공되지 않는 날 것으로의 ‘실재’에 부여된 의미를 규정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소통, 상징과 관련된 의미작용과 개인적 의미작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자연스러운 의미le sens obvie와 무딘 의미le sens obtus라고 정의한다. 자연스러운 의미는 바르트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명백함”을 가지고 나를 “맞이하러 오는qui vient au-devant” 의미이다. 이 의미는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에 떠오르는 qui se présente tout naturellement à l’esprit” 의미이다. 이 의미는 저

49) 이에 대한 박주원의 크리스테바 인용은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텍스트는 정치혁명의 실천에 비할 수 있을 하나의 실천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실천은 정치혁명의 실천이 사회 내에 도입하는 것을 주체 내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역사와 정치경험이 주체의 변화에는 사회가, 사회의 변화에는 주체가 결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의 전복 이래로, 그리고 더욱 프로이트의 혁명 이래로 거기에 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었는가? -, 우리가 문학 실천에 대해 제기할 질문들은 문학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평을 겨냥하게 할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이질적인 과정을 의미생성signifiante이라고 부를 것이다.(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p. 16)” 박주원, 「언어와 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33쪽. (29-48쪽)

50) 같은 글, 33쪽.

자의 전략을 가득 담고 독자에게 다가온다. 독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 해석의 여지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그 사용 용도가 정해진 완전한 체계, 즉 움직일 수 없는 통합 관계 하에서 폐쇄된 명백함을 전달한다.⁵¹⁾ 위에서 들었던 판자나 광고에서 전달하려 한 ‘이탈리아풍 *italianité*’ 역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통합 관계는 문화, 관습, 규약과 같은 용어들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바르트는 무딘 의미를 “문화, 지식, 정보의 바깥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⁵²⁾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통합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미 작용이다. 자유로운 연상만 가능하다면, 그 기표는 결국 기의를 가지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바르트의 언급을 보자.

무딘 의미는 기의 없는 기표이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것을 명명하기 어렵다. 내 독해는 이미지와 그것의 묘사, 그리고 정의와 근사치 사이에 일시 정지된 채 남아 있다. 만일 우리가 무딘 의미를 묘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의미와는 반대로, 아무 것도 복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묘사한다는 말인가?⁵³⁾

바르트는 무딘 의미가 “(분절된) 언어체의 바깥에 있으나, 대화의 내부에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대화 상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의도 안에는 없지만, 대화의 장 안에는 존재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것, 인상, 이미지가 무딘 의미를 발생시킨다. 어떤 이미지는 수많은 기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미지가 제공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아무 것도 재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무엇도 재현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다만, 그것이 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뿐이다. 알 수도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용

51) R. Barthes, *OC III*, p.488.

52) R. Barthes, *OC III*, p.488.

53) R. Barthes, *OC III*, p.500.

주체는 그것을 궁금해 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는 그렇게 또 나뉜다.⁵⁴⁾

결국, 우리가 위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위해 만드는 의도된 메시지들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층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용 주체는 주된 의미에 대해 해석의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다. 대상에서 포착해낸 자신만의 기표에 기의를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함축 의미의 극단, 즉 주관성의 극단이다. 그 극단은 어떤 전문적인 시선에 의해 도달되는 것도, 극도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매번 미끄러지며, 일시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는 무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 것과 같다. 분석 차원에서 의미는 언어적 차원, 상징적 차원, 의미 생성의 차원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제에서는 의미 생성의 차원으로 모두 환원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소통의 부족과 소통에의 갈망은 그 양적 규모 때문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무한한 무딘 의미를 발견할 자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54) 다음 김성호의 평가는 주관적 의미부여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무딘 의미’는 비구조적이고 비언어적인 의미를 지향한다. 기호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이 의미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감각과 관계한다. 바르트에게 있어 이미지의 해석이란 결국 시니피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수용자 혹은 해석자가 자신의 감각을 이미지에 투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수용자의 해석은 순수하게 주관적이다. 만약 이미지에 대한 해석의 경험이 순전히 지향성과만 관계한다면, 다시 말해 작가의 의도를 언어적으로 읽어내는 데만 있다면, 그것은 기호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무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달리 수용자의 감각에 작동하는 주관적 인 해석에 문을 열어둔다.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은 비언어적이면서도 모든 수용자 각자에게 열린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김성호, 「미디어아트 이미지의 해석-바르트의 제3의 의미로부터」,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제11권 No.2, 2013, 72쪽.

VI. 결론

마르틴 졸리Martine Joly는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의 저서와 비교하면서 바르트가 이미지 연구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가 언어만의 영역을 폭넓게 넘어서고 있고, 비언어적인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영역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⁵⁵⁾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은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이 언어학적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것과 관계가 깊다. 바르트의 후기 이론들이 과감하다고 평가 받는 것은 언어적 차원의 의미 부여와 그 질서를 전면적으로 전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미지와 의미부여와 관련된 논의들을 바르트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언어적 차원에서 외시와 함축의미가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언어학과 에노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바르트의 광고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통합 관계가 이미지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합 관계에서 벗어난 이미지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바르트의 사진론을 일별하면서, 바르트가 제시한 스튜디오와 폰크툼의 개념을 일별하고, 대상에 개인적인 의미 부여가 이론적으로도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 3의 의미를 통해 무딘 의미의 개념을 파악했다. 이 무딘 의미의 개념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상의 의미가 주체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다. 주체는 이미지와 같은 대상을 접하면서, 의미를 강요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사실은 기호학 이론들에서 제공하는 의미의 층위들이 분석 차원에 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앞서 박주원이 크리스테바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한 ‘실재’와 ‘대상’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박주원의 언

55) 마르틴 졸리, 『이미지와 해석』, 김웅권 역, 동문선, 2009, 335쪽.

급은 결국 바르트가 언급한 ‘무의미insignificance’를 떠오르게 한다. 결국 무한한 의미부여의 가능성은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의문 말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실재와 대상 간의 재현의 관계는 언어에 의한, 사회적 강요에 의한 허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의미, 혹은 무의미와 의미의 대립과 연속성에 대한 고찰은 또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 김성도, 「바르트와 이미지: 시각 기호학을 넘어」, 『불어불문학연구』 105집, 2016, 227-259쪽.
- 김성호, 「미디어아트 이미지의 해석-바르트의 제3의 의미로부터」,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제11권 No.2, 2013, 59-80쪽.
- 김인식, 「바르트기호학의 해체-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형」, 『기호학연구』 2권, 1996, 121-143쪽.
- 마르틴 줄리, 『이미지와 해석』, 김웅권 역, 동문선, 2009.
- 박인철, 『파리학과 기호학』, 서울, 민음사, 2003.
- 박주원, 「언어와 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009, 29-48쪽.
- 박평중,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에 나타난 지향성의 문제」, 『프랑스학연구』 56집, 2011, 155-175쪽.
- 이경률, 「사진 영상의 상상적 의식작용과 자극-신호」, 『기호학연구』 20집, 2006, 231-254쪽.
-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진동선, 『사진기호학』, 서울, 푸른세상, 2015.
-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서울, 천년의 상상, 2012.
-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Barthes, R., “La peinture est-elle un langage?”,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 _____, “Rhétorique de l’image”,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 _____, *La chambre claire*, in *Oeuvres complètes*, Tome V,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 _____, *L’aventure sémiologique*,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 _____,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Paris, Editions du Seuil, 1953.
- _____, *S/Z*, in *Oeuvres complètes*,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6.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PUF,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signification:

Through the theory of Roland Barthes

Kim, Huiteak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s related to image and signification through the theories of Roland Barthes. We have already been able to see through the studies of Semiotics and Anne Hénault that the denota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connotation in the linguistic dimens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dvertising image of Barthes, we have seen that the syntagmatic relationship can make the sense of the image objective. From this study, we also emphasized that it is possible to subjectively interpret images that deviate from the syntagmatic relationship.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ncepts of Studium and Punctum by Barthes. With this we have found that the definition of a personal meaning to objects has a theoretically clear position. Finally, we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e sens obtus’ through the article « Le troisième sens ». The notion of ‘sens obtus’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that the objective and clear sense of object is not the one chosen primarily from the subject. By facing an object such as an image to be interpreted, the subject is placed in a situation where he is not compelled to choose a meaning but rather he chooses one of the possible senses. This makes it clear that the semantic levels provided by semiotic theories are limited to the analytic dimension.

Keywords : R. Barthes, Signification, image, studium, punctum, le sens obvie,
le sens obtus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玉局齋 李運永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近代性 樣相*

－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을 중심으로

박수진**

【 차 례 】

- I. 머리말
- II. 18세기 가사문학에서의 근대성 문제
- III.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와 문학적 특성
 - 1.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
 - 2. 〈林川別曲〉의 문학적 특성
- IV. 〈林川別曲〉에서의 근대성 양상
 - 1.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
 - 2. 신분 질서의 해체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세기 가사 작품인 옥국재 이운영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근대성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8세기는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형성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성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상과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고, 봉건사회 붕괴

* 이 논문은 2018년 7월 6일 한국 한양대학교와 중국 남창대학교에서 “18~19세기 동아시아 시가에서 차이의 근대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연구원.

의 가장 큰 요인인 신분체계가 흔들렸다. 이 변화는 새로운 근대의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林川別曲>은 이운영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이는 이운영이 진보적인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양반됨을 욕보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자는 여항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林川別曲>은 애정가사로 알려졌지만, 풍자비판적인 특징이 강하기에 애정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며, 서사적 양상이 대화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질서의 해체’이다.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으로 이 두 가지 양상을 제시하였다. <임천별곡>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신분제도 등의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형태로 이타적인 요소들에 대한 변화하는 근대적 조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논자는 ‘저항’과 ‘해체’라는 말로 대신하였지만, 18세기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부패한 지배층과 착취당하는 서민층의 삶을 높은 생원과 할멈으로 비유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18세기 등장한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비판은 중세와 근대를 구별 짓는 헤게모니의 변화로 드러났고, 이러한 헤게모니의 변화는 18세기 전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세기 가사문학에서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착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임천별곡>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열쇠어 : <임천별곡>, 18세기, 근대성, 신분질서, 욕망, 저항, 해체

I. 머리말

본고는 18세기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玉局齋 李運永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근대성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18세기 이전과 이후 문학에 나타난 차이의 근대성을 찾아볼 것이다.

18세기는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형성한 시기이므로, 근대성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의 다방면에서는 사상, 체제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봉건사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신분체제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새로운 근대의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19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중세 봉건체제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서양과 다른 異種의 근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나타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존재양식이 달라졌으며, 삶의 방식, 의식과 세계관, 표상체계도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상인과 중간층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엘리트들과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문화와 일상을 구성하였다. 상당수 사람들이 봉건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하였으며, 유교 윤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정의 자유를 희구하기 원하였다.¹⁾ 이러한 변화는 문화의 개방과 소통을 통한 정보화, 세계화의 힘이었다²⁾고도 말한다.

18세기 가사작품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다. 18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가사작품들은 대부분이 江湖閑庭을 노래하거나 혹은 儒敎의 倫理와 관련된 敎訓的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부터는 遊覽이나 紀行을 주제로 한 작품, 男女간의 사랑과 이별을 나타낸 작품, 양반사회의 批判과 諷刺를 노래한 작품 등 다양한 소재로 창작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도흠, 「18~19세기 동아시아 시론의 변모 양상과 시조의 실제」,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31쪽.

2) 18세기의 변화는 정보화, 세계화의 힘이었다. 문화의 개방과 소통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방식과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 근거도 바뀌었다. 물질 토대의 변화도 한몫했다. 이에 힘입어 전에 보지 못한 괴상한 지식인들이 출현했다. 국가가 사정의 칼날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으리만치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대단했다. 지식인들이 성현의 말씀이 담긴 사서삼경을 외면하고 패관소설에 몰두하거나, 경박한 소비문화에 길들여져 텃밭한 도리에서 멀어지는 풍조는 조선의 정체성을 일거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국가는 뒤늦게 불운서적 반입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금했다.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 정보에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을 원천적으로 되돌리려 했다.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61~62쪽.

본고에서는 李運永³⁾의 가사작품 중에서 ‘차이의 근대성’을 논하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을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운영의 가사작품 6편- <착정가>, <수로조천행선곡>, <초혼가>, <순창가>, <세장가>-은 근대성을 논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대적 양상이 비교적 잘 드러난 <임천별곡>을 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근대성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성 양상을 논하고자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작품을 구조화시켜 언급한 논의들을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논자는 구조화 하는 방법에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⁴⁾을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은 작품을 구조화시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의미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18세기에 나온 근대성을 엿볼 수 있는 가사 작품으로 <임천별곡>을 선정하였고, 이 작품에서 18세기에 등장할 수 있는 근대성 문제에 대해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작품의 의미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諺詞》 연구에서 소재영 교수는 각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해 평가하였다. 李運永은 麗末 三隱의 한 사람인 收隱 李穡(1328~1396)의 14대손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후대에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운영은 18세기의 인물로 英祖(1725~1776재위) 및 正祖(1777~1800)의 치세기에 외직과 내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대부였다. 이운영은 당시 권력의 핵심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근거리에 있던 인물이다. 李運永은 천 여수에 이르는 한시를 남겼고, 그 한시를 통해서도 그 고유의 틀로 인해 전형적인 사대부의 보편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지금 《玉局齋遺稿》라는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사에 나와 있는 국문가사를 통해 성격이 다른 서민의 애환과 사회를 비판하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그레마스는 행위소 모형을 의미 작용의 기본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모사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으로 표상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성도는 한국 민담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즉, <춘향전>, <콩쥐팍쥐>, <별주부전>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사구조에 사용되는 그레마스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은 탐색 모티프가 있는 영웅서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도, 『구조와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42~267면.

II. 18세기 가사문학에서의 근대성 문제

근대의 출발은 18세기로 삼는다. 그 근거로는 그 이전까지의 중세시대에 상·하의 수직적 가치와 질서체계를 이루어오던 궁중 문화 및 사대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고급 문화와 민중 문화를 중심으로 한 기층문화의 장벽이 도시와 상업의 발달로 생겨난 시정의 유흥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허물어지고, 이에 따라 수직적 문화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재편되면서 시정의 다중에 의해 새로운 다중 문화가 생겨나 그것을 중심으로 근대적 가치와 이념, 질서가 자리를 잡아 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⁵⁾

‘근대’ 혹은 ‘근대성’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는 자생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두 논의를 비판하는 대안들이 생기면서 대안적 근대화론과 화쟁시학이라는 관점으로 근대화론을 논의하기도 하였다.⁶⁾

역사학계에는 영·정조대를 근대 의식의 맹아기로 보았고, 이는 ‘근대

5) 김학성, 「근대논의 문제와 18세기 우리 시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18쪽.

6) 우리는 서구적 근대 모델에 기대어 우리의 근대화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잘 알려진 대로 우리의 근대화가 18~19세기에 외세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발전되어 갔다고 보는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생적 근대화론이 제기되었고, 우리의 근대화는 곧 서구화로 보고 일본을 통해 간접으로 들어오든 서구에서 직접으로 들어오든 개항 혹은 갑오경장 이후 서구문화와의 교섭을 통해 일제 식민지를 거쳐 오면서 이루어졌다는 타율적 발전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두 가지 근대화론에 대하여 전자는 객관적 지표나 실증적 자료 없이 한 민족의 우월성을 당위적으로 내세운 국수주의적 아집 내지 민족주의적 기획으로 ‘만들어진 근대’라고 비판하고, 후자는 식민사관의 종속 내지 역사의식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성 비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근대적 주체를 배타적으로 자기 중심성만을 내세우지 않는,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면서 인식론적으로 겸손하여 타인과 나란히 병존하는 ‘관계적 주체’, ‘부드러운 주체’라 규정하고 이 같은 주체에서 근대의 동력을 살핀 대안적 근대화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화쟁시학이라는 독특한 관점으로 본 근대화론이 제출됨으로써 우리의 근대화 논의를 반성하면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 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김학성,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12쪽.

= 조선 후기'라고 하여 조선 후기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토지 제도의 개편과 함께 대동법, 균역법 등 조세 제도의 개정으로 경제를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평민들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혼란만 더하게 되었다.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매관, 매직이 판을 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 관리들의 苛斂誅求는 극에 달해 결국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을 낳았다. 사회의 혼란에 평민계층의 의식성장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이 신분제도의 혼란이다. 지금까지의 체제를 유지해온 가장 큰 틀이 엄격한 계급사회로서의 신분질서였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는 신분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창작된 가사작품의 주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효시작품이라 일컫는 나옹화상의 <서왕가>는 불교적 성향을 띄어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작품으로 알려진 반면, 정극인의 <상춘곡>은 작가가 나이가 들어 고향인 泰仁에서 은거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안빈낙도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경향을 살펴볼 때, 초기에 발생한 가사작품들은 이처럼 종교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거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작품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작품들은 계속 발전하여 송순의 <면앙정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거나 풍경을 소개하는 등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 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임금에 비유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인로의 <오륜가>나 허난설헌의 <규원가> 등은 가사문학을 매개체로 남아 유교이념인 五倫을 토대로 하거나 봉건사회의 부녀자들의 怨望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 전기는 봉건사회가 기반이 되었으므로 작품 역시 그 주제가 봉건사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제를 삼아 작품을 창작하게

7) 윤성현, 「후기가사의 정립과 근대의식의 발현」, 『후기가사의 흐름과 근대성』, 보고서, 2007, 16~21쪽.

되었던 것이고, 이후에는 여러 전쟁들이 발생하게 되고 의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니 작품을 창작하는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점차 조선 후기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봉건사회의 붕괴 현상으로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18~19세기는 봉건사회의 과도기로, 봉건사회와 근대사회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19세기는 근대사회의 진화가 시작된 시기이고, 18세기는 봉건사회의 잔재들이 남아 근대 혹은 근대성을 논할 수 있는 완전한 근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이다.⁹⁾ 하지만, 논자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첫 발을 내딛은 18세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19세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II.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와 문학적 특징

18세기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諺詞》¹⁰⁾에 소개된 李運永¹¹⁾의 가사

-
- 8)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의 붕괴 혹은 혼란에 의해 신분제의 동요가 야기되고, 지배 구조의 모순과 폐단이 심각하게 드러나며, 기층 사회에 소속된 하층민의 경제력 및 문화적 감수성의 성장과 함께 현실 비판의 의식이 고조되는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17.18세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일어남에 따라 주자주의의 관념적 경직성은 현실의 질서를 일방적으로 통어할 만한 힘을 점차 상실해 가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19세기로 넘어 오면서 봉건적 이념으로서의 주자주의는 이질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이념의 도전을 받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곧 동학 이념, 천주교 이념, 개화 이념 등인 것이다.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1982, 250쪽.
- 9)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할 때, 19세기는 18세기에 비해 해체기적 위상이 명료하게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바로 근대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방법론적 전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밀고 나아가야 하는 고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88쪽.
- 10) 그의 작품집인 《諺詞》라는 책은 1988년에 발견되었다. 그 때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8세기 작품들과는 다른 경향의 작품들이라 지금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諺詞》는 한산이씨 문중에서 가전되어 내려오던 한글 가사로 작자가 명기되어 있고, 실학시대에 접어들어 실제 서민들의 생활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임을 감안할 때 이 자료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은 모두 6편이다. <착정가>, <수로조천행선곡>, <초혼가>, <순창가>, <세장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임천별곡>의 개별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¹²⁾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적 특성을 드러낸 연구들로, 애정시가의 측면에서의 애정시의 수용 논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들로 작품을 분석하였고, 작품의 창작 배경과 대화를 통한 두 인물의 갈등 전개 과정에서 해학적 측면으로도 분석하였다. 또한,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의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임천별곡>을 토대로 하여 다양하게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본고에서는 근대성 양상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1.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

<林川別曲>의 작가인 李運永(1722~1794)은 字는 健之, 號는 玉局齋이다. 稼亭 李穀의 15대손이고, 牧隱 李穡의 14대손이다. 그는 1755년에 司馬兩試에 뽑히고 1757년 進士가 되었으며, 1760년에 翊衛司洗馬를 제

소재영, 「새 자료 《언사》 연구」, 『조선조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 11) 《諺詞》 연구에서 소재영 교수는 각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해 평가하였다. 李運永은 麗末 三隱의 한 사람인 收隱 李穡(1328~1396)의 14대손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후대에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운영은 18세기의 인물로 英祖(1725~1776재위) 및 正祖(1777~1800)의 치세기에 외직과 내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대부였다. 이운영은 당시 권력의 핵심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근거리에 있던 인물이다. 李運永은 천 여수에 이르는 한시를 남겼고, 그 한시를 통해서 그는 고유의 틀로 인해 전형적인 사대부의 보편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지금 《玉局齋遺稿》라는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언사에 나와 있는 국문가사를 통해 성격이 다른 서민의 애환과 사회를 비판하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2) 박경남, 「18세기 애정시가의 출현과 <임천별곡>」, 『국문학연구』 7호, 국문학회, 2002. 줄고, 『<임천별곡>의 내용과 표현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승복, 「<임천별곡>의 창작배경과 갈등의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강혜정, 「<거사가>와 <임천별곡>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 『한민족어문학』 6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수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다. 1767년에는 漢城府主簿와 刑曹佐郎을 지냈고, 1769년에는 金城縣令, 1771년에는 沔川郡守, 1776년 黃澗縣監, 1785년 錦山郡守를 거쳐 通政大夫敦寧府都正에 오르고 1794년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로 올랐다가 이 해에卒하였다¹³⁾고 전한다. 이운영은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전형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사대부 집안사람이다. 그는 비록 높은 관직을 지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직에 올라 백성을 살피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학적 성향을 볼 때, 가사문학을 창작했다는 점과 가사작품의 소재와 내용, 표현방식이 매우 다양하고도 파격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졌다는 점, 서민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그들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중세적 경향에서 벗어나 근대적 사상으로의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옥국재 가사의 작가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착정가>에서 <임천별곡>까지는 ‘도정공가사’라 하였고, <정주가>는 ‘황주공가사’라고 작가가 밝혀져 있다¹⁴⁾고 전한다. 또한, 고순희는 작품 속의 생원은 작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허구적 인물이거나,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를 한 주변인물일 수 있다¹⁵⁾고 하였다. 박연호는 작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도한 현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항에 떠돌던 이야기를 가사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¹⁶⁾고 하였다. 이승복은 《옥국재유고》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여신만>이라는 한시 작품에 제시된 이여신이라는 인물과 <임천별곡>의 생원 영감의 가문과 행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이여신의 경험적 일화를 바탕으로 하였음¹⁷⁾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

13) 소재영, 위의 책, 아세아문화사, 1997, 390쪽.

14) 소재영, 위의 책, 아세아문화사, 1997, 388쪽.

15) 고순희, 「引喩와 諧謔의 미학- 이운영의 가사 6편」, 『이화어문논집』 5, 이화문학회, 1997, 362~364쪽.

16) 박연호, 「옥국재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307쪽.

대로 한 논자의 견해는 작품의 내용이 다소 파격적이다보니 이운영이 <임천별곡>의 실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 가운데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는 이여신이 <임천별곡>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자 역시 이 견해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여항의 인물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林川別曲〉의 문학적 특징

<임천별곡>은 林川[지금의 부여군 임천면]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지은 작품으로, 작품명에 지명을 따다가 사용하였다. <林川別曲>은 매우 낭만적인 장편 서사가사로 한 늙은 생원과 할멈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하여 대화체로 엮어 나간 노래인데, 단순한 사랑타령이 아니라 두 늙은이의 사랑이 해학적 표현을 통하여 객기어린 삶의 멋스러운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¹⁷⁾고 보았다. 하지만, 논자는 <임천별곡>을 애정가사로 볼 수 있는가가 매우 의심스럽다. 물론 인물들의 사랑과 욕망이 주제이기는 하나, 이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늙은 생원의 풍자와 비판을 더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는 이 작품을 애정가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임천별곡>은 위에서 제시한대로 신분적인 면에서는 평민이 양반을, 젠더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대해 풍자한 작품이다. 즉, 늙은 생원이 할멈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다가 면박을 당하는 과정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렸다고 보았다. 또한, 이 작품은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다. 할멈과 늙은 생원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형식으로 이야기의 서사구조가 진행된다.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이승복, 위의 논문,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8) 한대호, 「이운영의 가사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p3. 에서 재인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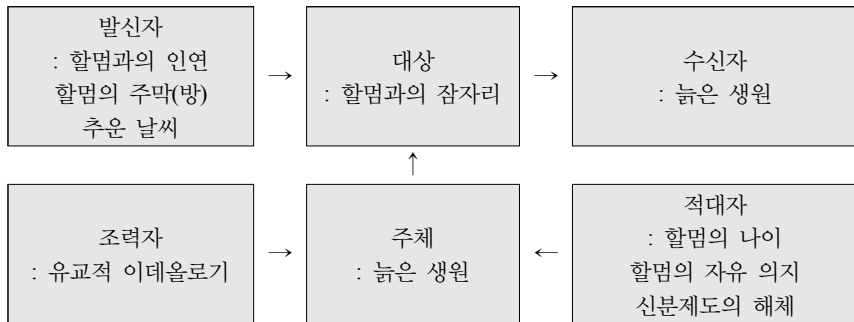
- ① 생원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할멈의 주막으로 찾아옴.
- ② 할멈은 안면이 있는 생원을 누추한 자신의 주막으로 들어오라 함.
- ③ 생원은 편안함을 핑계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할멈과 하룻밤을 보내고자 함.
- ④ 할멈은 흉악하다며 뒤숭숭했던 꿈 이야기와 나이를 빌미삼아 거절함.
- ⑤ 생원은 욕망에 충실하라며 황혼의 기쁜 날을 함께 보내자고 할멈을 설득함.
- ⑥ 할멈은 생원에게 편잔을 주며 양반다운 행동을 요구하고 양반을 무시함.
- ⑦ 생원은 변성했던 가문을 회상하고, 할멈의 죄를 용서하며 부끄러워 돌아가겠다고 함.

<임천별곡>의 내용들이다. <임천별곡>은 대화체 형식의 작품이기 때문에 위의 분류 또한 대화의 주체로 나뉘어 모두 7부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다시 크게 4단계- 도입, 전개, 위기, 결말-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①~②은 이야기의 도입부분으로 생원과 할멈이라는 인물의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생원과 할멈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을 등장시켜 이야기의 실마리를 끌어내고자 한다. 즉, 생원의 경우는 몰락한 양반의 늙은 자손임을, 할멈의 경우는 주막을 하는 늙은 아낙임을 제시하여 그 두 인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③~④는 전개부분으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큰 사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생원의 잠자리 요구(성적 요구)’를 두고, 할멈의 거절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하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 대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 복잡한 진행과정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⑤~⑥은 두 인물의 갈등양상이 잘 드러난다. 생원은 할멈에게 일방적인 욕구 충족을 요구하지만, 이는 생원과 할멈의 갈등만 더 악화된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 점점 더 악화되는 부분으로 갈등의 극대화가 제시된다. ⑦은 작품의 결말부분으로 갈등에 대한 해결이 드러나야 하거늘, 이 부분에서는 생원의 회피와 도피로 이야기가 마

무리 된다. 생원은 죄 없는 할멈에게 죄를 씌우고, 생원은 자신의 넓은 아량으로 할멈의 죄를 용서하며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떠난다.

IV. 〈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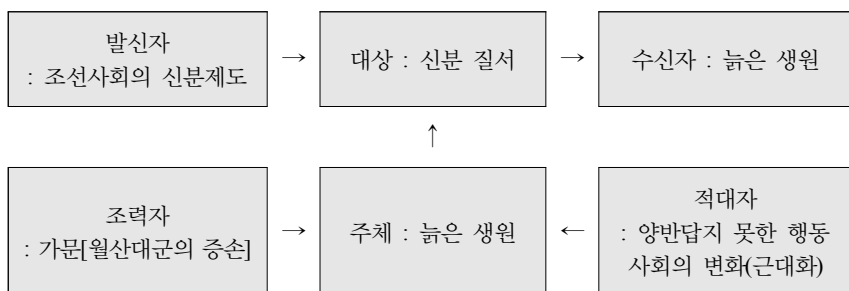
〈林川別曲〉의 문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林川別曲〉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이 주제라기보다는 평민 여성이 양반 남성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는 이 작품을 18세기의 근대적 경향을 논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임천별곡〉에 드러난 이야기 구성에서 늙은 생원이 주체가 되는 ‘사랑과 욕망’과 ‘신분질서’에 대한 행위소 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천별곡〉에서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행위소 모형]

행위의 주체는 욕망을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다. 주체인 늙은 생원은 할멈과의 잠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할멈과의 잠자리이다. 그래야 늙은 생원의 사랑과 욕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욕망을 일으키는 장소나 주체와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늙은 생원에게 할멈과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장소인 할멈의 주막(방)이 되고, 할멈의 주막(방)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할멈과의 인연과 추운 날씨라 할 수 있다. 수신자는 주체가 대상을 구현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혹은 실현된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 된다. 늙은 생원의 욕망 추구를 도와주는 조력자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적대자는 늙은 생원의 대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할멈이 거절의 이유로 드는 나이가 우선적이며, 할멈의 자유 의지와 신분제도의 해체 역시 적대자라 볼 수 있다.



[[임천별곡]에서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행위소 모형]

이 행위 주체는 신분 질서를 실현하는 자이므로 늙은 생원이 된다. 엄격한 유교 윤리의 제도 안의 조선사회에 살고 있는 늙은 생원의 대상은 신분질서이다. 신분질서는 늙은 생원이 할멈과의 고난에서 빠져나갈 때 유감없이 사용하는 최선의 무기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늙은 생원에게 발신자는 조선사회의 신분제도가 된다. 신분제도 안에서의 신분질서는 꼭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신자는 주체가 대상을 구현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 된다. 신분질서 체계를 통해서 할멈에게 과시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늙은 생원의 신분질서를 방해하는 적대자는 양반답지 못한 행동이며, 사회의 변화 즉, 근대화라고 볼 수 있다. 양반답지 못한 행동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지 못한 상황을 드러냈고, 근대화는 봉건사회의 대표적인 체계인 신분질서를 붕괴시켰다. 조력자는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월산대군의 증손이라는 가문이 된다. 월산대군의 증손이라는 가문은 신분질서에서도 가장 우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왕손의 자손이라 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세력을 의미한다.

위의 행위소 모형은 늙은 생원을 주체로 하여 그려진 모형이다. 주체와 대상은 시점에 따라 상황과 사건에 따라, 관계 설정의 방식에 따라 다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¹⁹⁾ 이는 곧 주체의 입장에서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 언급한 방식으로, 주체가 늙은 생원일 경우는 ‘사랑과 욕망’, ‘신분질서’로 나눠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작품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에 대한 논의로써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제도의 해체라 볼 수 있다.²⁰⁾

1.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

18세기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세적인 사랑에 얽매어 있어서 다른 사랑에 대해 꿈꾸지 못했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중세적 사랑에서 벗어나 위해 노력했고, 이는 근대적 사랑으로의 변화에까지 이르기에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세적 사랑은 중세적 윤리관과 당대 현실이 형성한 신분질서와 가부장주의의 권력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근대적 사랑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계급과 권력 관계, 제도를 떠나 양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를 추구하는 것²¹⁾을

19) 김성도, 위의 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44쪽.

20) 조선 후기 작품들 가운데서도 박지원이나 이옥의 다수 작품에서도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과 신분 질서의 해체에 대한 부분들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林川別曲>에서 이러한 근대적 특징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하여 <林川別曲>의 특질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21) 중세적 사랑이란 유교의 도덕관과 정절이데올로기, 신분질서, 가부장주의, 기생제와

의미한다.

본고에서 논자는 <林川別曲>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근대적 사랑을 할
멈의 자유 의지가 담긴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자 한다. <林
川別曲>은 대화체로 이루어진 작품이므로, 작품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도
대화형식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林川別曲>에서
할멈과 늙은 생원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이다.

게 있는가 주인한멈 너말 잠간 드러보소 어제밤 셔리 후의 참도찰스
구돌이야 한멈의 아릿목은 덮고 차기 엇터흔고 진 조반(朝飯) 마른 음식
조석(朝夕)으로 지어느니 늙으니 허물홀가 나 조금 드러가세

작품의 첫 부분으로 늙은 생원의 대화 내용이다. “게 있는가 주인 한
멈”이라는 호칭을 첫 머리에 두는 것은 가사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
법 중 하나다. 아무 의미 없어보이지만,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가기 위
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진짜 할멈에게 인기척을 하
기 위해 양반이 인사하는 방식으로 할멈을 부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할멈의 집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할멈의 주막
(방) 상태에 대해 묻는다. 특히, 아랫목의 상황을 물어 자신이 묵어도 되
는 적당한 방인지를 염탐한다. 단지, 추위를 피해 하룻밤 묵어가려는 것
이 아니라 할멈과 함께 있고 싶은 늙은 생원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늙은 생원은 ‘진 조반 마른 음식’을 만들어 내

축첩제 등 남녀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얽매어 인간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존재의 연속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및 실천
행위다. 근대적 사랑이란 당대의 윤리, 신분질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서로 상대방
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고 애뜻이 그리면서 그를 좋아하고 아끼고 위하며 무엇이든
배풀고 싶어 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좀 더
밀접한 접촉, 나아가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를 통하여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연속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및 상대를 향한 강력한 실천 행위를 의미한다. 이도훈, 위의 논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7~19쪽.

는 할멈을 칭찬하며 할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멈의 아랫목’이다. 늙은 생원의 1차 목표는 할멈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할멈의 아랫목의 덥고 차기를 물어 상황을 듣고자 한다. ‘아랫목’은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불을 때면 가장 먼저 데워지는 부분으로, 웃어른 혹은 귀한 손님에게 내어주는 중요한 곳이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할멈의 성적 의향을 물어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늙은 생원이 할멈의 아랫목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늙은 생원이 할멈에게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은 관심으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할멈의 성적 의향에 대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 거기 누구신가 유성 손님 아니신가? 나그네 추우시니 主人이 無聊
하오 누추함을 허물 말고 이리 들어오소서

어허 무던하다 궁둥이 뜨듯하여 온다. 맹세코 오늘밤은 나가지 못할로
다. 할멈의 옷가슴에 손 조금 넣어보세

아 놀라구나. 흥악하게 바라볼까. 어제 오늘 꿈자리가 수력수력 하더라
니 오늘밤에 꿈을 꾸니 손가락을 던져 뵈데 世上天下 萬古朝鮮 八道에도
奇怪하다 생원님! 손을 꼽아 내 나이를 헤어보오 甲子乙丑 丙寅生에 還甲
進甲 다 지내고 수인의 스물하고 또 한 살 더 먹었네. 이제 무슨 마음 있
어서 서방 품에 자리일까

할멈은 늙은 생원을 ‘유성 손님’이라며 생원의 존재를 제시한다. 이는 늙은 생원과 할멈의 관계를 드러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늙은 생원은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할멈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할멈은 누추한 집이지만 생원을 들어오게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할멈은 “나그네 추우시니 주인이 무료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무료한 것과 추운 것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할멈은 늙은 생원이 춥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무료함으로 혼자 있음을 강조한다.

늙은 생원은 집으로 들어오라는 할멈의 행동에 매우 만족스러워한다. 늙은 생원의 요구에도 생각보다 쉽게 허락한 할멈은 까다롭지 않고 너그러우며 수더분한 행동으로 할멈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다 보니 늙은 생원은 할멈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잠자리를 요구하고, 할멈은 이를 거절하기에 이른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멈의 행동은 양반 남성의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멈의 행동은 큰 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양반 남성에게 대한 당당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유교이데올로기의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놓인 할멈이라면, 늙은 생원과 잠자리를 수락했을 것이다. 물론 할멈과 늙은 생원의 인연이 깊다 할지라도 신분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멈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할멈과 늙은 생원의 입장에서 모두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저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할멈은 고백을 거절하며 ‘만고조선 八道에도 일어날 수 없는 기괴한 일’이라며 현실을 부정한다. 하지만, 할멈의 거절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할멈은 ‘세상 천하 만고조선’에 사는 여인으로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는 기괴한 일이다. 즉, 할멈 역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할멈이 늙은 생원과 잠자리를 거절하는 외면적 이유는 할멈의 나이 때문인 것이다. 할멈은 홀로 늙어가는 외로운 처지여도 서방을 품을 마음이 없다며 할멈의 자유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할멈과 늙은 생원은 서로 동등한 관계,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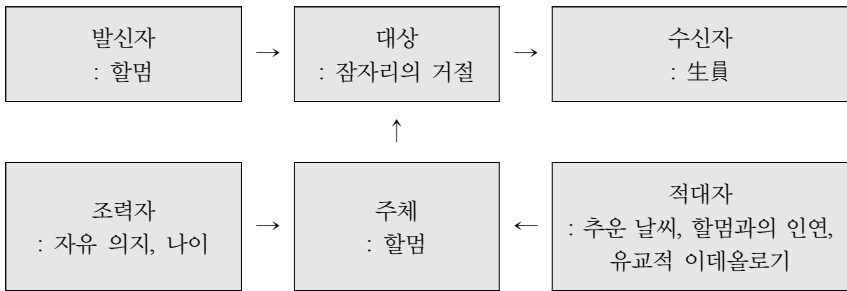
아 그 말 마오 늙은 말이 콩 마달까?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두 늙은이
서로 만나 너만 알고 나만 알고 귀신도 모르리니 인적이 드물고 야심한
黃昏의 오늘이라 范摐의 문자로 急擊勿失하여 얼른 뿌리치면 그 무엇이
관계할까?

늙은 생원은 거절하는 할멈에게 또 다시 잠자리를 요구한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서로 늙은 처지라 아무도 모르게, 인적이 드문 야심한 오늘 밤에 관계를 맺으면 된다고 설득한다. 또한, ‘늙은 말이 콩 마달가’라고 하여 나이가 들면 잠자리를 더 바란다면 거절 이유가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할멈에게 비밀스럽게 황혼의 오늘을 즐기자고 제안한다. 즉, ‘비밀스럽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할멈과 늙은 생원은不正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멈의 정절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이 평민 할멈이 아니라 양반 여성이었다면 정절 이데올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 나이, 신분은 정절 이데올로기를 이루는 요건이 되어버렸고, 작품에 드러난 할멈 역시 젠더, 나이, 신분이라는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할멈의 대화에서 늙은 생원의 거절 이유를 오로지 ‘나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절 이데올로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늙음’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성정과 욕망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할멈의 거부는 근대적 사랑을 추구하는 할멈의 자유 의지로써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보아야 더 타당할 것이다.

중세적 사랑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신분이나 가부장적 권력 관계에서 상위자인 양반 남성이다. 하지만 신분이나 권력 관계를 초월한 근대적 사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권력을 가진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자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보다 매력이 있어 사랑을 덜 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다. 신분도 권력도 아니다.²²⁾ 이 가사작품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바로 할멈이다. 할멈은 늙은 생원의 사랑에 저항하며, 할멈의 뜻으로써 할멈의 자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우의에 있는 할멈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늙은 생원에게 전달하기에 이른다.

<임천별곡>에서 늙은 생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할멈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전개되지만, 할멈은 이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다. 이는 욕망에 대한 저항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욕망의 저항에 대한 행위소 모형’은 다음과 같다.



[[임천별곡]에서의 ‘욕망의 저항’에 대한 행위소 모형]

<임천별곡>에서의 주체는 근대적 사상을 가진 할멈이다. 할멈이 주체가 된 이유는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근대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늙은 생원보다는 할멈이 근대적 사상이 조금 더 할멈이 추구하는 대상은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 되는 잠자리의 거절이다. 조력자는 할멈이 잠자리를 거절한 이유로 삼은 나이와 할멈의 자유 의지이다. 할멈에게 적대자는 늙은 생원을 집에 들어오게 된 추운 날씨와 할멈과의 인연이 된다. 주체인 할멈이 늙은 생원을 집에 들인 이유는 ‘추운 날씨’와 ‘할멈과의 인연- 3년간의 情’, ‘유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할멈은 늙은 생원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늙은 생원은 할멈

22) 이도홍,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91~92쪽.

의 집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할멈에게 잠자리까지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할멈은 할멈의 저항으로 늙은 생원을 곁에 두지 않으며 이는 늙은 생원의 사랑과 욕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할멈은 늙은 생원에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짓밟아버릴 만한 모욕을 주지만, 늙은 생원은 끝까지 할멈과의 잠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두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늙은 생원은 할멈에 대한 사랑과 욕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할멈은 늙어버린 나이와 양반으로 갖춰야 하는 도리에 대해 늙은 생원에 대한 사랑을 거절한다.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 특이할 만한 것은 늙은 생원이 할멈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할멈은 이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것이다. 젊고 예쁜 기생도, 예쁜 아낙이 아닌 ‘할멈’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할멈이 양반 남성의 제안에 거절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가사작품에 등장하는 양반 남성은 젊고 예쁜 기생들과의 사랑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인물은 기생이 아닌 할멈이고, 할멈의 나이는 대략 70세이며, 할멈은 어느 주막의 주인으로 등장한다. 높은 지위를 가진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닌 일반 평민 할멈에게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생원의 태도에서 몰락한 양반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양반의 체면을 제시하며, 자신의 욕망과의 대립된 지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결국은 양반의 체면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중시하는 늙은 생원의 모습이 그려진다. 즉, 조선시대에 중시한 사회적 인식보다는 개인적 욕망의 발현을 꿈꾸게 되는 몰락한 늙은 남성의 모습으로 조선시대의 모순된 사회적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분질서의 해체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질서 체제를 세우고 가부장주의가 개인과 여

성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봉건사회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하층에 있던 서민과 여성은 스스로 주체를 형성하면서 상층의 양반층과 가부장의 권력에 서서히 저항하기 시작하²³⁾였다. 이러한 저항은 상층의 지배층이나 가부장적 권력층인 남성에게 대해 노골적으로 풍자하고 비판하는 형태로 드러났다.²⁴⁾

이 양반 어디 양반 저다지 미쳤는가? 생원님도 양반이니 양반답게 행세하여 馬上의 逢寒食과 花笑檻前聲未聽을 사랑에 높이 앉아 풍월이나 할 것이지 흰 나룻 나무끼고 바지춤에 손을 넣고 閭閻으로 다니면서 계집 推尋 우습도다. 白鷺窺魚格을 어디 가 배워 오신고 오장머리 드러지고 엽통머리 빠져 보인다.

할멈은 ‘미쳤다’며 늙은 생원을 비난한다. 늙은 생원은 양반의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행동으로 양반으로 가져야 할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는 할멈의 양반답게 행동하라는 늙은 생원의 꾸짖음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일반 양반 남성들이 하는 양반적인 행동에 대해 서술하며 할멈은 늙은 생원에게도 양반의 체면을 제시하지만, 늙은 생원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바지춤에 손을 넣고, 여염으로 다니면서 계집 추심 우습도다’라 하여 양반의 체면에 먹칠하는 행동으로 동네를 기웃거리며 여인들에게 집적대는 늙은 생원의 모습을 제시한다. 할멈은 늙은 생원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함을 미쳤다는 말로 대신한다. 이는 곧 과감하게 양반을 무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늙은 생원의 모습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양반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며,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묘사된다. 이 부분 어디에서도 늙은 생원의 양반됨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

23) 이도흠,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98~99쪽.

24) 이도흠,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98~99쪽.

내 아들 득손이는 及唱이 겸 庫直이 내 딸년 초심이는 水汲行首 난든
 변의 아잡삼촌 사오촌의 늦손자 오라버니네 삼반하인 군관청의 내 일족
 누가 아닐까. 半夜三更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항우의 주먹 질 지 장비
 의 팔 다실 지 성식의 소 같은 놈 가랑앞에 붙붙는 놈 더벅머리 억병 먹
 고 위뚱비뚱 다 모여서 생원님 흰 상투를 뒤텔치고 자쳐들고 귀밑대기
 한 번 치면 벼룩불이 펄펄 나고 넓적한 잔등이를 천등과 북소리를 울리
 고서 양 미간을 행하여 한번 택견하게 되면 생원님 조그만 몸 추풍낙엽
 얻어볼까 제 무덤 두엄발채 콩태자로 자빠져서 아야지야 살인이야 안팎
 곱추 누가 되실까. 言飛千里라니 이 말이 공주가면 생원님택 알아서는 노
 발이야 대발이야 치마칼 전반 곤장 발치 귀양 누가 가실까 이 양반 열 없
 어도 그런 말 다시 마오

할멈은 늙은 생원의 양반답지 못함을 일깨워주려 한다. 할멈의 능욕
 대가로 할멈은 가족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다. 할멈 아들의
 직업은 급창이와 고직이다. 급창이는 사또의 명을 받아서 큰 소리로 전
 달하는 심부름꾼이고, 고직이는 창고지기다. 딸의 직업은 수급행수로 순
 서에 따라 관아에 물을 길는 노비다. 할멈은 관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힘을 빌어 양반의 체면을 가리지 않고 양반을 욕보일 수 있음으로 늙은
 생원을 헐박한다. 그러나 그 헐박은 나름 먹혀 들어가는 듯하다. 씹씩하
 고 당당하던 늙은 생원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권위와 위세를 잃은 초라
 한 양반의 모습만으로 늙은 생원을 묘사하고 있다. 양반 남성의 신분과
 권위로서 평민 여성의 가족들에게 매 맞고 모욕당하는 행위이니, 이는
 신분사회를 벗어난, 조선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흔들리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어허 통분하다. 큰 욕을 보겠구나. 양반을 모르고서 네가 그리할까? 가
 문일랑 묻지 마라 월산대군 증손이라. 종실을 보고 이른 말은 이생에서

그대로 듣지 마라. 물망이 거룩할 손 높은 관직에 올랐구나. 楚國의 三閭大夫 屈原의 내 동갑에 일이삼사 차례를 헤아려보면 七十 歲가 내 나이
라. 莊子千讀 孟子千讀 야기 적에 공부하여 詩賦疑義自表樂은 行遊手帶
奇僻詩라. 王羲之 趙孟頫의 楷子로서 公都會 白日場의 重別試 大小科의
일등 이등 壯元 둘 때, 每榜에 高騰하니 九萬里 長天 상의 춤 났어 期約
하더니 京華의 縉紳大夫 날 모르는 이 누가 있으며 湖右一道의 某某한
어르신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아 다 우리 친구로다. 전승지 중화부사 죽
자 살자 하는 의요 너희 고을 案前 님도 어릴 적에 노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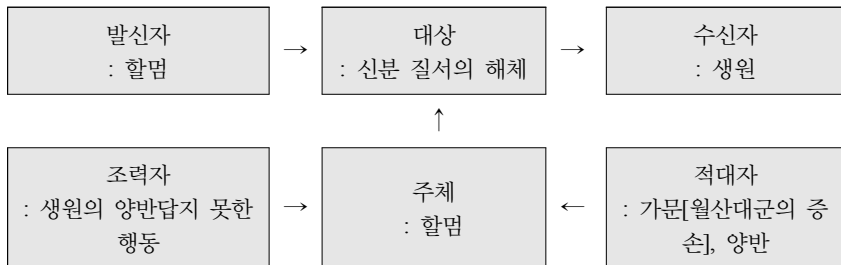
늙은 생원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양반임을 강조한다. ‘양반을 모르고서 네라서 그리홀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늙은 생원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드러냈다. 또한, 가문은 월산대군 증손이라며 왕실 자손임을 제시한다. 즉, 그는 왕실 가문의 자손임을 과시하며 양반계층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감중실 니른 말은 차싱 고지 듯지마라’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면서도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당한 치욕과 협박이 원통하고 분하다며, 양반 대접을 해주지 않는 할멈이 원망한다. 더구나 늙은 생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진 인물임을 ‘장자와 맹자를 천 번이나 읽고, 왕희지, 조맹부의 해자로 글씨도 잘 쓰며, 어릴 적에는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은 인물이었음’을 강조하여 유학자로서의 면모만을 강조한다. 京華의 縉紳大夫들과 湖右[지금의 대전]一道에서 자신을 모르는 어르신이 없을 정도라며, 넓은 인간관계와 양반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위를 과시한다. 또한, 늙은 생원은 할멈이 사는 고을의 案前과도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아주 친한 관계였음을 드러내며 할멈의 사건을 수습하려 한다.

本官의 呈狀하고 營門에 依送하여 續大典 펼쳐놓고 士夫凌辱 調律하여 杖一百 刑間일치 류삼천리 遠地定配 일종 律文하여 依法施行 하려더

니 곰곰 앉아 생각하니 그렇지 아니하다 나그네야 주인이야 삼년 내의
정이 깊어 계집의 고만 말을 摘奸하여 무엇하리 滄浪自取는 옛말이 날
속이라 河海같은 大度量의 부지일소 無可奈何 아이야 말 내어라 고향으
로 돌아가자 어저 뒤꼭지 부끄러워 어이갈고

늙은 생원의 마지막 대화이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당한 치욕과 모욕으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늙은 생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늙은 생원을 도리어 할멈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지만 이는 늙은 생원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반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할멈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데 이는 늙은 생원 나름의 험박인 것이다. 할멈의 죄명은 사부능욕죄인데, 이 사부능욕죄는 오롯이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이어졌을 때에만 해당된다. 사부능욕죄는 매우 엄한 형벌이 가해지는 죄지만, 작품의 서술 시점에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그간의 정이 있고, 계집의 그만한 말로 적간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바다와 같은 넓은 도량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신분 제도의 해체가 진행되고 양반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할멈 역시 양반의 허풍임을 간파한 듯하다. 이에 늙은 생원은 뒷꼭지가 부끄럽다며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논자는 <임천별곡>에 드러난 근대성 문제로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



[<임천별곡>에서의 “신분질서의 해체”에 대한 행위소 모형]

향’과 ‘신분질서의 해체’를 꼽았다. 봉건사회에 등장하는 가사작품에서 사랑과 욕망은 지배층인 양반 남성과 피지배층인 평민 여성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역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분질서의 해체는 잦은 전쟁과 사회 혼란으로 인해 신분제도는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작품의 내용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해준다. 봉건사회의 붕괴와 해체는 더 이상의 발전을 꿈꿀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반향이며, 조선시대에서 살필 수 있는 근대성 양상으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천별곡>에서 주체는 할멈이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멈이 추구하는 대상은 봉건사회에 대한 붕괴로 인한 신분질서의 해체다. 할멈은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상관하지 않고, 늙은 생원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오히려 늙은 생원은 양반의 체면과 권위를 상실한 채 할멈의 집을 떠나오게 된다. 양반과 평민의 관계가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양반과 평민의 위계질서의 간격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력자는 늙은 생원의 양답반지 못한 행동이다. 이로 인해 신분질서의 해체를 형성하는 유교적 이념의 붕괴가 된다. 이를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이 작품에서는 환유로 볼 수 있다. 적대자는 양반의 신분임을 강조하는 월산대군의 증손이라는 가문과 많은 양반 동료들을 들 수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신분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몰락한 양반이기는 하지만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지켜졌던 유교적 이념은 18세기에 이르러 서서히 붕괴되었다. 이 작품은 평민이면서 여성의 신분을 가진 할멈이 양반이면서 남성의 신분을 가진 늙은 생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곧 유교윤리 질서의 붕괴를 드러내고, 신분제도의 해체와 양반이라는 신분의 추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18세기는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시가 작품 가운데서도 李運永의 가사인 <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의 문제를 논하였다. 근대성의 양상에 대해서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과 ‘신분질서의 해체’라는 두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임천별곡>은 양반 사대부인 이운영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운영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운영은 진보적인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반됨을 욕보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논자는 여항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작품은 애정가사라고 알려졌지만, 풍자비판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애정가사로 보기 어렵고,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서사적 양상이 대화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의 권력은 여성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으니 양반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아무리 진보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양반이라고 해도 양반됨을 욕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듯하다. 이에 논자는 자신이 실제 겪었던, 자전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이전의 견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짐작해 보는 것이다.

<임천별곡>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신분제도 등의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형태로 이타적인 요소들로 변화하는 근대적 조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생원은 양반이라는 신분과 늙음이라는 고지식함으로 할멈에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잠자리를 요구한다. 이에 할멈은 양반이라는 ‘신분’과 늙은 생원이 가진 유교적 고지식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제시한다. 논자는 이

를 ‘저항’과 ‘해체’라는 말로 대신하였지만, 18세기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부패한 지배층- 물론 이 작품에서는 부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지배층이라는 양반-과 착취당하는 서민층- 늙고 힘없는 여성이라는 가장 힘없는 피지배층-의 삶을 생원과 할멈으로 비유하여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18세기 등장한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비판은 중세와 근대를 구별 짓는 헤게모니의 변화로 드러났고, 이러한 헤게모니의 변화는 18세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세기 가사 문학에서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착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임천별곡>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혜정, 「〈거사가〉와 <임천별곡>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 『한민족어문학』 6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 고순희, 「引喩와 諧謔의 미학- 이운영의 가사 6편」, 『이화어문논집』 5, 이화문학회, 1997.
- 김성도, 『구조와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학성,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1982.
- , 「근대논의 문제와 18세기 우리 시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 박경남, 「18세기 애정시가의 출현과 <임천별곡>」, 『국문학연구』 7호, 국문학회, 2002.
- 박연호, 「옥국재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 박수진, 『<임천별곡>의 내용과 표현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 윤성현, 『후기가사의 흐름과 근대성』, 보고서, 2007.
- 이도흠, 「18~19세기 동아시아시론의 변모양상과 시조의 실제」,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학회, 2009.
- , 「18~19세기의 시조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유형 분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 「18세기 시조에서 탈중세성의 지향과 근대성 문제」,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 이승복, 「<임천별곡>의 창작배경과 갈등의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 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한대호, 『이운영의 가사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The Aspects of Modernity in *ImcheonByeolgok*(林川別曲)

by Okgukjae(玉局齋), Lee Un-young:

Based on Using Greimas's Actant Model

Park, sujin

This study was contemplated about an aspects of modernity that was discovered of *ImcheonByeolgok*(林川別曲) written by Okgukjae Lee, Un-young in 18th Century. It was composed time that unprecedented state in the 18th century. So, I considered that Modernity was the most appeared at 18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Changes has happened in ideology and system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is change is the beginning of a new modern consciousness.

There is also a tendency to think of *Imcheonbyeolgok* as the autobiographical story of Lee, Yun-young. It seems that Lee, Yun-young has a progressive scholarly thought, but he did not reveal his own situation by insulting him. Therefore, I am not realistically valid for being able to see it as an autobiographical story that he actually experienced. Also, although *ImcheonByeolgok* is known as a love song, it is hard to see it as a love song because its satirical features are strong.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peculiar form of narrative being described as a dialogue.

I picked two aspects of modernity in *ImcheonByeolgok*. One is resistance to love and desire, and the other is disintegration of the order of identity. The two aspects of this paper were presented as Greimas's Actant Model. *ImcheonByeolgok* is the result of efforts to show the changing modern Joseon Dynasty's elements in the form of resistance and resistance to Joseon's feudal society, such as Confucian ideology and identity systems. Thus, I suggested the corrupt ruling class of Joseon's feudal society and the exploited working class life as an old living and

a grandmother instead of ‘resistance’ and ‘disposal’ in the 18th century.

The criticism of traditional feudal societies that emerged in the 18th century turned out to be a hegemony that distinguishes the Middle Ages from the Modern Age, which resulted in differences between the ages before and after the 18th century. Although these hegemony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in household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it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I suggested that Lim’s Star Song was an important work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is change.

Keywords : *ImcheonByeolgok*(林川別曲), 18th Century, Modernity, identity order, desire, resistance, dismantling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오! 수정〉의 아이러니 미학

－ 반복과 차이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명수*

【 차 례 】

- I. 들어가는 글
- II. 〈오! 수정〉의 남성중심주의와 전제내용
 1. 불편한 영화 〈오! 수정〉
 2. 전제내용(contenus présupposés)과 남성중심주의
- III. 남성중심주의의 무효화(annulation)와 아이러니(ironie)
 1. 남성중심주의의 무효화
 2. 아이러니의 발생
- IV. 〈오! 수정〉의 아이러니
 1. 〈오! 수정〉의 반복과 차이의 구조
 2. 반복과 차이의 의미화와 아이러니
- V. 나가는 글

국문초록

〈오! 수정〉은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영화이다. 남성중심주의는 의미의 초점이 전제내용, 즉 /재혼은 부자이고 수정은 순종적이며 처녀이다/에 맞추어질 때 발생한다. 언어의 다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전제내용은 집단의 목소리이다. 때문에 집단적 가치를 대변하고 강요하는 모든 문화는 이 전제내용에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내용의 측면이 아니라 디에제스를 제시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오! 수정〉을 보면, 이 영화는 오히려 남성중심주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전복시키고 있다. 이 말은 이 영화가 바로 이 전제내용을 아이러니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제내용의 아이러

* 중앙대학교 프랑스어문전공 교수.

니화는 언술 자체가 무효화될 때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오! 수정>의 아이러니화도 디에제스 자체, 즉 /재훈과 수정이 연인관계가 되었다가 무효화될 때 발생한다.

아이러니는 언술에 아무런 의미론적 표시가 없기 때문에 순수 화용론적 방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 수정>의 아이러니도 내부의 목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에 의해서 해석된다. 외부의 목소리란 디에제스가 구축되는 방식, 즉 초점화와 시각화와 청각화의 문제들이거나, 디에제스가 제시되는 방식, 즉 순서와 반복 또는 플롯의 문제들을 말한다.

<오! 수정>은 재훈의 기억과 수정의 기억이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반복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반복은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동반한 반복이다. 차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의 디에제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하지만 곧 재훈과 수정 사이에 누구의 기억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의심하게 한다. 반복은 동일자를 부정하는 무한반복에 의하여 디에제스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관객의 지식도 무효화시킨다. <오! 수정>은, 디에제스를 통해 구축된 관객의 지식이 반복과 차이의 구조에 의한 무효화되면서, 의미의 아이러니화가 일어나는 영화이다.

열쇠어 : 남성중심주의, 전제내용, 아이러니, 반복, 차이

I. 들어가는 글

홍상수의 <오! 수정>은 관객에게 재훈이라는 젊은 남자와 수정이라는 젊은 여자 사이의 내밀한 만남을 엿보는 재미를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수정에게 섹스만을 요구하는 재훈과 그런 재훈에게 끌려가고 또 끌려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 수정의 태도, 특히 재훈과 수정과의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불평등 관계(=비대칭 관계)와 그 불평등 관계가 전혀 해소 되지 않은 채 영화가 끝난다는 것, 그 후 이들이 결혼했을 것이라는 상상 등등으로, 관객은 확실히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영락없이 남성중심주의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인 오스틴(Jane Austin)의 <오만과 편견(Price and Prejudice)>

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것이 명확히 보인다. <오만과 편견>¹⁾에도 남녀 주인공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간관계의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여자 주인공이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오! 수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다만 남녀관계를 경멸적 의미의 트리비얼리즘(trivialism)이라고 할 만큼 세밀하게 보여 줄 뿐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남성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영화라고 단정 짓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대체로 남성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이야기들은 관객에게 그 영화의 내용이 남성중심주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서적으로 후련함 또는 시원함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후련하지 않고 씁쓸한 느낌이 들게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작가는 관객에게 ‘본 것만을 믿지 말고, 느낀 것을 생각해 보시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화가 보여준 서사적 내용으로는 남성중심주의를 정당화하고 있음에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가는 남녀관계를 왜곡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방식, 다른 말로 디에제스(diégèse)²⁾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지적인 긴장감을 도발하여 관객으

1) 조 라이트(Joe Wright) 감독의 <오만과 편견>에서 다아시가 엘리자베드의 아버지에게 혼인 승낙을 받으러 올 때, 다아시는 그전과 달리(그전에는 말을 타고 왔다) 걸어서 왔는데, 이 장면은 엘리자베드가 빙리의 집에서 다아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빙리의 집까지 걸어서 간 장면과 대칭을 이룬다.

2) 우리는 ‘디에제스(불문 : diégèse)’라는 용어를 안 수리오(Anne Souriau)가 이끄는 파리 대학교 <영화학 연구소(Institut de Filmologie)>의 ‘미학연구 그룹’이 제안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밝힌다. 이 그룹에 의하면 디에제스라는 용어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예술작품이 보여주는 허구적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에제스란, 그것이 실제의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던지 간에, 작품 안에 재현된 세계이다.(La diégèse est donc le monde représenté dans l’oeuvre, quelle que soit sa relation avec le monde réel.)” Etienne Souriau, *Vocabulaire de l’esthétique*, publié sous la direction de Anne Souriau, Paris, PUF, 1990, p.581.을 보시오. 한편 서사적 작품이나 드라마적 작품 모두 감정이나 행동을 모방하되, 전자는 이야기하기(raconter), 후자는 연출하기(mettre en scène)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안느 수리오(Anne Souriau)는 미메시스(mimésis)라는 개념을 모든 예술작품의 생산 원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bid.*, p.862.를 보시오.

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작가는 디에제스 그 자체 보다 는 디에제스를 제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자기가 본 것을 뒤집어 보고 비판하라고 종용한다. 다른 말로 영화는 남성중심주의의 내용을 실컷 잘 보여주고는, 실제로는 그 반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 수정>은 전형적인 아이러니(ironie)의 의미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이다. 관객에게 그들이 본 것, 그래서 갖게 된 지식을 부정하고 뒤집어 보게 하는 영화, 좋게 보았던 것을 부정하고 전복시킴으로써,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영화이다.

본 논문은 <오! 수정>에서 일차적으로 영화의 전제내용(contenus pré-supposés)을 통해 남성중심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남성중심주의가 아이러니화 되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이 영화에서 아이러니는 디에제스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디에제스를 제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정하고 전복시킨다는 입장에서, 디에제스가 제시되는 방법, 즉 반복과 차이의 의미작용을 아이러니의 관점에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II. <오! 수정>의 남성중심주의와 전제내용

1. 불편한 영화 <오! 수정>

<오! 수정>을 보고나면 극장 문을 나설 때 웬지 찝찝한 느낌이 든다. 겉으로 보이는 영화의 서사는 아주 단순하다.³⁾ 재훈이라는 남자와 수정

3) 홍상수의 초기 영화들<돼지가 우물에 빠진날>/<강원도의 힘>/<오! 수정>-은 그 이후의 영화들과 달리, 어느 정도 전통적인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말로 영화가 보여준 사건을 전통적인 서술적 관점에 따라 하나의 줄거리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영화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과연 줄거리를 구축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줄거리란 작품의 보편적인 내용이며 동시에 구조와도 맞물려 있는 개념임을 상기하면, 결국 줄거리가 애매하다는 것은, 그 구조가 복잡하거나 또는 열려있거나 이며, 서사도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미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에제스의 구축의 문제는 본 논문

이라는 여자가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성관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젊은이들이 만나서 연애의 감정이 생기고, 서로 욕망하고 그러다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이 영화에 대하여 거북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영화가 극사실주의(hyper-réalisme)라고 할 만큼 매우 사실적인 스타일(style)로, 남녀 관계의 전개 양상을 아무런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객은 분명히 보호받은 상태에서 타자의 삶을 엿보고 있지만, 민낯이라고 할 만큼 적나라한 것을 대면하면서 거북하고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내용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불편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① 우선 두 남녀 주인공의 경제적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있다. 즉 재훈은 매우 부자인데 수정은 그렇지 않다.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오만과 편견>도 두 주인공의 경제적인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그 격차로 인한 갈등과 그 갈등이 전개되고 해결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작품이 판이하게 다르다. <오만과 편견>의 경우, 비대칭(불평등) 관계에 있던 두 남녀 주인공들이 평등 관계(대칭관계에서 보완관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⁴⁾ 다시 말해서 <오만과 편견>에서는 여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에게 고마움과 관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애를 수락하지 않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 생긴 오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아시와 자신과의 현격한 경제적 차이 때문이며, 이런 비대칭적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

에 연속된 다음 논문, “〈오! 수정〉의 아이러니 미학 II : 초점화와 시각화를 통한 디에제스의 구축을 중심으로”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인간관계는 권력, 신분, 권위, 우열, 지배 등의 수직적 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위의 체계(système des places)>를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대칭 관계 : 지위의 동등성, ② 비대칭 관계 : 지위의 비동등성, ③ 보완 관계 : 지위의 유동성. 여기에서 보완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다.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II, Paris, Armand Colin, 1992, p.71과 참고, 「영화콘텐츠에서 등장인물에 관한 연구」, 『다문화 콘텐츠 연구』 제 15집, 인문콘텐츠연구소, 2013, 384쪽을 보시오.

락한 귀족 가문이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엘리자베스와 부유한 귀족 다아시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아시의 재력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 즉 아직은 방해물일 뿐이다. 다아시가 자신의 모든 우월성을 내려놓고 기꺼이 엘리자베스의 위치(낮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때, 즉 두 사람이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아시의 모든 소유는 그의 선한 능력으로 바뀌고 이때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구애를 받아들인다. 이 소설(영화)은 비대칭 관계에 있는 두 인물이 대칭-보완 관계가 되기까지의 다양한 우여곡절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되었을 때 결혼해야지 두 주인공의 미래가 밝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 수정>은 그런 건강한 관계로의 이행 없이, 불평등 상태 하에서 두 인물이 내연의 관계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지적 불쾌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② 두 주인공 남녀의 관계 진행에 있어서 관객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애정의 관계 또는 내연의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준비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두 사람의 관계는 재혼의 일방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키스의 시도로 갑작스럽게 형성되었다. 이 둘은 중간에 재혼의 선배인 영수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소개받은 사이가 아니고, 따라서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정보교환의 과정, 다시 말해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동안 나눈 대화는 자신들의 주량이 얼마인지 또는 취했는지 아닌지? 등, 술에 관한

5)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는 ① 정보수집 단계: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관계를 갖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 ② 상호합의(consensus) 단계: 관계에 대해 상호인정, ③ 관례화(ritualisation) 단계: 관계가 안정되고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이 생김. 고프만(Goffman)은 이런 과정을 «상황 정리(définition de la situation)»라고 했다. E. GOFFMAN, *La mise en scène de la vie quotidienne : 1. la présentation de soi*,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73, p.11을 보시오.

이야기가 전부였는데, 2번째의 만남 때 재훈은 느닷없이 수정에게 키스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재훈의 키스는 그 어떤 동의-최소한 암묵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강제적인, 일종의 성폭행과 동일한 행동이었다. 물론 수정은 이에 대하여 반발했다.

③ 재훈이 수정에게 끌리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재훈은 수정에 대하여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훈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수정에게 섹스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재훈은 수정이가 처녀라는 사실에 더욱 고무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주인공 재훈에게 여자란 단지 성적 대상이고, 섹스는 곧 여자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식이며, 진정한 소유란 특히 여자가 처녀일 때 가 가능하다. 최악은 그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즉 재훈에게 여자란 지적 능력이나 고상한 취미를 소유하는 것 보다는 처녀성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여자라야 자신과 결혼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다. 수정이 재훈과 결혼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④ 수정의 재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은 재훈과의 만남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낀 순간이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그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섹스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재훈의 솔직하고 어딘지 어리숙해 보이는 점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재훈의 재력 때문이다. 수정에게 재훈은 자신에게 부단히, 집요하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부잣집 아들인데, 처녀인 몸으로 그와의 혼전 섹스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자신의 현실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재력가라면 그와의 잠자리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만남을 지속하고, 결국은 재훈과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영화는 수정이의 처녀성이 확인되면서 매우 기뻐하는 재훈과 또 재훈의 그런 모습에 수정도 만족해하는 것으로 끝났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 둘은 결혼에도 골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이 영화는 왜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정서적 측면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지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인가? 불편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 영화는 이 불편함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가?

2. 전제내용(contenus pr suppos s)과 남성중심주의

불편함의 본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의미의 차원과 범주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⁶⁾는 언술은,

① /철수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② /철수는 과거에 담배를 피웠다

③ -1./담배는 끊을 수 있어, 그러니 너도 그런 본을 받아라

③ -2./그녀석 또 끊었다는 구만, 며칠 지나면 다시 피울 걸

③ -3, 4, 5, 6.....

①은 언술이 직접 말하는 있는 ‘명시내용(contenus explicites)’이고, ②와 ③은 언술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적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함축내용(contenus implicites)’ 또는 ‘추론(inférences)’⁷⁾이다. 이 중에서 ②가 언술이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성립되기 위해서 필연적으

6) 뒤크로(O. Ducrot)나 케르브라-오레키오니(Kerbrat-Orecchioni)가 예를 들어 유명한 실제 예문은 «Pierre a cessé de fumer피에르가 담배를 끊었다»이다. Oswald Ducrot, *Le dire et le dit*,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1984, p.231과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implicite*, Armand Colin, Paris, 1986, pp. 6-7을 보시오. 명시내용과 함축내용에 대한 구분은 Kerbrat-Orecchioni, *ibid.*, pp.19-20을 보시오. 줄고 「화용론과 극텍스트의 대화분석」 in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 1998, 제10호, 213-215쪽을 보시오.

7) 여기에서 추론은 조작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의 단위(unité de contenu)”(*ibid.*, p.355, 주 8번을 보시오)로, “다양한 종류(추이)의 정보들을 조합하여 한 언술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고, 이 언술의 문자적 내용으로부터 연역해 낼 수 있는 모든 함축적 명제”(*ibid.*, p.24)를 뜻한다.

로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 즉 전제내용(또는 전제추론 *inférences présumposées*)이고, ③은 ‘발화행위의 컨텍스트(*contexte d'énonciation*)’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내용, 즉 암시내용으로, ③-1은 충고, ③-2는 비꼬기 등이다. 화자(L)이 언술(P)를 통해서 무엇을 지향(*intention*)한다는 사실은, <L이 P를 말하면서 이 P를 통해 Q를 의미하고자 함>으로 요약하고, 이때 일반적으로 Q가 함축내용에 해당된다. 또 위의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③의 암시내용이 Q가 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②의 전제내용이 Q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우이다.

<오! 수정>은 «재훈(남)과 수정(여)이 만나 우여곡절 끝에 성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가 된다»는 하나의 언술로 바꿀 수 있다. 이 언술에 대한 명시내용과 함축내용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재훈과 수정은 현재 연인 관계이다
- ② /재훈은 부자이고 수정은 순종적이고 처녀이다
- ③ /재훈과 수정은 (필히) 결혼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①은 영화의 디에제스가 보여주는 인물들의 현재 상태이고 ②는 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내용(*contenus présumposés*)이며 ③은 이 영화가 지향하는 내용, 즉 암시내용(*contenus sous-entendus*)이다. 물론 이 암시내용은 ② ‘남자는 부자이고 여자는 순종적이고 처녀이다’는 전제내용에 조건화 되어 있다. 즉 두 인물이 성관계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결국 결혼으로 끝낼 수 있는지는 바로 이 ②번 전제내용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암시내용, 즉 영화가 지향하는 내용 ③은 다시 전제내용 ②로 회귀한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남자는 부자이어야 하고 여자는 처녀이어야 한다/가 된다.

전제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발화되었던지 간에 그 언술 속에 “내재

적으로 적혀(*intrinsèquement inscrites*)”⁸⁾ 있는 내용을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제내용은 마치 “<그건 당연한 거야>라는 방식(*sur le mode du <cela va de soi>*)”⁹⁾으로 또 “그 자체로 진실한 표현(*expression vraie-en-soi*)”¹⁰⁾으로 제시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그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담화 또는 서로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은 전제내용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로, 전제내용은 한 언술이 형식적으로는 유일한 화자(*locuteur*)에 의해 발화되었지만, 그 의미나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내부에 여럿의 발화자(*énonciateur*)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바흐친(*M. Bakhtine*)에 영향을 받은 뒤크로는 이를 발화행위(*énonciation*)에 있어서 다성적(*polyphonique*) 특성이라고 말하고, 언술을 생산하는 주체는 ① ‘발화 주체자(*sujet parlant*)’, ② 화자, ③ 발화자로 구분된다고 하였다.¹¹⁾ 발화 주체자란 세상 속의 한 개인(*individu*)으로서 ‘언술의 실제적인 생산자’이고, 화자와 발화자는 세상에는 없는 ‘이론적인 존재들(*êtres théoriques*)’이다. 소설에서는 작가가 발화 주체자인데 작가가 작품에 드러나지 않듯, 발화 주체자는 언술의 의미 구조에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다. 언술의 생산을 책임지는 자는 화자이고 발화자는 언술행위에 있어서 “시점, 입장, 태도”의 표현을 담당한다. 주네트(*Genette*)의 서술학(*narratologie*)의 입장과 비교하면, 발화 주체자(*sujet parlant*)는 작가(*auteur*)이고, 화자(*locuteur*)는 서술자(*narrateur*)이며, 발화자(*énonciateur*)는 ‘관점의 중심(*centre de perspective*)’이다.¹²⁾ 서술자가 이야기를 ‘말하는 자(*celui qui raconte*)’라면, 관점의 중심은 이야기를 ‘보는 자(*celui qui voit*)’이다. 즉

8) *ibid.*, p.25.

9) *ibid.*, p.32. 이런 의미에서 전제내용을 “선-단정된(*pré-asserté*)” 또는 “선-구축된(*préconstruit*)” 내용이라고도 불린다. 같은 쪽을 보시오.

10) *ibid.*

11) O. Ducrot, *le dire et le dit*,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p.204.

12) *ibid.*, p.208을 보시오.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는 화자의 생산물이지만, 명시내용①과 전제내용②의 발화자는 화자와 다른 존재이다. 특히 전제내용의 발화자는 논리학에서의 ‘독사(doxa; 의견)’의 경우와 같이 “그 심급(instance)은 무명이고, 복수이고, 보편적(anonyme, plurielle, universelle)인 집단의 목소리(voix collective)”¹³⁾이다.

둘째로, 전제내용의 이런 특성 때문에 화자가 언술을 통해 실제로 지향하는 내용, 즉 Q가 전제내용이면, 이 언술은 청자를 집단에 예측시키고, 의식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무의식적 수준에서 그 집단의 가치를 강력하게 “강요하는(imposer)”¹⁴⁾ 효과를 발생시킨다. 집단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영화들, 예를 들어 권선징악의 이야기들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전파하는 헐리웃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Q가 전제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는 효과’가 큰 것이다. 마찬가지로 “낮은 신분의 여자가 뜻 밖에 고귀한 신분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 ‘신데렐라 신드롬(Cinderella syndrome)’도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였다/는 작품의 서사적 내용의 전제내용인 /신데렐라는 착한 순종적인 여자이다/가 Q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 한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지향하는 Q가 전제내용인 /신데렐라는 착한 순종적인 여자이다. 따라서 여자는 착하고 순종해야 한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데렐라 신드롬은 전제내용이 바로 작품의 Q가 되는, 즉 전제내용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수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 수정>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 영화가 지향하는 내용 Q는 전제내용인 ②/재혼은 부자이고 수정은 순종적이며 처녀시대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3) Kerbrat-Orecchioni, *op.cit.*, p.33. 뒤크로도 “전제내용은 집단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고 했다. Ducrot, *op.cit.*, p.231.

14) Kerbrat-Orecchioni, *op.cit.*, 같은 쪽.

남자의 능력은 권력이나 부를 말하고 여자의 능력은 순종적이고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남자는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고(능력이 없는 남자는 능력 있는 자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순종과 순결의 덕목을 지켜야 한다

보는 바와 같이 한 마디로 <오! 수정>도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전근대적 남성중심주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속물적인’ 영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과연 <오! 수정>은 남성중심주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영화일까? 작가는 관객이 엿보기 욕망이나 충족 받고, 낱낱 거리는 기분으로 극장을 나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하지만 남성중심주의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영화를 본 관객에게 기분이 후련하다든가 또는 편안하다든가 하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다시 말해서 설령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찜찜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도 영화가 끝날 때는 일반적인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들처럼 이런 기분이 다 해소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III. 남성중심주의의 무효화(annulation)와 아이러니(ironie)

1. 남성중심주의의 무효화

<오! 수정>에서 불편함은 관객이 본 것, 그래서 아는 것이 모두 조작된 것일 수 있고, 사실이 아닌 수 있으며 거짓일 수 있으니, 비판하고 뒤집어 보라는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작가는 <오! 수정>이 과연 남성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영화인지 의심해 보고, 이 영화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적해보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는 남성중심주의의 부정, 즉 아이러니이다. 이제

<오! 수정>에서 아이러니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아이러니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것은 이 영화의 전제내용인 남성중심주의적 가치, 즉 /남자는 부자이고 여자는 순종적이며 처녀이어야 한 대의 아이러니 Q를 찾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어떤 계기로 이 영화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우선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의 각각의 의미 차원에 대한 아이러니를 정리해 보자.

- ① 명시내용 / 철수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아이러니 / 철수는 담배를 피운다(철수는 담배를 끊지 않았다)/
- ② 전제내용 / 철수가 과거에 담배를 피웠대 →
아이러니 / 철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나는 내차 페라리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는,

- ① 명시내용 / 나는 지금 (바로 내 옆에) 페라리가 없다 →
아이러니 / 나는 지금 페라리가 있다
- ② 전제내용 / 나는 페라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
아이러니 / 나는 페라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위의 두 예에서 우리는 명시내용에 대한 아이러니와 전제내용에 대한 아이러니가 완전히 다른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아이러니는 그 초점이 명시내용에 맞추어지느냐 아니면 전제내용에 맞추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제내용의 아이러니는 언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는, 이 언술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거짓이 아니기 위해서는) /철수가 과거에 담배를 피웠대/는 전제내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전제내용의 아이러니 /철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철수가

담배를 끊을 수 없게 하고(담배를 피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는 언술 자체를 부정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제내용의 아이러니는,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고 이 말을 부정하고 무효화해 버릴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 수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제내용인 */재훈은 부자이고 수정은 순종적이며 처녀시대*의 아이러니 */재훈은 가난하고 수정은 반항적이고 비처녀시대*인데, 이 내용은 «재훈(남)과 수정(여)이 만나 우여곡절 끝에 성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가 된다»의 성립을 흔들고 전복시킨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틀 안에서는 <가난한 남자와 반항적이고 비처녀인 여자는 절대로 연인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수정>이 남성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는 전제내용이 주제가 되는 수사적 구조를 가질 때이다. 그런데 «재훈(남)과 수정(여)이 만나 우여곡절 끝에 성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가 된다»는 내용의 디에제스 자체가 부정되고 무효화 될 때, 즉 «재훈과 수정은 만나지도, 성관계를 맺지도, 연인 관계가 되지도 않았다»가 될 때, 이 영화의 아이러니인 반-남성중심주의가 솟아오른다.

이제 <오! 수정>을 보고 나서 관객이 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관객은 기만당하고 나아가 테러를 당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영화가 관객에게 보여준 내용으로는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영화가 지향하는 것은 남성중심주의를 조롱하고 전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 수정>은 디에제스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고전영화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고전희극이나 블랙코메디는 대상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왜곡시키고 ‘그로테스크(grotesque)’ 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관람 중에 풍자와 조롱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 수정>은 오히려 아무런 변형 없이 사실적으로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일차적

으로는 그것을 믿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때문에 관객은 관람하고 있는 중에는, 즉 디에제스 안에 몰입해 있는 중에는 풍자와 조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전희극이나 블랙코메디는 작품 속에 이미 풍자와 비판의 요소들이 기입되어(enregistré) 있어서 작품을 보고 있는 동시에 본 것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데 반하여, <오! 수정>은 디에제스 자체로는 풍자나 비판의 외현적인 단서 없이 그냥 남성중심주의가 재생산되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이유로 남성중심주의의 전복이라는 영화의 지향성이 의식적 수준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뭔가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지적인 긴장감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쾌한 느낌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 수정>의 아이러니란, 관객으로 하여금 디에제스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며 그 지식이 옳다고 믿게 하고는 이를 뒤집고 무효화해 버림으로써, 전제내용, 즉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 수정>은 디에제스 자체로는 아이러니를 해독해내도록 하는 요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아이러니로 해석할 수 있을까?

2. 아이러니의 발생

수사학에서 아이러니란 Q가 P의 부정이거나 P와 대립적 의미를 지향(intention)하는 발화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의 아이러니는 /철수는 담배를 끊지 않았다/이다. 전통 수사학은 모든 수사적 현상을 의미의 변환, 즉 전의(trope)의 관점으로 설명해 왔다. 전의란 문자적 의미(sens littéral)라 불리는, 말이 표상하는 사실 P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상으로부터 파생된 의미(sens dérivé) 또는 비유적 의미(sens figuré)인 Q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전의를 간접

화행이나 함축이라는 언어학(화용론)의 포괄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Freud)와 라캉(Lacan), 구조주의 기호학 그리고 야콥슨(Jakobson)에 의하여 은유(métaphore)와 환유(métonymie)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수사학적 표현방식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전의의 관점에서 보면 P(문자적 의미)와 Q(비유적 의미)의 관계가, 은유는 ‘유사성 관계(relation d’analogie)’, 환유(métonymie)는 ‘인접성 관계(relation de contiguïté)’, 아이러니는 ‘반의적 관계(relation d’antonymie)’¹⁵⁾로 설명한다.

아이러니에는 <지시적 아이러니(ironie référentielle)>와 <언어학적 아이러니(ironie linguistique)>가 있다. 지시적 아이러니는 <상황의 아이러니(ironie de la situation)>라고도 한다. 소방관이 화재예방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그의 예이다. 언어학과 수사학의 연구 대상에서 <지시적 아이러니>는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지시적 아이러니도 언어로 변환되어 표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언술 안에 반어의 내용이 ‘인 프레젠티아(in presentia)’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¹⁶⁾ 케르브라-오레키오니는 P(문자적 의미)가 Q(비유적 의미)로 어떻게 변환되는 지에 따라, <언어학적 아이러니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¹⁷⁾

- ① Q가 대상(cible)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풍자하거나, 고발 또는 공격하는 내용의 경우
- ② Q가 언어적 과정을 거쳐 반어(antiphrase)의 내용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성실성의 원칙(loi de sincérité)”을 위반하는 경우

15) *ibid.*, pp.100-102을 보시오.

16) *ibid.*, pp.10-11을 보시오.

17) ①과 ②는 “Problème de l’ironie”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Catherine Kerbrat-Orecchioni, “Problème de l’ironie”, in *L’ironie*, 2è édition, Lyon, Presse Universitaire de Lyon, 1978, p.10을 보시오.

①은 아이러니가 화행(acte de langage)의 언표내적 특성(nature illocutionnaire), 즉 간접 화행(acte de langage indirect)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②는 아이러니가 대화상의 함축(implicature)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아이러니는 암시내용(contenus sous-entendus)로 수렴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이러니는 의미론적 방법이 아니라 화용론적 방법에 의해 <암시내용(반어적 의미의)>이 이해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에서 암시내용 중의 하나인, /철수는 담배에 관한한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진짜 담배를 끊어 본 적이 없거든/이 아이러니의 예인데, ① 조롱(/철수는 믿을 자가 못된대)과 ② 반어(/철수는 사실 상 한 번도 담배를 끊어 본 적이 없다)의 내용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에는 아이러니를 지시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이것이 아이러니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만약에 언술 안에 부정, 모순, 반어의 내용이 ‘지시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즉 인 프레센티아(in praesentia)라면 이 경우는 은유나 환유처럼 의미론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화용론적 접근에 의해서만, 즉 의미론적으로는 모든 해석의 표시들이 부재하는(인 압센티아in absentia) 상황에서 추론의 작업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

그라이스(P. Grice)는 수사학적 표현은 모두 대화의 격률(maxime de conversation) 중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ne dis pas ce que tu penses être faux)”¹⁸⁾는 <질의 격률(maxime de qualité)>을 여기는

18) 그라이스는 칸트(Kant)의 범주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화의 격률(Maximes conversationnelles)>을 제안했다. ① 양(quantité)의 격률 : 담화가 요청된 양의 정보를 담고 또 요청되지 않은 양의 정보는 담지 말 것, ② 질(qualité)의 격률 : 담화가 진실해야 될 것이라는 대화의 선결적인 규칙으로 거짓이라 믿는 것을 긍정하지 말고 증거가 부족한 것을 긍정하지 말 것, ③ 관계(relation)의 격률 : 관여적으로 말할 것, ④ 방법(modalité)의 격률 : 담화가 명확할 것. Paul Grice, “Logique et conversation” in COMMUNICATIONS, Paris, Seuil, N° 30, 1979, p.61을 보시오. 케르브라-오레키오니는 <질의 격률>을 <성실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둘 다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않으며, 증거가 부족한 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둘 다 모든 담화에 있어서 “최초의/출발이 되는(primordial)” 조건이다. Catherine

발화행위라고 했다. <P ≠ Q> 일 때, P라고 말하고 Q를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질의 격률을 어긴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수사는 거짓말(mansonge)이다. 특히 반대나 부정의 내용을 지향하는 아이러니는 거짓말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발화 주체자의 신뢰가 상실되고 그로 인해 이 대화는 즉시 중단되거나 혹은 최소한 이 대화 후 이 두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수사적 표현은 거짓말인 듯 거짓말이 아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아이러니도 마찬가지이다. 거짓말이란 “화자L이 ‘P-아님’을 생각하며 P를 발화하고, 청자가 이 말을 P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L dit P, pense ‘non-P’, et veut faire entendre P)”이라면, 아이러니는 “L이 ‘P-아님’을 생각하며 P를 발화하고, 청자가 이 말을 ‘P-아님’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L dit P, pense ‘non-P’, et veut faire entendre ‘non-P’)”¹⁹⁾이다. 이처럼 거짓말과 아이러니는 서로 다르다. 모든 수사학적 표현들은 ‘담화의 성실성의 법(lois de sincérité du discours)’을 어기되 <공개적으로(ouvertement)>으로 어김으로써, 또 <공개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니 이 말이 지향하는 암시내용(전의)을 해독해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언술로부터 아이러니, 즉 모순적 의미(sens contradictoire)를 해독해 내는 <공개적인> 어김이란 무엇일까?

은유나 환유의 <공개적인> 어김은 다분히 의미론적(sémantique)이다. 은유나 환유가 유사성이나 인접성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은 은유나 환유는 내용의 차원에서 이미 전의를 해독해내는 단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은유란 “상관적인 이미지가 외시된 대상의 표상 위에 이식되어 있어서, 항상 정보성을 간직하고 있는”,²⁰⁾ 즉 언술 자체에 ‘성실성의

Kerbrat-Orecchioni, *op.cit.*, pp.204-206을 보시오.

19) Catherine Kerbrat-Orecchioni, “Problème de l’ironie”, in *L’ironie*, 2è édition, Lyon, Presse Universitaire de Lyon, 1978, p.13. 우리가 표현을 조금 바꾸었음을 밝힌다.

20) “La métaphore /.../ demeure toujours informative puisqu’elle greffe sur la représentation de l’objet dénoté une <image associée>...” *ibid.*, p.105. 또는 C. Kerbrat-Orecchioni, “L’ironie comme trope”, *Poétique*, 1980, n°40, p.127.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수사적 표현이다. 디에제스(허구적인 사건) 자체에 풍자나 비판의 요소가 기입되어 있는 고전희극 또는 현대의 블랙코메디에는 은유나 환유적 요소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아이러니는 의미론적인 표식이나 징표가 없어서 “의미론적 잡음과 해석적 불확실성(*le brouillage sémantique et l’incertitude interprétative*)”이 매우 강한, 그래서 “모든 전의 중에서 가장 혼쾌히 애매성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는 전의(*L’ironie est de tous les tropes celui qui nage le plus volontiers dans les eaux troubles de l’ambiguïté*)”²¹⁾ 라고도 불린다. 은유나 환유는 성실성의 법을 어긴 언술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아이러니는 성실성의 법을 전혀 어기지 않은 투명한 언술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언술은 그 안에 그 어떤 <공개적인 어감>의 흔적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한 언술을 아이러니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언술의 내부에서 또는 디에제스 안에서 의미론적으로 <어감>의 표식이 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언술 밖에 또는 디에제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서 이다. 음성(*vocalité*), 운율(*prosodie*), 자세-표정-몸짓(*posturo-mimo-gestualité*)에서부터 화장과 옷차림 등등, ‘말 언(*langage verbal*)’를 둘러싼 ‘말 아닌 언어(*langage non-verbal*)’²²⁾가 언술 밖 또는 디에제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중의 하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말 아닌 언어’는 말 언어의 애매성을 해소하고 언술의 암시내용을 추론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 *ibid.*

22) 코스니에(Jacques Cosnier)는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광의의 언어를 ‘토텍스트(*to-texte = énoncé total*)’라고 하고, 토텍스트를 ① ‘텍스트(*texte*)’와 ② ‘코텍스트(*co-texte*)’로 분류하였다. ① ‘텍스트(*texte*)’는 글로 전사될 수 있는 말 언어(협의의 언어)를 지칭하고 ②코텍스트는 음성, 운율, 태도-표정-몸짓, 화장, 의상 등 ‘말이 아닌 언어’를 지칭한다. 텍스트가 의식적이고 의지적이라면 코텍스트는 다분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이 두 언어는 서로 협력하지만 때로는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의식적 수준에서 코텍스트가 무의식적 수준에서 힘을 발휘한다. Cosnier & Bronssard, *La communication non verbale*. Paris, Delachaux et Niestlé, 1984.

위의 «철수가 담배를 끊었다»가 ③-1./담배는 끊을 수 있어, 그러니 너도 그런 본을 받아라(충고) 또는 ③-2./그녀석 또 끊었다는 구만, 며칠 지나면 다시 피울 걸(조롱 또는 반어)으로 추론되는 것은 전적으로 ‘말 아닌 언어’의 역할이다. 그리고 «철수가 끊었다는 군. 담배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나, 반복적 발화 등등, 언술을 제시하는 수사적 방법들도 언술 밖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오! 수정>에서는 관객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사실주의와 반복과 차이의 구조가 디에제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이다. 반복과 차이의 구조가 어떻게 아이러니의 의미화에 기여하는지 보자.

IV. <오! 수정>의 아이러니

1. <오! 수정>의 반복과 차이의 구조

I부 온종일 다리다 (6개 플랑:1-6)		호텔에서 수정을 기다림.	III부 매달린 이불카 (9개 플랑: 72-80)		호텔로 가던 수정이 멈춘 케이블카에 갇힘.
II부 어쩌면 우연 (63개 플랑: 8-70)	1	-영수를 통해 수정을 만남. -술 먹고 식당에서 토함	IV부 어쩌면 의도 (43개 플랑: 82-130)	1	-영수를 통해 재혼을 만남. -영수가 속이 안 좋아 화 장실에 감. -오빠가 자위행위를 해 달라고 함
	2	-경복궁에서 수정과 우연한 만남. 수정이 잃어버린 장 갑을 찾아줌. -골목에서 수정에게 강제 키스 후 수정이 사귄 의사 가 없다고 함.		2	-촬영을 위해 경복궁에 왔다가 재혼을 만나 그 가 잃은 장갑을 찾아 줌. -술집에서 재혼이 웃어달 라고 요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에게 카메라를 빌려줌. -영수에게 탁구를 이김. -영수가 박기사와 다투고 화해한 이야기를 함. -수정과 재회. 수정은 술 마실 때만 애인이 되겠다고 함. -수정과 공원에서 키스. 수정이 좋았다고 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와 키스. 키스경험 이야기. -편집실로 재훈의 방문. -영수가 박기사에게 뽀뽀를 맞음 -재훈과 택스를 같이 탐. -재훈과 공원에서 키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훈의 차로 이동 중 수정이 어려서는 부유했다고 함. -자기 방에서 수정과 성관계를 시도. 수정의 거부와 처녀임을 밝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훈과 키스 중에 스폰 떨어짐. -재훈의 성관계 제안에 제주도 가기로 약속. -오빠가 그림을 그림. -영수가 재훈과 사귀냐고 물어봄. -영수와 호텔 입장. 본인의 거부로 성관계는 없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과 키스 중에 포크 떨어뜨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훈 선배의 집에서 재회. 재훈과 정아가 키스하는 것을 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 친구들을 만남. -선배집 술자리에 영수와 수정 등장. 영수가 수정에게 술을 강요함. -공원에서 영수가 잃어버린 카메라 때문에 화를 냄. 수정과 갈등이 일어나고, 수정은 절교를 선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에서 재훈과 재회. -호텔에서 애무 중에 재훈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름(정아). -갈등과 화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복궁에서 수정에게 전화 -안산에서 수정과 재회. -호텔에 가지만 생리를 이유로 성관계는 다음으로 약속. -제주도 가기로 약속.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로 재훈의 전화. 다음 날 우이동 호텔에 만나기로 약속.

V부 짜만 찾으면 만사형통 (9개 플랑: 132-140)	멈추었던 케이블카가 다시 운행. 재훈과 수정이 성관계에 성공. 수정의 처녀성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재훈과 역시 이를 기뻐하는 수정.
--	---

[표 1] <오! 수정>의 시퀀스²³⁾

위의 [표1]을 보면 <오! 수정>은 형식상 V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의 차원에서 보면, I부와 II부 그리고 III부와 IV부를 하나로 묶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부는 재훈의 기억으로, III-IV부는 수정의 기억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빈도(fréquence)²⁴⁾의 관점에서 보면, I-II부와 III-IV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억의 재생으로, 반복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반복은 서로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동일 반복이 아니라, 대칭의 형식은 유지되면서 차이가 드러나는 반복이다. 아래 [표2]는 II부-1과 IV부-1의 후반부인데, 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반복 속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23)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오! 수정>, 『한국 시나리오 선집』 제 18권, 집문당, 2001.

24) 빈도(fréquence)란 주네트가 시간의 범주에 나타나는 세 가지 양태, 순서(ordre), 지속(durée), 빈도 중의 하나이다. 주네트는 빈도를 “서술체와 이야기 사이의 빈도(혹은 더 간단히 반복)관계,”로 정의 하고, 즉 한 서술체 속에는 동일한 (이야기의) 사건이 반복 되거나 되돌아와 서술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술적 빈도란 이때의 서술체와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다고 했다. 이처럼 “(이야기의) 서술된 사건들의 반복 가능성과 (서술체의) 서술적 언술들의 반복 가능성”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네 종류의 잠재적 유형을 추출해 냈다. (1)단일 서술체(récit singulatif = 1R/1H) : 한 번 일어났던 것을 한 번 서술 (2)조용적 단일 서술체(récit singulatif anaphorique = nR/nH) : n 번 일어났던 것을 n 번 서술 (3)반복 서술체(récit répétitif = nR/1H) : 한 번 일어난 것을 여러 번 서술 (4)유추반복 서술체(récit itératif = 1R/nH) : n 번 일어났던 것을 한 번 (또는 한꺼번에) 서술. Gerard Genette, *Figure III*, Editions du Seuil, Paris, 1972, pp.145-147을 보시오.

10. 그로리치 화랑 앞(낮)	85. 그로리치 화랑 앞(낮)
<p>[영수와 수정의 대화-생략함] <i>이때 재훈이 화랑에서 나온다.</i> 영수 응 재훈 갈까요? 영수 얼루 갈까? 재훈 점심 먹죠? 영수 우리 점심 먹었나? 수정 아까 하신 거 아녀요. 재훈 점심 먹은 것도 기억 못 하세요? 영수 하여튼 뭐든 하자. 재훈 네, 이리로 가죠. <i>세 사람 화랑 앞을 떠나서 청와대 쪽 으로 걸어간다.</i></p>	<p>[영수와 수정의 대화-생략함] <i>재훈이 문을 열고 나온다.</i> 재훈 기다렸죠? 영수 어. <i>재훈의 운전수가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재훈 운전수에게 다가간다.</i> 재훈 김기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 이 근처에서 식사하고 갈 거거든요. 운전수 아이, 괜찮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기다리죠, 뭐. 재훈 그러실래요. (<i>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켄넬매</i>) 식사하고 계세요. 운전수 아, 네. 재훈 갈까요? 영수 그래 재훈 이쪽으로 가죠. <i>재훈을 따라가는 영수와 수정</i></p>

[표 2] II부-1 후반부 vs IV부-1 후반부

반복된 두 시퀀스가 보여주는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재훈과 수정이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관심의 차이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차이를 나타낸다. II부-1에는 없는 재훈과 운전수와의 대화가 IV부-1에는 있는데, 이 장면을 수정은 눈 한번 떼지 않고 바라본다. [사진1] 재훈의 재력이 수정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인지한 관객은 IV부-2에서 수정이가 재훈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복궁에서 촬영을 하자고 주장했다고 상상하게 된다. 이런 상상은 이 장면이 도입부에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 인물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여 후반부로 진행하면서 더욱 강화되는데, 일종의 자막서술인 IV부의 제목 <어쩌면 의도>와 결합하여, 수정이의 재훈에 대한 관심이 재훈의 재력 때문이라고 믿게 한다.



[사진 1]

다시 위의 [표1]을 보면 반복의 구조 내에서 두 인물의 기억에 의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훈의 기억으로는 경복궁에서 수정을 우연히 만나고 또 수정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장갑을 우연히 되찾으며, 수정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정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고, 수정의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이 없다(II부-2 vs IV부-2).

*재훈은 수정이 술 마실 때만 애인이 되겠다고 한 것과 수정과 공원에서 키스할 때, 수정이 좋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수정은 택시를 같이 탄 것과 공원에서 재훈과 키스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II부-3 vs IV부-3).

*영수와 박기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훈의 기억(이 부분은 재훈의 사실 기억이 아니라, 재훈이 영수에게 들은 이야기와 전화내용을 토대로 상상해낸 기억임)과 수정의 기억이 많이 다르다. 재훈은 영수가 사과함으로써 박기사와 화해했고, 수정은 영수가 박기사에게 뺨을 맞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II-3 vs IV-3).

*재훈의 기억에는 수정이 처녀임을 밝힌 부분이 있지만(II-4) 수정의

기억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재훈과 수정은 키스 중에 떨어뜨린 물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II부-5 vs IV부-4).

*재훈은 선배집에서 영수의 수정에 대한 태도가 지배적이었고, 공원에서 영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그로 인해 수정이 화를 내고 절교를 선언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정은 재훈이 다른 여자와 키스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선배집을 나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재훈이 애무 도중에 다른 여자의 이름(정아)을 불렀기 때문에 화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II부-6 vs IV부-5, 6)

*그리고 안산의 호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가 실패한 이유를 재훈은 수정의 생리 때문으로 기억하고, 수정은 재훈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으로 기억한다(II부-7 vs IV부-6).

2. 반복과 차이의 의미화와 아이러니

차이를 동반한 반복은 이렇게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고 그래서 인물들의 의식에 포착되기 어렵다. 때문에 실제로 인물들은 차이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들은 관객의 차원에서 인식되는데, 반복된 그러나 각각 독립적인 두 시퀀스를 디에제스 안이 아니라 디에제스 밖에서 비교해 볼 때, 비로소 인식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 차이들은 디에제스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론적 특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에제스가 관객에게 제시되는 방식에 의해서, 즉 메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식되는 것이다. 여하튼 인물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차이들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 관객은 이 차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추출해낸다.

1) 우선 차이들은 사소한 것들이어서 관객들도 쉽게 구별해 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차이들은 관객에게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의 자유를 제

공한다. 여기에서 자유란 관객이 의식적 수준에서 주체적으로 정보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수준에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마음대로 정보를 취한다는 것을 말한다. 관객이 인물들의 성격이나 관계 또는 작품이 보여주는 디에제스를 이해한다고 믿는 것은, 관객이 이렇게 거의 자동기술적(*autodescription*) 방식으로 인물들의 세계, 즉 리얼리티(*réalité*)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관객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두 인물의 속물적 근성을 보게 되고 또한 작품의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런데 관객이 무의식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의식적 수준에서 차이들을 하나하나 되 집어 보면, 어떤 인물의 기억이 옳고 어떤 인물의 기억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관객은 분명히 재훈의 기억인 II부를 먼저 보고나서 그 다음에 수정의 기억인 IV부를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차이들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을 택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정보를 택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만남에서 재훈이 수정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는지 아닌지, 영수가 사과함으로써 박기사와 화해했는지 아니면 박기사에게 뺨을 맞았는지, 재훈과 수정이 키스할 때 떨어뜨린 것이 스푼인지 포크인지, 재훈이 수정을 애무하는 중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닌지, 이 둘의 만남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3) 이런 혼란은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았다고 믿고 이해했다고 믿은 것, 지식들, 그들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의심하게 하고, 확신을 흔들고, 붕괴시켜 버린다. 차이는 분명히 의미를 생산해내고 그래서 이 차이로부터 재훈과 수정의 행동양식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확대되고 재생산 된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지향하는 것은 인물들 사이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누구의 기억이 옳은지에 보다는 차이 그 자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다. 관객은 이 깨달음으로 부터, 차이의 유희 속에

서 우왕좌왕하기를 멈추고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을 버리고 믿음을 무효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차이 자체가 <오! 수정>의 아이러니, 반-남성중심주의를 이끌어 온다.

그러면 이제 반복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반복은 반복된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조법의 하나이다. 강조법의 전제는 뉴튼 역학적 시간관에 입각하여 모든 사건과 생성을 1회적이라는 것, 즉 반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전통적 글쓰기 또는 규범적 글쓰기에는 반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복이란 일종의 잉여 또는 과잉이고 일탈적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탈이 관여적(pertinent)이라면, 즉 반복이 청자나 관객의 이목을 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전달한다면, 수사학적 가치로서 반복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성(informativité)의 관점에서 보면, 반복은 내용이 상실된 메시지, 다른 말로 기호나 표시가 더 이상 의미론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텅 빈 내용의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정보성이란 “대화의 상대방이 개연적으로 이미 아는 것 또는 당연히 아는 것이 아닌 것”²⁵⁾을 말하는데, 반복은 이미 정보가 전달된 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복이 금지되는 것은 일회성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정보성의 법칙에 의하여 금지”²⁶⁾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술만이 유일하게 정보성을 간직하고 있고, 반복된 언술은 내용 없는 텅 빈 메시지이고 첫 번째 언술의 단순한 “되풀이”에 불과하다.

25) Godon et Lakoff, “Postulat de conversation”, p.41,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implicite*, Paris, Armand colin, 1986, p.207에서 재인용.

26) Catherine Kerbrat-Orecchioni, *ibid.*, p.209. 정보성의 법칙(loi d'informativité)은 케르브라-오레키오니가 분류한 담화의 특수법칙 중의 하나이다. 그녀는 그라이스의 <대화의 격률>을, 일반적인 담화원칙(협동coopération, 성실성sincérité, 관여성pertinence)과 예절원칙(principe de politesse)과 특수법칙(정보성informativité, 총망라성exhaustivité, 간결성modalité)으로 재분류하였다. *ibid.*, pp.204-206과 참고 「화용론과 극텍스트의 대화분석」, in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 1998, 제10호, 216-218쪽을 보시오.

따라서 반복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행된 언술이 부정되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선행하는 언술은 잘 못된 언술이고, 반복된 새 언술만 옳은 언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즉 이때의 반복은 결국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가당착과 같다. 즉 언술이 부정되고 다시 같은 언술이 반복되고 또 부정되고 다시 반복되고 부정되고 ... 가 반복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한 언술이 남는 것이 아니라, 동일자에 의한 동일자의 부정이 반복됨으로 인해, ‘부정’ 그 자체가 남게 된다. <오! 수정>에서 보인 반복의 구조는, 디에제스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전제내용에 해당하는 남성중심주의, 그 견고함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영화의 아이러니 미학이다.

V. 나가는 글

<오! 수정>은 디에제스의 내용만 놓고 보면 남성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영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내용의 측면이 아니라 디에제스를 제시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남성중심주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전복시키려는 영화임을 알 수 있다.

<오! 수정>의 남성중심주의는 의미의 초점이 전제내용, /*재혼은 부자*이고 수정은 순종적이며 *처녀이다*에 맞추어질 때 발생한다. 전제내용은 불어의 ‘On’에 해당하는 ‘나’가 포함된 집단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 집단의 가치를 대변하고 이 가치를 강요하는 모든 논리와 억견(doxa)은 이 전제내용에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오! 수정>이 남성중심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것을 전복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영화가 바로 이 전제내용을 아이러니화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제내용의 아이러니는 언술 자체가 부정될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전제내용의 부정은 언술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언술 자체가 부정되고 무효화될 때, 전제내용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 수정>의 반-남성중심주의, 즉 <오! 수정>의 전제내용에

대한 아이러니는 /재훈과 수정이 연인관계가 되었다가 무효화될 때 비로소 작용한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언술 안에, 이 언술이 아이러니로 해석된다는 표시나 단서가 없다.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언술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아무런 왜곡이나 변형이 없는 투명한 인 아브센티아(in absentia)의 언술이다. 따라서 언술을 아이러니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언술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언술의 밖에서 들어오는 목소리에 의해서 이다. <오! 수정>의 경우, 디에제스를 구축하는 방식과 디에제스를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아이러니화를 요청하는 외부의 목소리이다. 영화의 디에제스가 화자의 지식과 시각 및 청각의 정보들로 구축된다고 볼 때, 초점화나 시각화와 청각화의 문제들이 외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영화의 디에제스는 일회적인 방법 또는 반복의 방법, 연대기적 방법 또는 비연대기적 방법에 의하여 제시된다고 볼 때, 반복의 문제나 순서의 문제 그리고 플롯의 문제들이 외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 수정>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차이의 구조에 주목하고, 반복과 차이의 양상과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이러니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영화는 재훈의 기억과 수정의 기억이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반복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복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 관객은 차이가 주는 정보를 통해 자유롭게 영화의 디에제스에 대한 이해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결과는 /재훈은 부자이고 수정은 순정적이며 처녀이다로 요약된다. 그런데 영화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즉시 누구의 기억이 옳은지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혼란으로부터 관객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의 이해와 지식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한편 반복의 구조는, 전통수사학의 강조 효과와 달리 오히려 동일자를 부정하는 무한반복의 논리에 의하여 디에제스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과가 창출된다. <오! 수정>은 반복과 차이라는 디에제스의 제시방법을 통해서 디에

제스 자체를 무효화하고, 그 결과 디에제스가 보여주었던 남성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아이러니화하는 영화이다.

참고문헌

- 서명수, 「화용론과 극텍스트의 대화분석」,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 1998, 203-233쪽.
- _____, 「영화콘텐츠에서 등장인물에 관한 연구」, 『다문화 콘텐츠 연구』 제 15집, 인문콘텐츠 연구소, 2013, 365-394쪽.
-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한국 시나리오 선집』 제18권, 집문당, 2001.
- Gaudreault, André et Jost, François 저, 송지연 옮김, 『영화서술학 (*Le récit cinématographique*)』, 동문선, 2001.
- Cosnier & Bronssard, *La communication non verbale*, Paris, Delachaux et Niestlé, 1984.
- Ducrot, Oswald, *Le dire et le dit*,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84.
- Genette, Gerard, *Figure III*, Editions du Seuil, Paris, 1972.
- GOFFMAN, E., *La mise en scène de la vie quotidienne : 1. la présentation de soi*,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73.
- Grice, Paul, “Logique et conversation”, in *Communication 30*, Paris, Seuil, 1979.
- Kerbrat-Orecchioni, Catherine, “Problème de l’ironie”, in *L’ironie*, 2è édition, Lyon, Presse Universitaire de Lyon, 1978.
- _____, “L’ironie come trope”, *Poétique*, N°41, 1980, pp.108-127.
- _____, *L’implicite*, Armand Colin, 1986.
- _____, *Les interaction verbale tome II*, Paris, Armand Colin, 1992.
- Souriau, Etienne, *Vocabulaire de l’esthétique*, publié sous la direction de Anne Souriau, Paris, PUF, 1990.
- Todorov, Tzvetan, “les catégories du récit littéraire”, in *Communication 8*, Paris, Seuil, 1966.

The aesthetics of irony in repetition and the difference of *Oh! Soojung*

Suh, MyungSoo

In terms of the story told, we see that *Oh! Soojung*(Virgin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is a film of the ideology of masculinity.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anner of presenting story, *Oh! Soojung* is a film that aims to devalue this ideology. How will it be possible? This is the principle of the irony that the speaker, by saying P, wants to make Q listen that devalues and contradicts P. Our study is tempted to expla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irony in the film .

The ideology of the film occurs when the presupposed contents have become the subject. For example *Cendrion* who tells a story of a girl married to a prince presupposes that the girl, Cendrion, is obedient. The subject of this story is that the presupposition: */the girls who want to be happy must be obedient/*, which represents the ideology of masculinity. Presupposed content thus imposes on the public a collective and conservative value, as its enunciator belongs to the collective voice. Since ironisation occurs when the utterance itself is annulled, one must also deny or cancel the story told of *Oh! Soojung*: */Jeahun who is rich and Soojung who is obedient and virgin have become lovers/*.

Since there is no semantic mark within the utterance, irony is a voice that comes from without; this is how we understand irony in a purely pragmatic way. The outer voices are two things: the way to build the story: question of focusing, ocularization and auricularization, and the way to present the story: question the order, the frequency or the plot.

Our study is focused on the question of frequency at *Oh! Soojung* which has a repetition structure in which the memory of Jeahun and that of Soojung are represented one after the other. Since the memories of two characters are not identical, the repetition is accompanied by differences.

The differences at first allow the public to build their own story from the diégèse of the film and then make the audience fall into confusion where we can not be certain of what we see and know in the diégèse of the film, and finally make their knowledge questionable. About repetition, so that it can have validity in terms of the informativeness of the utterance, it must deny the existence of the previous repetition. This is how repetition cancels itself and consequently the utterance. We see that the irony of *Oh! Soojung* occurs by repetition with differences that cancels the story of the film.

Keywords : ideology of masculinity, presupposed contents, irony, repetition, difference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칼 맑스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

선미라*

【 차 례 】

- I. 서언
- II.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
- III. 모달리떼와 상징성
- IV. 표층과 심층구조
- V. 결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양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전 연구위원. 이 논문은 2018 한국기호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폐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열쇠어 : 칼 맑스, 동학농민운동, 사발통문, 선언문, 개혁문, 모달리떼, 상징성, 기호학, 근대성

I. 서언

이 논문은 칼 하인리히 맑스의 선언문(이하 선언문으로 표기)과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이하 개혁문으로 표기)에 대한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¹⁾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²⁾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공시적 동시성에서 실천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텍스트로서의 선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 공시적 의미가 현대인의 행동철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통시적 관점으로 접목되어 상징성에서 그 공통의 텍스트성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독일어와 프랑스어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을 참조한다. 1847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입한 의인동맹(義人同盟, Bund der Gerechten)은 공산당 선언을 동맹의 정책문서로 채택하였다. 그 해 여름 조직은 재정비되었고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다시 태어났다.

2)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과 12개조 폐정 개혁안을 참조한다.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송준섭(宋俊燮)의 집 마루 밑에 70여년 동안 묻혀 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소에 보관되어 있다.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의 구조 속에서 회의주의나 교조주의가 되어서 인간 본연의 속성을 버리고, 파괴적 현상으로 고착되는 불합리성의 제도에 제동을 걸고, 그 달리는 광기의 수레바퀴를 빼어버리는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행동 철학자인 칼 맑스에게 있어서 기본이며 필수적인 일이었으며, 인류를 위한 과업으로 인식된다. 그 숙명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개혁해서 혁명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4단계 사회적 장치가 기호학에서 연구되는 모달리떼³⁾다. 칼 맑스의 인생 그 자체가 이런 연구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의 일상의 흔적들을 이 모달리떼의 기술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런 관계성에서 1800년대의 인본주의적 자연 사상운동이 유학생 자녀도 의사가 되고, 난민 출신도 소방관이 되고, 고아 출신도 장관이 되고, 노예 후손도 대통령이 되는 사회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배경을 잉태한 산파 역할을 했다고 볼 때 칼 맑스의 재조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점을 ⁴⁾ 가능하게 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런 해결 정책을 위해서도 이 논문의 고찰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텍스트 설정을 구성한다. 텍스트는 숫자를 첨부하여 모달리떼 구성에 따라 시퀀스 형태로 전개하는 방식을 존중한다. 이 논문에서 설정하는 공산 동맹 선언문은 텍스트로 재구성되며 독일어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논문 주제에 맞게 재구성된다. 동학농민군의 선언문은 폐정 개혁안과 홍범 14조 그리고 사발통문에 기술된 선언문을 기본 텍스트로 재구성하며, 순서는 논문 주제 전개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한다.

3)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모달리떼는 모드에 대한 4가지 단계의 완성된 행위 인식 언어이다. 이 양식은 정치 정책의 구조를 만드는 기본 틀이 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구조 설정에 있어서 밑그림의 도안같은 역할을 한다” 21~32 쪽 참조.

4) 강윤철 편역, 『피케티가 되살린 마르크스 자본론』, 스타북스, 2018, 20~25쪽, 39~52쪽, 94~112쪽, 200~219쪽 참조.

II.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텍스트로의 전환은 공산 동맹의 사상적 언어와 동학 농민군의 현실적 언어를 되살려보기 위한 시도이며, 언어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혁명적 힘을 기호학적 시퀀스로 재구성해 보고자 함이다.

텍스트 1은 공산 동맹 선언문으로 설정하며 원문 전체에서 논문 주제와 맞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하며 텍스트 1로 표기한다.

텍스트 1: 공산 동맹 선언문 :

- ① 토지의 국유화,
- ② 강도 높은 누진세,
- ③ 상속권 폐지,
- ④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 ⑤ 국가자본에 의한 국립은행 설립,
- ⑥ 운수기관의 국유화,
- ⑦ 농촌과 도시의 대립 제거,
- ⑧ 아동의 공장노동 폐지.

텍스트 2 :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

- ① 각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 ② 탐관오리의 그 죄목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엄징할 것,
- ③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징벌할 것,
- ⑤ 노비문서는 태워버릴 것,
- ⑥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씌우는 평양笠(平壤笠)을 벗게 할 것,

- ⑦ 청춘 과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 ⑧ 무명잡세는 모두 폐지할 것,
- ⑨ 관리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 위주로 할 것,
- ⑩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 ⑪ 공사채를 막론하고 지난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 ⑫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등이다.

텍스트 3 : 사발통문 : “낯네낯서 난리(亂離)가낯서”

- ① 고부성을 부수고 군수 조병갑을 죽일 것
- ②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③ 군수에게 아부해 백성에게 탐학한 벼슬아치를 징치할 것
- ④ 전주성의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

텍스트 4 : 하나의 유명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명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부르주아지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지불'이외에 인간들 사이
 에 다른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 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가족관계 조차 감상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순전히 금전
 관계로 만들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일 뿐이다"

"부르주아지가 봉건제를 무너뜨릴때 사용했던 무기가 이제 그 자신을 겨
 누게 되었다. 그 무기를 휘두를 노동자 계급을 낳았다"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도 성

장한다"

"노동자는 분업과 기계화로 말미암아 이제 단순한 도구나 부품이 되었고
매시간 감독하는 관리자, 사용자, 부르주아, 그리고 그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없는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세력으로 만든다. 이리
하여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양성해 낸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소유(관계)를 폐지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처음이 아니다. 프
랑스혁명에서 부르주아지는 봉건적 소유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리
고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독점했다. 해서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박탈
한 것은 부르주아지이다. 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은 노동하고도 소유하지
못했고 부르주아지는 노동 않고 소유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누구에게도 생산물을 취득할 힘을 빼앗지 않으며 다만 이런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힘을 박탈 할 뿐이다"
"한 시대의 지배사상은 늘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 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 한다"

"프로레타리아가 잃은 것이라곤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텍스트 5 : 홍범14조

텍스트 3의 영향은 이 텍스트 5로 표출된다. 텍스트 2의 효과로 이어

지는 텍스트 3의 본질은 농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과 화약과 관리와 지배에 대한 모달리떼 시퀀스가 텍스트 3에 적혀있다. 만석보의 자연적인 삶의 현상에 대해 조병갑은 수탈과 착취의 계략으로 농민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략시켰고 이 텍스트는 이 전략사건에 대한 대항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공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자연적인 학대는 권력의 최 정점인 관리와 그 지배자인 왕권에까지 인식의 폭이 넓혀짐으로서 농민들의 정체성이 복종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주적인 삶에 있음을 적고 있다. 이런 사상적 흐름에서 고종은 홍범 14조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통치 규칙서로 오늘날 헌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혁문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적고 있고, 홍범문은 권력유지의 입장에서 통치 목적으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그 차이를 모달리떼 양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제2조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 제8조 왕실은 술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III. 모달리페와 상징성

1. 모달리페는 근대성을 논하는 실천철학적 담론에서 양상이나 양태라는 1차적 의미의 문법적 틀에서 그 의미가 확대된 개념 중의 하나다. 개인이나 직업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단체나 공공 혹은 사회시스템을 요구하는 근대적 상황에 직면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서 이 문법적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영역과 범위가 개인이나 특정 계층에서 단체나 공공의 전분야로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개념 확장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 모달리페 개념 또한 그 영역과 범주에서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 확장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 이런 근대성을 바탕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달리페는 4가지 단계에 의한 관계성으로 설정하며 이 설정된 요소들은 상징성을 통해서 그 의미와 관계를 갖게 된다. 모달리페는 4종류가 있다. 4가지 모달리페⁵⁾는 의지와 앎의 단계 그리고 능력과 의무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이 단계별 상호 관계성이 어떻게 선언문과 개혁문에서 그 상징성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먼저 자유의지의 양상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어떤 모달리페로 그 상징성을 내포

5)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I*, Klincksieck, 1985 참조.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한 현상은 칼 맑스 전 생애를 포함한 생활의 모습이 이 논문의 텍스트로 재해석되며 그의 삶의 선언문적인 철학적 태도가 그 해석의 지침이 된다.

자유의지의 모달리떼

텍스트 1에서 시공간적인 변동사항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공간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노동의 현장에 투입되는 실상에서 칼 맑스는 위기의 의식을 적고 있다. 1일 2회 교회로 출근하던 사회 모습이 거대한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 현장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마치 인간성 상실의 행렬처럼 묘사하고 있다. 아침햇살은 다른 영역의 것이며, 자유로운 사고는 사치가 되어가는 일상이 선언문에서는 삶의 최악의 과정으로 긴박하게 나타난다. 자본의 독점과 소유권의 확대 그러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어린아이의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희망이 무너지는 사회현상을 관찰하면서 칼 맑스는 자신의 일상을 대비해본다. 5년 동안에 3명의 자녀를 잃고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예나를 보면서 칼 맑스는 자신의 가정이 사회의 현실임을 동일시한다. 그의 시공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다. 그의 공시적 역사관은 이런 공간 일치를 통해 통시적이며 심층적 구조를 구축하는 자연스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 그는 이런 자신의 사회적 일치감이 된 구조에서 자본의 폐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부수어야 할 필연적 숙명임을 확신한다. 이런 일치성에서 그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것이 의지 모달리떼로 선언문이 전 세계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구미대륙까지 번지고 있는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개혁문의 ‘의지 모달리떼’⁶⁾ 역시 개인의 문제와 사회문제가 동일시 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봉

6)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21-32쪽.

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의 농민의 문제이며 친구들의 문제와 관계되어 사회적 문제로 작동하며 이러한 현상은 수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점에 대한 고찰이다. 전봉준이 봉기를 한 것은 옆집 친구의 하소연에서 비롯됨을 볼 때에 자신의 문제가 사회문제와 동일시 되는 현상은 인류애적 정신으로 박애사상의 근본으로 설명된다. “낫네 낫서 난리(亂離)가 낫서”⁷⁾ 이런 동일시 현상의 작동에서 동학농민군의 ‘의지 모달리떼’는 사회정의 확립으로 뻗어나가는 통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선언문과 개혁문에 표출된 ‘의지 모달리떼’는 다음의 행동 강령을 하게 된다. 사회부조리에 대한 강한 인지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마음속의 언어로부터 그 첫 번째 인지가 이루어지고, 이 인지된 의식은 그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탐구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기호학에서는 이 다음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앎의 모달리떼’⁸⁾로 규정하며 4단계 중에서 그 두 번째 실행단계로 매우 중요한 역할로 본다.

앎의 모달리떼

텍스트 1과 2에 대한 의지 모달리떼가 그 형태를 갖추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두 번째 양상인 앎에 대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신의 부당한 의지에 대한 항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호학에서는 이 과정을 ‘앎의 모달리떼’⁹⁾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언문과 개혁문에 대한 소외계층의 본질적 문제 제시가 사회 현상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 두 선언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권력과 착취에 있음을 적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제거를 적시하고 있다. 대화나 하소연 혹은 읍소 형태의 자세로는 적재된 사회 문제 해결의 발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지 현상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7)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 국가기록소 보관.

8)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 et II*, Klincksieck 참조.

9) *Idem*.

회합과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상호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이 ‘삶의 모달리떼’ 인식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런 두 번째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의 양상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의 국유화, 강도 높은 누진세, 상속권 폐지,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국가자본에 의한 국립은행 설립, 운수기관의 국유화, 농촌과 도시의 대립 제거, 아동의 공장노동 폐지 등과 같은 사회적 적폐가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본가의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 칼 맑스는 모달리떼 행동 강령으로 그 중심점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의식의 의지는 형성이 되고, 이 인지 현상을 행동화하려는 과정이 모달리떼 인지 과정인데 선언문은 바로 이러한 실천의 기술을 정확하게 제공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고부성을 부수고 군수 조병갑을 죽일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해 백성에게 탐학한 벼슬아치를 징벌할 것, 전주성의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를 실행할 계획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능력이 생성되는 과정을 개혁문에 적고 있다. 선언문과 개혁문은 각각의 의지와 그 의지의 실행적 지식을 축적한 다음에 다음 단계의 행동을 준비하게 된다. 그것은 ‘능력의 모달리떼’다.

능력의 모달리떼

이것은 능력발휘와 행함의 모달리떼로 혁명적 성격의 지침에 있어서 기본이며 필수적인 항목으로 연구되는 부분이다. 모달리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이제는 행동단계에서 그 힘을 갖추는 과정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을 적시하는 것이다. 텍스트 1과 2에 적시된 선언 내용은 이론적 발전을 요구하는 단순 알림장이 아니다. 시작은 개인의 목숨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의 삶의 양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고 준비해야 하는 모달리떼다. “낫네 낫서 난리(亂離)가 낫서” 이 시퀀스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난리의 형태에 대해 조명해 볼 수가 있다. 난리에 대해 칼 맑스는 선언문으로 대항을 하고 자신의 삶으로 방패막이를 삼는다. 그의 능력은 저항하는 능력이다. 항거하고 대항하고 그 부조리위에서 전진하는 방식이 칼 맑스의 ‘능력 모달리떼’다.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불행이 자신의 힘이 되고 이 힘 속에 노동자와 농민의 가치를 심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노동자 농민의 의지가 썩어지고 그 썩은 나무에서 과실이 반드시 열릴 것을 그는 인류애적 사랑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런 힘이 그를 죽을 때까지 무국적자로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며 그 선언을 살아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텍스트 1과 2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모달리떼까지 완성한 인간 의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것은 ‘의무의 모달리떼’로 실행의 최종 단계이다.

사회환원과 의무이행의 모달리떼

사회 고통을 해결함으로서 만민에게 고통보다는 슬픔을, 착취보다는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의지는 그 실천을 요구한다.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없는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세력으로 만든다. 이리하여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양성해 낸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가 잃은 것이라곤 쇠시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 텍스트에서 선언문은 자신의 언어로 모달리떼를 완성시키고 있다.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지할 것과 그 인지의 행동자가 되어서 혁명을 완수하는 자연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 한다”.

개혁문의 완성도 바로 이 문서에서 제시하듯이 동학농민군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서 모달리떼 행위 모델을 완성하는 양상을 갖춘다.

2. 선언문의 상징성에서는 고용과 임금 그리고 명령과 감시, 난민 칼 맑스와 피고 전봉준, 53개 집강소와 38개 분리된 독일 통일, 11명의 장례식과 사회민주주의, 직조봉기와 기근봉기라는 기호학적 이조토피의 요소를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표층구조와 심층구조의 범주에서 살펴본다.

IV. 표층과 심층구조 : 계약과 임금 : 명령과 감시

봉건시대의 표층구조는 왕과 영주 귀족과 평민과 노예다. 자본시대의 표층구조는 고용주와 고용사장이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이러한 계층구별은 표층과 심층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의사 결정권의 유무에 따라서 기호학에서 구별되는 주체와 대상의 항목은 표층의 시대임을 이런 분류항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여전히 그대로 대상으로 다시 전략한다. 노동자는 일한 만큼 그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자유스런 노동계약이 환상적으로 보인다. 칼 맑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표층의 문제로 본다. 오히려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부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무산층은 자신의 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표층적 구조에 대해 큰 저항을 표현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더 환상적으로 사장이라는 고용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는 이 환상에 희망을 걸게 되기도 한다. 공장과 회사라는 도시의 산물들이 제시되고, 토지를 버리고 도시의 빈민이 되어 고용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는 자신의 사상도 잊어버리게 된다. 고향이 멀어지고 마침내는 돌아갈 곳이 없는 우주의 미아같은 심정을 각인하게 되는데, 착취된 노동력 만큼이나 존재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게 된다. 감시와 명령의 체제가 구축된 노동계약의 시장에서 자본가는 명령의 권위를 가지게 되며, 노동자의 의지는 복종하는 미덕으로 미화되어 최고의 자본가 시스템에 완전히 귀속된다. 이것이 칼 맑스가 고발하고자 하는 자본의 심층구조다. 봉건시대의 표층적 구조가 그대로 자본시대의 구조로 그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그 어떤 계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심층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칼 맑스를 평생동안 난민으로 살다가 난민으로 죽게 하는 투쟁의 과정으로 기술하게 한다.

난민 칼 맑스와 피고 전봉준

이 두 사람의 상징성은 오늘날 민주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동서양의 공시적 사회적 모순이 선언문과 개혁문을 통해 통시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는 그 실천 강령이 선언문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정책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시민들에 의해 재정립되고 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 상징이며 인류의 기호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난민 칼 맑스의 철학관은 ‘나는 모반자가 아니라 철학자’이다. 독일 난민인 그는 우주의 난민으로 남기를 자청했다. 그것이 그의 선언문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했고 실천했고 그것을 남겼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 전봉준의 개혁문도 그 반열에 있다. 인류의 사상이 동일시 되는 현상으로 노동자 농민 뿐 만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향을

시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주 유익한 자본서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두 선언문과 개혁문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은 UNESCO 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다. 역사의 피고 전봉준의 발자취의 상징성이 비단 조선인의 역사를 넘어 전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임을 증거하는 문언이다. 그의 언어는 이미 개혁문과 사발통문을 통해 적고 있으며 또 다른 그의 언어는 그를 심판하고 사형을 처한 재판관의 언어를 통해 심층구조로 남아있다. 실상과 허상. 표층과 심층은 우리사회의 등불이다. 재판 전문 전체를 그대로 소개함으로서 동학농민군의 언어를 이 논문에서 재검토 한다. 피고 전봉준 : 제37호[第三十七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전봉준(全琫準).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전봉준(全琫準). 나이 41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한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해보았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이고 접주(接主)로 불린다. (...) ...그 다음해 11~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잡혀 옥(獄)에 갇히게 되었다. (...)...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피고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렀는데, 피고들이 27조목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려주기를 청원하기를,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을 늘이지 말 것, 보부상(裸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道內)의 환전(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國權)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관장(官長),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境內)에서 장사(葬事)를 치루거나 전답(田畓)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보세(漕稅)와 궁답(宮畜)은 시행하지 말 것, 각 읍(邑)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투장(偷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였다. (...)... 피고가 일본군을 더 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그 사이 피고의 포(包)중에서 〈병사들이〉 점점 도망가고 흩어져서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다. (...). 그래서 상인(商人)처럼 하고 혼자 상경(上京)하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 때에 민병(民兵)에게 잡힌 것이었다.

위에 적은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한 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慶善) 등이 자백한 공초(供招) 및 압수한 증거 문서에 분명하다. 그 행위는 대전 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29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¹⁰⁾

이 외에도 53개 집강소와 38개 분리된 독일 통일과 11명의 장례식과 사회민주주의의 현실화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

10) 「형사재판원본(刑事裁判原本)」 국가기록소.

서 자유로워지고 자연인의 삶을 강조하는 칼 맑스는 죽을 때까지 난민으로 삶의 모달리떼를 실천했다. “아침에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가축을 돌보며 식사 후에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삶의 일상을 비평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틀을 스스로 존중하며 제도화 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봉건 군주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단결하는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선언문에서 행동강령으로 나타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침대와 식탁 정원 거리 광장 모든 공간은 그에게 투쟁의 대상이다. 이런 대상들이 사회적 가치를 향해 상징이 되고 그 상징이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직조봉기와 기근봉기의 재봉사인 빌헬름 바이틀링은 “무지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¹¹⁾고 강조한다. 칼 맑스도 진정한 귀족은 교양이라고 강조한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는 이제는 소득과 분배의 문제로 이분화 되어서 여전히 유령처럼 인류 사회를 떠돌고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표층구조가 기표처럼 난무하여 사회 구조를 고정시키며, 노동자의 자유는 심층구조에서 잠들고 있는 현상이다. 마치 신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미화했던 칼 맑스 시대의 사회에서 5년 동안에 3명의 자녀를 잃은 참담한 철학자 칼 맑스 생애의 모습이 그대로 현대 사회에도 진행되고 있다. 칼 맑스의 자본론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지금도 칼 맑스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도의 배고픔에 대한 사회적 출구를 공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요당했던 40년 동안의 굶주림을 칼 맑스는 민주주의로 채워나갔듯이 최고의 자본은 바로 자유이고 그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라 사람, 노동하는 자연인임을 대항적 요소로 제시하는 에너지가 요구되는데 이것

11) K. Mark, 『포케티가 되살린 마르크스 자본론-19세기 경제학의 혁명적 이론과 통찰력』, 스타북스, 2018, 6~8 쪽, 225~260쪽, 86~88쪽, 212~219쪽, 100~107쪽 참조.

이 바로 모달리테의 인식으로 오늘날 불합리한 사회구조에서 자본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장에서 실을 뽑아내듯 이윤을 얻어내는 자본가의 실상을 엥겔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방식 공장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이런 현상에 대해 선언문에서 타파해야 할 멸종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은 삶의 윤택을 위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으로서 박멸의 대상이었고 선언문을 발표한 목적 또한 이 모순적 대상들의 영구 추방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철학가이며 혁명가이면서 자유인이고 그러면서 민주시민이며 망명가와 저술가였던 칼 맑스의 삶은 모달리테의 완성 바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며, 동학 농민군의 대장 전봉준과 전 세계 노동자의 대장 칼 맑스의 자유인으로서의 민주 사회주의에 대한 선언문의 사상은 모달리테의 강령으로 계속 연구 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최시형에게 사형을 내린 재판관은 조병갑이다. 그는 고부군수였으며 동학 농민군의 수탈 주체였다. 전봉준을 밀고하고 사로잡은 자는 그의 친구이며 동료 농민들이다. 교조주의와 회의주의가 만연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현상금이라는 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반인륜적 폐륜행위가 자본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런 밀고가 정당화 되는 역사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 맑스 뿐 만 아니라 훨씬 후대 사람인

뿔 리콥르¹²⁾도 역시 이런 살인적 제도에 대해 현대에 까지 자행되고 있는 그 폐단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에게 주어진 시공에서의 현상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어느 선에서 이 규칙을 반칙으로 바꾸고, 억압과 통제로 감시체제를 구축하면, 이 자연 규칙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구조이다. 이 구조의 틀을 칼 맑스와 동학 농민군은 부당하게 여겼으며, 없애야 할 필연적인 항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부르조아는 이 억압의 틀을 자본으로 구축하고 노동을 만들어 내며, 프로레타리아는 그 노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본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두 선언문은 고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칼 맑스의 사상은 독일 계몽 철학과 프랑스 민주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영국 정치경제학이 유물론적 변증법과 합류함으로써 사회개혁은 물론, 정책 시스템 구축까지도 가능했으며, 그가 주장하는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적 원리로서 근대 사회 이론의 주춧돌로 우뚝선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의 체계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언문과 개혁문은 단순 지침서를 넘어서 행동강령과 그 실행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모달리떼 완성의 문언이다. 각 단계별 모달리떼는 그 의지와 실행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징성을 가지며, 이 상징성은 현재는 물론 내일의 정책까지도 알려주는 양상을 적고 있다. 이것이 이 두 선언문의 심층구조이며 통시적 관점을 현실화 하는 작업이 학문의 체계로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칼 맑스의 일생의 생활이 난민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인류의 마지막 난민이 되어 노동자 농민의 난민 같은 일상을 죽어서도 지키겠다! 는 칼 맑스의 철학은 오늘날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인류의 숙제로 본다.

12) 선미라 · 이봉지 외, 『뿔 리콥르, 삶의 의미들』, 동문선, 2003, 369-380쪽, 589-599쪽, 499-510쪽, 539-554쪽 652-659쪽 참조.

참고문헌

- 국가기록소, 「전봉준판결선언서(全琫準判決宣言書)」, 2018.
- _____, 「형사재판원본(刑事裁判原本)」, 2018.
- _____, 「고종·홍계훈(高宗·洪啓薰)의 문답사초(問答史草)」, 2018.
- 김용덕, 「격문을 통해서 본 전봉준의 혁명사상」, 『나라사랑』 15, 1974.
- 리콥르, 뵐 · 무니에, 임마누엘, 「인격주의 철학」, 『에스프리』, 1950, 12월
- _____, 「대학 만들기」, 『에스프리』, 1964, 5. 6월호
- _____, 『의지의 철』 1권, 1950.
- _____, 「젊은이들의 열망들」, 『신앙과 시대』 5호, 1971.
- 무니에, 임마누엘, 「인격주의 선언」, 전집 1권, 1936,
- _____, 「새로운 르네상스」, 『에스프리』 제1호, 1932, 10월.
-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1』, 봉봉2, 2017.
-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 선미라 · 이봉지 외, 『뵐 리콥르, 삶의 의미들』, 동문선, 2003.
- 조광한, 『전봉준과 동학혁명』, 살림터, 2014.
- 정부기록 보존소, 『동학관련 판결문집』, 충무처, 1994.
- 필리프, 앙드레, 길드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주의』, PUF, 1923.
- 한나 아렌트, 『정치적인 삶』, 갈리마르, 1974.
-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 klincksieck, 1984.
-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I, klincksieck, 1985.
- K. Mark, 『피케티가 되살린 마르크스 자본론-19세기 경제학의 혁명적 이론과 통찰력-』, 스타북스, 2018.

The modality and the symbol of the reform in donghak and the declaration in K. Marx

Sun, Mira

This article is a study of Karl Marx's manifesto and the reform in donghak for the modality and their symbolism. As a text,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declaration on the Communist Alliance and the reform program of the peasant Donghak were choose.

This Declaration and the Reformation are the works of philosophical practice discourse of the 1800s in this article, which unfolds paradigmatically, deriving its common symbolic meaning in the semiotic sense, and evolving ideologically towards a democracy free of property. In the end, these two historical incident which are published in the contemporary breath, constitute an accusation against a nonhuman policy of surveillance and punishment. Twice a day, the space of the church is transformed into a factory, the act of dividing into two categories by capitalist and work and divorcing by accident is embodied as a social ethic. It is against the phenomenon that the structure of which no man exists is no longer institutionalized.

The revolutionary movement aimed at breaking the framework of this hunt manifests itself in the two manifestos mentioned above, and Karl Marx completes the culmination of the utopia that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Communist Alliance by placing his being in the position of "eternal refugee". By choosing to die in his freedom developed during Jeon Bong-joon's trial, he also completes the people's spirit of revolution.

In the case of simultaneous exploitation in East and West, the form of oppression is the withdrawal of capital from domination and power, and a new alternative to this is the philosophical context tha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adigm with "man is the greatest capital".

Keywords : Karl Marx, Donghak peasant movement, A statement on a bowl,
Declaration of the reform. Modality, Semiotic, Symbol. Modernity, Jeon
bongjun, revolution. Coquet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누구를 위한 기념일인가?*

－ 기념일에 관한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

손성우** · 태지호***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기념일과 소파등받이점, 주체와 타자의 동일시 그리고 호명과 환상
- III. 근대성의 지점과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 IV. 기념일에 대한 구체적 논쟁 및 소급지점
 1. 광복, 해방, 독립으로서 8.15
 2. 한국전쟁 : 6.25전쟁인가 한국전쟁인가
 3. 3.1절 기념 : 근대적 기념 투쟁의 시작
 4. 임시정부 : ‘대한민국정부’의 기념 투쟁의 장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일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에 주목해 기념일에 관해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을 시도했다. 연구대상으로는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념 투쟁들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라캉과 알튀세르의 이론과 개념 등을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기념투쟁이 19세기말 진행된 근대화 초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제강점기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가 우리 사회에 외상과 균열을 뒀으며, 이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기호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입니다.

** 주저자, 부산대 영화연구소.

*** 교신저자, 안동대 사학과.

는 이데올로기 및 환상과 접합되어 사회적 갈등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 그것이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기념일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이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열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는, 균열을 메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열쇠어 : 기념일, 기념 투쟁, 근대화, 타자와 주체의 욕망, 라캉과 알튀세르, 기억

I. 들어가는 말

지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위도(緯度)의 0도 평행선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고정되었지만 경도(經度)의 0도 자오선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오락가락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4세기에 걸친 절망적인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었다. 영국의 시계공이자 휴대용 정밀 항해시계, 크로노미터(chronometer)의 선구자인 기술자 존 해리슨(John Harrison)은 자신이 만든 목재(木材) 시계를 통해 대담하게 경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별자리를 봄으로써 경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휴대용 시계를 통해 경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존 해리슨이 해결한 경도문제는 천체, 별의 위치 같은 근거 있는 준거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경도가 0인 지점에 해당하는 준거점은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고, 경도의 시작점은 임의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도가 0인 지점은 로마, 코펜하겐, 예루살렘, 피사, 파리 등등 다른 장소들이 될 수 있었다. 존 해리슨은 휴대용 해상시계를 통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준거점 또는 정박되는 지점은 반드시 구성되어야만 했다. 야니 스타브라카키스(Stavrakakis)에 의하면 그 준거지점 또는 정박점은 라캉(Lacan)의 소파 등받이점(point de caption)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미화의 미끄러짐을

1) Sobel, D., *LONGITUDE*, 1999, 김진준(역), 『경도이야기』, 웅진싱크빅, 2012, 19~26쪽.

멈추게 하는 기표’를 가리킨다. 소파등받이점은 의미를 고착화시키는 지점이지만 영구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의미의 고착만을 생산할 뿐이다. 존 해리슨이 찾아낸 경도 측정법은 준거점에 해당하는 소파등받이점을 임의로 찾아내야만 했다. 결국 경도는 1894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 경선(經線)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경선을 보편적인 준거지점으로 승인되었다. 그리니치는 모든 세계의 시간을 계산하는 경도 측정의 준거지점, 소파등받이점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경도 선정의 소파등받이점(그리니치 경선)이 어떤 필연성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요소, 헤게모니(hegemony)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니치라는 경도 측정의 준거지점은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즉 그것은 영국에서 간행되고 그리니치 경선을 보편적 준거지점으로 활용했던 항해력(nautical almanac)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항해표 사용의 점증적인 헤게모니화의 결과였다.²⁾

이러한 고정점, 정박점이 되는 소파등받이점이 헤게모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역사 기념일의 자의성을 연상시키지 않는가? 기념(commemoration)은 ‘함께/같이 기억한다’는 것인데, 과연 기념일의 제정과 그 실천의 주체는 누구인가? 기념일이 국가의 정권을 획득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지정되고 그 입장에 따라 선정된다는 점에서 보다면, 이는 경선 준거 지점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적 결정과 흡사하지 않는가? 기념일의 근거를 따지는 사실판단을 넘어 그 근거를 틀 지우는 것은 무엇일까? 즉 근거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인정하고 투쟁하는 인정투쟁 행위를 넘어 ‘근거를 형성하는 틀’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이 기념일인가에 대한 정당성 여부나 기념투쟁의 의의를 넘어서 기념일을 구성하고 사회구성원 주체들을 호명하는 근본적 방식까지 기념투쟁의 뿌리를 거슬러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2) Stavrakakis, Y., *Lacan and the political*, 1999, 이병주(역), 『라캉과 정치』, 도서출판 은행나무, 2006, 154~159쪽.

제기하려고 한다. 뿌리 깊은 기념일은 어떤 면에서 뿌리가 없는 것인 동시에 뿌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의한 원인이자 결과인 일종의 소파등받이점에 비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기념일과 소파등받이점, 주체와 타자의 동일시 그리고 호명과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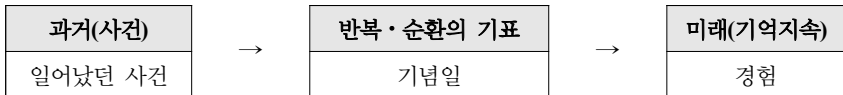
앞서 기념일이 일종의 소파등받이점이라고 의견을 전개했는데, 이런 소파등받이점의 사례로 스타브라카키스는 프로이트(Freud)의 <집단심리학>과 자아 분석(인용한 책에서는 <집단심리학>)에 나오는 ‘대중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를 들고 있다. 즉 대중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어 통일체를 창조하는 것이 소파등받이점이다. 이는 집합성을 구성하고 일체감을 창조하며 이데올로기 장의 동일성을 창조하고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집합체의 보편성의 체현으로 순수 존재의 대표물 혹은 체계의 체계성으로 가정될 때에만 참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³⁾ 라캉에 의하면 기표는 늘 여러 형태로 미끄러지며 기의는 자기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표는 한정된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표와 기의의 선은 어디에선가 만나야만 한다. 기표와 기의의 끝없는 평행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소파등받이점이다. 소파등받이점은 누빔점이라고도 불리며 이것이 없으면 기표는 고정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집단을 통일체로 꿰고 참조점이 되는 이데올로기 장의 동일성을 창조하고 유지시켜주는 소파등받이점에서 기념일의 속성을 찾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 혹은 역사적 흐름이 직선적이라면 기념일은 그 흐름의 선

3) 같은 책, 196~201쪽.

4) Masaski, M., 『ラカン入門』 2016, 조현준(역), 『라캉 대 라캉 : 가장 명료하고 알기 쉬운 자크 라캉』, 새물결 출판사, 2017, 57~58쪽.

형성을 따르면서 기념일의 반복·순환하는 원환성(圓環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념일은 시간과 역사의 선형성이란 큰 흐름 안에서 반복·순환하는 원환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는 현재의 기념일을 통해 다시 재구성된다. 기념일은 발생했던 과거 사건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짜라는 기표 속에서 과거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과거를 되살리는 역사화 작업의 의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념일은 사회구성원들이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참여의 시간’이라는 의례화이며 역사를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기억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자기인식을 겨냥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거-기념일-현재의 관계

위의 그림에서 ‘기념일’이라는 현재의 경험은 ‘대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와 통일체의 경험’ 즉 소파등반이점이며 동일성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성은 날짜의 같음이라는 시간의 동일성이자 그로부터 파생되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동일성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기념일은 사회구성원 주체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라캉의 거울단계와 주체 구성 등을 먼저 참조해야한다.

라캉의 주체는 ‘기표의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나’가 동일시할 수 있는 기표의 주체, 상징적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자아가 이미지와 연관된다(이는 상상적 주체가 된다)면 주체는 기표라는 상징계의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아와 주체가 모두 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소외(alienation)라는 것이 생겨난다. 당연히 나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나를 찾아나서는 모험을 하게 된다. 그 모험의 하나가 동일시(identification)이다. 그런데 자아와 주체는 근본적으로 앞서 인용

했듯이 타자를 참조하고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주체가 타자를 참조하고 상관하는 방식을 라캉은 거울단계(mirror stage)라고 명명하며 설명을 이끌어낸다.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미지를 보고 동일시할 때 생겨나는 구조를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거울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볼 때 그것은 자신인 동시에 자신이 아닌 일종의 소외를 경험케 한다. 이미지의 효과로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⁵⁾ 자아는 상상적 구성물로 주체 자신의 외부에 놓여있기에 주체의 상상적 동일성의 결과물이다. 이런 동일시는 정의상 소외적이며, 그로부터 탄생한 소외된 자아는 오인의 결과물이 된다. 자아는 타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거울 이미지는 주체에게 획득하기 어려운 이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를 이상적 자아라고 부른다. 주체는 자신의 이미지를 에로스(eros)화하는 한편 그 이미지와 경쟁한다. 이미지는 주체 자신이 결여한 이상적인 완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지를 에로스화하는 나르시시즘과 공격성은 동일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미지 안에서의 상상적 주체가 소외된다면 언어라는 타자 안에서도 주체는 소외된다.⁶⁾ 그리고 주체는 결여된 것을 메우기 위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자의 욕망은 주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촉발시킨다. 타자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을 넘어 주체가 그것에 집착할 때 신경증이 생겨난다.⁷⁾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서 주체는 나서지만 오인을 하게 되고 이어 소외와 결여에 다시 빠져든다. 이런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 호명(interpellation)과 환상(fantasy)이 작용하는데 이는 라캉과 알튀세르(Althusser)의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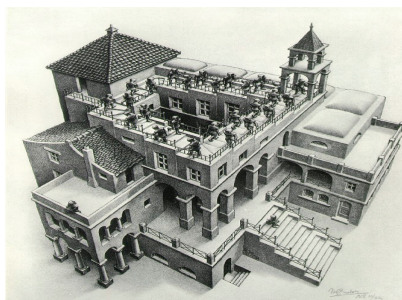
알튀세르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인생 전반에

5) Muller.J., *The Origins and Self-Serving Functions of the Ego*. In Karen Ror Malone & Stephen R. Friedlander (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p.43~50.

6) Chiesa, L., *Subjectivity and Otherness*, 2007, 이성민(역), 『주체성과 타자성』, 도서출판 난장, 2007, 39~85.

7) Fink, B., *The Lacanian Subject : Beanguage and Jouissance*, 1997,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 b, 1997, 100~104쪽.

걸쳐 나로서 주체로서 정체성, 생각, 행동의 근거지로서 나를 호명한다. 이데올로기는 일상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는 것처럼 나를 주체로 만든다. 즉 이데올로기는 내가 주체라고 믿도록 만든다(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한다). 이데올로기는 우리 대부분이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없게 한다.⁸⁾ 이러한 알튀세르의 주체는 라캉의 (즉 기표의 주체, 즉 상징적인) 주체 개념보다 상상적인 자아개념에 가까워보인다. 이는 주체의 상상적 객관화 또는 상징의 상상적 동일시 현상을 보여주는 라캉의 L도식의 구조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매개된 재현체, 문화적으로 구현된 현상이라 하더라도 거울 구조적 상상적 동일시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탄생은 최종적으로 상상질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⁹⁾ 한편 최원은 이데올로기의 호명과정을 세심하게 논증한다.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을 부를 때 그가 돌아서는 순간 행인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돌아서기 이전, 즉 호명이전에 놓여있는 어떤 요소가 그를 필연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가를 분석한다. 이데올로기는 에셔(Escher)의 작품 <올라가기와 내려오기(Ascending and Descending)>에 나오는 무한계단처럼 주체를 순환 속에 빠뜨린다.



[그림 2] 에셔의 <올라가기와 내려오기>

8) Ferretter, L., *Louis Althusser*, 2006, 심세광(역),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알피, 2006, 167~175쪽.

9)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198~199쪽.

이때 개인의 등 뒤에는 주체가 아니라 경찰,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있으며 이와 마주침을 통해서 개인은 주체로 구성된다. 즉 주체 이전의 주체는 마주침의 원인이 아니라 그 효과이다. 호명당하는 사람은 주체인 것을 아직 모르는 채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 안으로,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장치들 한복판으로 돌발한다. 이런 장치들의 작용을 의식하는 호명의 순간에 주체는 그 효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과거를 거꾸로 구성해냄으로써 마치 자신이 ‘항상 이미’ 지금과 같은 동일성을 갖고 살아온 주체인양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개인은 장치에 의해 자기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강제된 동일성을 자신의 원인으로 만드는 목적론적 전도를 통해 자신을 영원한 주체로 오인하게 된다.¹⁰⁾

이에 비해 슬로베니아 라캉주의자 지젝(Zizek)은 타자의 호명에 대한 주체의 반응 및 태도에 대해 라캉과 알튀세르의 차이를 구분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 장에서 내용들이 바뀌어도 그러한 장의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기표들을 누비는 소파등받이점이다. 이는 부유하는 요소들을 일련의 등가적 관계 속에 포함시키고 총체화시킨다. 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전체화하면서 장을 총체화시킨다. 하지만 상징적 동일시와 상상적 동일시의 순환 운동과 소급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표들의 누빔은 완벽하지 않게 된다. 즉 누빔점이 있어도 누빔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두 동일시 운동이 메우지 못한 간극과 구멍을 남긴다. 이는 “너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묻는 케 보이(Che Vuoi?), 즉 왜 나는 타자가 나라고 말하는 바가 되는 것일까?라는 히스테리적 질문을 생성한다. 타자와 주체 사이의 간극과 구멍엔 케 보이(간단히 말해 “뭘 원해?”)가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주체의 환상($\$ \diamond a$)이다. 즉 알튀세르식으로

10) 최원, 『라캉 또는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도서출판 난장, 2016, 228~244쪽.

타자는 주체를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호명하는 게 아니라 호명에 실패한다. 실패하는 이유는 타자와 주체 사이의 간극 때문인데 이를 메우는 것은 주체의 환상인 것이다. 이런 환상은 타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줌으로써 주체의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타자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지만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실정적 호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위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종의 외통수 상황을 피하게 해준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알튀세르의 호명은 불완전하고 실패할 운명을 지니지만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간극에 있는 주체의 환상은 이를 메운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가 어떤 점에서 환상을 내포함으로써 주체들에게 충족감을 준다는 사실과 흡사한 게 아닐까? 기념일이 국민을 호명하는데 있어서 발견되는 역사적 문제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한다.

III. 근대성의 지점과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새해 첫날은 한해를 다시 시작하는 일종의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새해를 두 번 맞는다. 한번은 신정이라는 새해 첫날이며 다른 한번은 구정이라는 월력에 의한 전통적 새해 첫날이다. 이런 새해맞이에는 전통적인 설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함에 따라 생겨난 신정에는 근대화에 대한 갈등이 축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종의 새해 첫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수용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화 초입의 충격과 시대변동을 논의해야할 것이다. 이 환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화 초입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개항 이후 외래 문물의 유입은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근대화의 양상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이념적·사상의 관념적 차

11) Zizek, S., *The Subline Object of Ideology*, 1989, 이수련(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출판사, 2013, 149~191쪽.

원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이 시기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끝내 외세의 손으로 지휘권을 넘기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¹²⁾

김덕영은 우선 한국의 근대화 이론을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 압축적 근대화론으로 나눈다.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 사회발전 과정을 내재적 힘과 요인에 의해 분석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는 일제 식민사학이 내세운 조선사회 정체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내재적 발전론은 조선 후기부터 자본주의 싹이 튼 맹아론(萌芽論)을 제시하며 일제 식민지배가 그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맹아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또 이를 통해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 및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경제적 측면에만 관심을 모으는 한계를 보인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발전된 이론이다. 즉 조선은 자력으로 자본주의를 창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일제의 착취가 개발과 성장을 통한 착취였고 식민지적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근대화를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요소 외에 다양한 힘과 요소에 의해 역사 발전이 이뤄진다는 점을 해당 이론은 간과하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경제적 관점 외에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문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근대적 자아와 주체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해주지 못한다. 압축적 근대화론은 장정섭이 주장한 개념에 따른 이론인데, 이는 시간·공간 영역과 단축·압착 과정의 두 축이 교차를 통해 압축근대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단축은 두 시점(시대)나 위치(지역)사이의 이동 또는 변화에 필요한 물리적 과정이 축약되는 현상이며, 압착은 서로 이질적 시대나 장소에 존재

12) 이환,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 지성사, 1999, 32~38쪽.

했던 복수 문명요소들이 일정 제한적 시공간에 공존해서 상호 압박 및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¹³⁾ 김덕영은 이 이론이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틀로 한국 근대화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장경섭이 채택한 분석적 귀납법의 연구전략과 구체적으로 수행한 한국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사이의 모순이 발견된다고 반론을 제시한다. 또 압축적 근대성은 시공간을 축으로 하는 추상적 분류학이 될 여지가 크다. 즉 한국 근대화의 출발시기를 적절히 말하기 어려움을 김덕영은 지적한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국가 주도 하에 본격적인 근대화가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두 개의 근대화 중 후자가 경제적 근대화만을 추구한 ‘환원적 근대화’라고 주장한다. 당시 국가지도자였던 박정희는 경제 외에 다른 부문의 근대화를 배제하고 이를 경제적 근대화로 환원시킨 것이다. 이는 이후 신군부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화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해 온 환원근대는 미완의 프로젝트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¹⁴⁾

이상을 통해 볼 때 19세기말 초기 근대화와 1960년대의 국가주도의 근대화를 한국사회의 두 가지 근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근대화중 전자는 개항을 통한 외래문물의 유입과 일제의 통제와 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재적 발전에 의한 것임에도 둘의 초점은 경제에 집중된다. 후자의 근대화는 시간·공간 영역과 단축·압착의 과정을 통해 과거 문물, 제도와 현대·탈현대적 문물·제도가 경쟁, 충돌, 접합, 화합 등의 현상으로 이뤄지거나 국가주도의 권력을 통해 환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념투쟁에 있어서 축이 되는 일제가 남긴 흔적, 잔재는 경제적 측면과 연관될 뿐 아니라 압축이라는 힘과 국가의 힘을 통해

13)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20쪽에서 재인용.

14) 김덕영, 『환원근대 :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4, 83~107쪽.

이뤄졌다고 축약된다. 다시 말해 경제와 힘(압축의 힘/권력)이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영향을 준 요인인 것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보면 근대화는 경제적 힘과 구조적 힘의 결과물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기 근대화가 일제에 의해 시행된 강압적 근대화였기에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근대화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한국은 8.15와 6.25를 맞게 된다. 미완의 근대화는 이후 1960년대부터 환원적 근대화 프로젝트로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 다시 말해, 근대화의 시원적 문제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폭력에 의한 근대화인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초기 근대화의 불완전한 문제에 근거를 두고 기념투쟁의 양상을 바라보려고 한다.¹⁵⁾ 그 힘이 상징적으로 각기 다르게 놓이는 지점이 기념일이라 한다면 기념투쟁은 단순한 기원의 문제이전에 힘과 알력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즉 기념투쟁은 근대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 간의 국가와 집단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념일은 타자의 호명과 연관해서 주체의 구성과 연관된다. 즉 기념일은 역사를 순환적 시간을 빌어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인식시키고 주체를 호명하고 그/그녀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념일 지정의 문제는 이른바 ‘기념투쟁’이라

15) 사실 역사, 민족, 기념(일)의 문제와 근대화 혹은 근대성과의 관계는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억의 터’에 관한 주창자인 피에르 노라는 프랑스의 ‘역사’가 근대 민족 국가 혹은 민족사의 서사에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는 근대성의 프로젝트가 현재의 역사를 구성하는 거대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억들’이 ‘터’로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특히 서구의 ‘역사’에서 근대의 문제는 중세 혹은 종교적 권위가 해체되고 나타나는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과 매우 밀접하다. 즉 국민 혹은 민족은 근대성에 의한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성과 근대 민족 국가(nation state)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고, 상보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는 근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공유하고 있는가와 연관된다. 노라가 제기한 근대 민족 국가 역사의 성찰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각각 ‘기억의 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Nora, P., *Les Lieux de mémoire*, 2005, 김인중 유희수 외(역), 『기억의 장소 ① 공화국』, (주)나남, 2010, 31-67쪽).

는 용어와도 연관된다. 이는 교과서의 기념일 지정과 서술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역사와 기억의 투쟁 방편이 된다.

IV. 기념일에 대한 구체적 논쟁 및 소급지점

대한민국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규정된 기념일은 2월 28일의 ‘2.28 민주운동 기념일’부터 12월 27일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까지, 국경일을 제외하고 48종의 법정기념일이 있다.¹⁶⁾ 그런데 기념일은 날짜를 정하는 것에 앞서서 역사적 흔적과 의미를 위치지우는 행위가 선행한다. 즉 기념일¹⁷⁾은 오늘날 현재 역사를 다시 소급시켜서 ‘역사’ 속의 오늘이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가 하는 작업에 의해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의례의 표식 지점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기념일 논쟁은 기념일에 대한 엇갈리는 관점 및 사회적 인정문제라는 점에서 인정투쟁 형식을 갖는다. 호네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법은

16) 시사전북. 2018.8.21. http://www.sisajb.com/default/editorial_index_view_page.php?part_idx=393&idx=37914

17) 기념일은 과거역사와 관련된 기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재와의 연관성에 따라 존재 의미를 갖는다. 가령 권농일(勸農日)의 경우, 8.15 이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모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기념일이다. 권농일의 뿌리는 기록상으로 고려 성종 때(983년)부터 왕과 왕비가 몸소 농사일을 하는 행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손수 소에 맨 쟁기를 잡고 농사를 권장하고 사직단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8.15 이후 기념일로 자리 잡은 권농일은 1959년까지 6월 15일에 기념식을 가졌다. 이후 모내기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2년까지 6월 10일로 기념일이 변경되고, 1984년부터는 5월 넷째 주 화요일로 날짜를 앞당긴다(연합아카이브, <https://y-archive.com/%EA%B6%8C%EB%86%8D%EC%9D%BC/>). 권농일은 농본국가로서 전근대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념일이었기에 산업화가 촉진되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의 맥락과 필요성에 의해서 기념일은 그 존재여부와 의미가 변동하는 것이다. 이는 기념일을 통해 집단의 기억에 소구할 이유가 없어진 사례이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압축적 근대화, 환원적 근대화를 통한 사회발전상을 추종함을 뜻한다. 그러한 사회발전상은 단지 지나간 과거에 집단의 기억과 관심을 환기한다는 의미를 추월해버린다.

인정관계의 확대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실현의 핵심인 자아형성과정이 타자의 인정과 밀접하며 이런 인정경험이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하게 함에 따라 적극적 자아실현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¹⁸⁾ 집단적 정체성의 형태 변화의 결과로 구성된 집단은 각기 자신들의 문화적으로 정의된 속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 이런 인정 요구 뒤에는 개인주의적 특성과 공동체적 혹은 집단적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진다. 인정은 우리 시대의 핵심어이며 상호주관성 측면에서 주체의 자율성 형성 조건인 인정범주는 수많은 갈등의 도덕적 핵심을 드러낸다.¹⁹⁾ 축약하자면, 호네프의 인정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체성 인정에 대한 요구에 기반 한다.

여기에 덧붙여, 인정투쟁은 무의식과 접속된다고도 할 수 있다. 무의식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타자에게 무엇인지, 또 타자의 욕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라캉에 따르면 무의식은 타자의 담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증상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주체의 위치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역사와 담화에 위치한다. 이런 점에서 무의식은 더없이 정치적이며, 무의식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은 정치학과 수렴한다.²⁰⁾ 이렇게 볼 때 기념투쟁은 정치적 관계의 의식·무의식적 투쟁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억압을 전제하며, 이는 의식에 밀려 무의식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²¹⁾ 그렇다면 기념투쟁은 억압된 무의식이 발현하는 투쟁이며, 어떠한 억압에 대해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념일을 시간과 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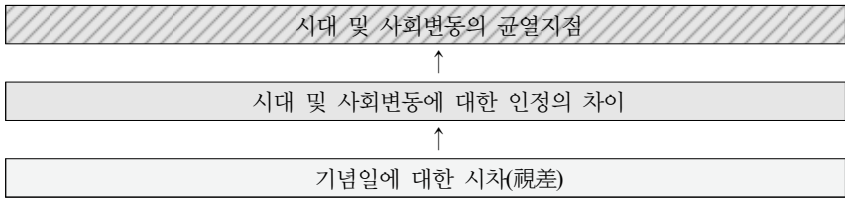
18)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11~66쪽.

19) Honneth, A., Fraser, N., *Umverteilung 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2003, 김원식 문성훈(역), 『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 책, 2014, 251~253쪽.

20) 맹정현, 「한국판 특집-무의식의 정치학」, 『베스텐트』, 사월의 책, 2015, 185~186쪽.

21) Freud, S., *Die Verdrängung*, 1915, 윤희기(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4, 139~141쪽.

의 좌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좌표를 만드는 시간의 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진영에 따른 기념일의 차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기념해야 할 날에 대한 인정의 차이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시간에 대한 변동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시간의 변화는 시대라는 시간층위의 단절적 변화이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림 3] 기념일에 대한 시차의 소급지점

그림에서와 같이, ‘역사’에 타자가 개입해 들어온 시대 및 사회변동의 균열지점이 기념투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근대라는 시간 개념이며,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도 연관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근대는 무엇이며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낳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치적 무의식의 투쟁과 연관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인정투쟁의 갈래가 정치적으로 결을 다르게 하는 사례인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우리의 집단 정체성의 구성 혹은 재구성에 있어서 갈등과 경합의 상징적인 지점/순간들이기 때문이다.

1. 광복, 해방, 독립으로서 8.15

오늘날의 ‘개천절(10월3일)’은 한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국경일로

기념한 ‘건국기원절(음력 10월3일)’을 기원으로 한다. 이후, ‘건국기원절’은 1949년에 정부가 국경일로 제정하면서 ‘개천절’로 이름을 바꾼다. 한국 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과 독립선언일(3월1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을 한 것이다.²²⁾ 이런 이유 때문에 개천절이 원래 건국기원절이라는 사실은 망각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곧 ‘개천절’이며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10월3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8월15일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 제정하고 기념하려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 된다.²³⁾

구 한나라당의 김용학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1949년 10월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5일이 광복절로 국경일이 된 후 이는 국민들 인식에 각인이 되어왔음을 그는 지적한다. 또 건국일은 광복을 포함한 역사과정을 포용하지만 광복은 ‘되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기에 8월15일은 과거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날이 된다고 언급한다. 광복절이 가져온 것은 이데올로기적 아노미상태와 친미중속의 사회가치문화, 반일감정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건국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⁴⁾

한편, 양동안은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해방’은 ‘민족해방’이란 용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한 용어이며, 1945년 8월15일 이전에는 항

22) 참고로, 기념투쟁은 갈등 이전에 기념일을 인식하는 관점으로도 소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8월 15일이 광복, 해방, 독립 그리고 종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 15일을 종전이라 명명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북한(해방기념일) 그리고 일본 뿐이다. 러시아, 중국, 몽골은 9월 3일을 항전승리기념일로 기념한다. 또 타이완은 10월 25일을, 필리핀은 9월 3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9월 12일, 타이와 버마는 9월 13일을 종전으로 기념한다. 8월 15일에 종전이 되었다는 인식은 도쿄중심, 즉 황궁 주변의 역사관에 의한 것이다(SATO Takumi., *HACHI GATSU JUGO NICH NO SHINWA*, 2005, 원용진·오카모토 마사미(역), 『8월15일의 신화: 일본역사교과서, 미디어의 정치학』, 궁리출판, 2007, 12쪽). 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근거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며 이것이 정치적 갈등 및 문제와 연관될 경우 기념투쟁의 양상을 띠다고 볼 수 있다.

23) 조덕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2집, 2017, 184~219쪽.

24) 김용학, 「대한민국, 건국절이 필요하다」, 『국회보』, 통권442호, 2003, 39~40쪽.

일독립운동세력중 좌익들이 주로 선호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익은 ‘독립’과 ‘광복’을 선호했다. 이런 반공의식으로 인해 ‘광복’이 ‘해방’과 같은 의미로 왜곡된 후 반공의식이 강한 이들은 1945년 8월15일을 ‘광복’이라 일컫기를 선호했고, 좌익성향의 사람들은 ‘해방’이라 말하기를 즐겼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학술적 논저나 교과서 등에서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려 1945년 8.15를 해방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후 5공 정권이 1982년 교과서에서 1945년 8.15를 기술할 때 광복으로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1945년 8.15 해방이 광복절로 둔갑하자 원래 광복절로 제정됐던 1948년 8.15는 정부수립기념일로 격하되었다.²⁵⁾

그리고 윤선자는 광복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를 다루는 논문에서 ‘광복’인가 ‘해방’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했으며 ‘독립운동’인가 ‘민족해방운동’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광복60주년은 독립운동사와 관련해 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학계에서 독립운동사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성과는 1980년대 후반에 나왔음을 주장한다. 그녀는 광복60주년을 맞아 2005년 학술회의 가운데 4월 29-30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개최한 “2005년도 독립운동사 연구자 대회”의 주제가 ‘독립운동사 용어, 무엇이 문제인가’였음을 거론한다.²⁶⁾

지금까지 인용한 바에 있어 공통되는 점은 바로 8.15를 지시하는 ‘용어’의 문제이다. ‘광복’, ‘해방’, ‘독립’등에 대한 용어는 8.15에 일어난 사건을 지시하는 각기 다른 기표이다. 그 기표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사건에 대한 명명과 시간추이 및 처한 환경상황 등을 거쳐 변화된다. 국제사회의 열강과 국내 통치자와 국회, 언론, 사회적 언어사

25) 양동안, 「1948년 독립·건국... ‘광복’, 1945년은 ‘해방」, 『자유마당』 Vol.78, 2016, 77~83쪽.

26) 윤선자, 「광복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역사학보』 191집, 2006, 169~198쪽.

용 태도와 습성 등은 용어의 뜻을 고착화시키거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자의 영향력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기념일에 대한 명명과 의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앞서 인용했듯이 동일시는 이미지와의 상상적 동일시이거나 기표와의 상징적 동일시이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 진영 간의 기념일 논쟁과 투쟁은 이런 동일시의 결과물들이다. 언어라는 타자 안에서 주체는 소외되며 결여를 느낀다고 논의한 바 있는데, 기념투쟁은 한편으로 이런 소외와 결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결여를 메우기 위해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는 용어의 근거를 타자의 발화의도에서 찾거나 시간상의 의미변화와 분기지점으로 소급해 들어가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일제의 침입과 강점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어진 신탁 통치와 한국전쟁은 근대화에 대한 새로운 단절점이 된다. 즉 일제의 그림자와 서구 열강들의 외력은 아직까지도 기념일이라는 기표 안에 깊숙이 각인되어있다. 결국 기념투쟁은 우리 역사에 흔적을 남긴 우리 속의 타자들과 싸우는 투쟁이기도 한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7년 8.15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연설과 2008년 8.15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연설은 온도차를 보인다. 노무현은 8.15를 제국주의 신민통치로부터 해방으로 의미화하고 해방 위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근대국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비극과 고통으로 본다. 때문에 통일은 지상과제로 의미화된다. 반면 이명박은 2008년 8.15에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경축사를 낭독했다. 그는 8.15를 일제로부터의 벗어남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로 접근했다. 이명박이 얘기하는 8.15는 1945년의 8.15가 아니라 1948년 8.15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8.15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노무현과 달리, 남북한 국가체제의 분리와 민족적 슬픔을 강조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수립을 성공, 발전, 기적, 자유의 수호라는 가치로 의미화 한다. 그리고 건국절 제정운동

의 추진력은 2008년 당시 정부로부터 만들어졌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향(안)’은 60주년을 기념할 상징성 있는 주제를 선정, 기념행사, 학술문화연구, 국민 참여 축제 등을 기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건국절의 인식론적 토대를 공식화했다(하상복, 2012, 110, 111, 117, 124쪽).²⁷⁾ 이 경우 8.15 기념의 의례와 그 방식은 물론, 8.15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연설과 유관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념의례의 상징성은 기념일의 의미와 뿌리를 정박시키는 국가지도자의 언술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념일의 명명과 의의를 8.15라는 추상적 기표를 넘어, 그 근원과 뿌리를 1945년이 아닌 1948년에 정착시킴으로써, 민족과 영토, 국가의 분열이라는 역사를 은폐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2. 한국전쟁 : 6.25전쟁인가 한국전쟁인가

정용욱은 한국전쟁을 이념적 성격이 강조된 심리전장과 이미지 싸움, 선전 전쟁이란 시각에서 바라본다. 먼저 미국의 공군대학 인력연구소(HRRI)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회과학계의 한국전쟁 및 남북 사회에 대한 이해방식을 읽어낸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디든지 존재 가능한 개인들간의 갈등의 한 형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공산주의의 강요로 촉발된 꼭두각시들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황, 승패보다 이념적 덧칠이 교전 당사자들에게 중요해진 점이 있다. 이런 시각은 선전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냉전시대의 심리전장이자 국제전이었으며 이런 심리전은 한국사회에 반공주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를 고정시킬 뿐 아니라 내용에 덧칠을 가했다.²⁸⁾

27)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기념일의 해석 : 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110~124쪽.

이런 심리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은 정신분석학적으로 환상전쟁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 환상은 주체의 것(네가 무엇을 원하는가?)이 아닌 타자의 욕망, 즉 ‘타자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내게 무엇을 보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린아이의 경우를 보면 그는 복잡한 관계망에 끼워 넣어져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욕망이 일종의 촉매제이자 전장으로 이용된다.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환상은 내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말해주는 상호주관적 성격을 갖는다.²⁹⁾ 그렇다면 한국전쟁이 외력이 강하게 작용한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의 영향에 이은 공백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까? 한국을 둘러싼 타자, 서구 열강의 짜놓은 냉전체제라는 큰 무대 안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 타자들의 주체로서 한반도는 두 조각이 난 것이며, 이는 전통 지배사회의 개인들 간 갈등의 형태이자 공산주의의 강요라는 타자의 욕망에 의한 전쟁이라 볼 수도 있다. 결국 복잡한 관계망이 끼워져 있는 아이를 둘러싼 주변 타자들의 욕망이 촉매제이자 전장으로 이용된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아이는 타자들이 벌이고 있는 게임(전쟁)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는 것도 한국전쟁의 성격과도 상응하는 면이다. 정용욱이 언급한 심리전은 이런 환상의 성격에 부합한다. 지젝이 논의하듯, 욕망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이다. 환상을 통해 인간은 욕망하는 법을 배운다.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도록 틀을 짜주는 것이 환상이다.³⁰⁾ 즉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전근대적 계급사회를 전복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이룬다는 환상을 통해 욕망의 틀을 짰다면, 남한은 서구 문물과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수입해서 이를 수 있으리라는 근대사회에 대한

28) 정용욱, 「미군 의 뼈라 심리전 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사실로부터 총체적 인식으로』,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294~296쪽.

29) Zizek, S., *Less Than Nothing : Here and the Shadow of Dialectical Materialism*, 2012, 조형준(역), 『라캉 카페: 헤겔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그늘』, 새물결 출판사, 2013, 1213~1214쪽.

30) Zizek, S., 1989/2013, *op. cit.*, p.206.

환상을 통해 욕망을 가졌다. 이는 국제적인 냉전무대의 주축인 미국과 소련이라는 타자의 욕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뿌리가 뽑힌 일본에 종속된 상태에서 찾아온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라는 공백상태는 다시 서구 열강, 타자들의 욕망이 한반도를 둘러싸게 만든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한국전쟁에 관한 논쟁지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0년 6.25, 40주년의 학술적 연구들은 보수와 진보의 시각적 차이가 뚜렷했다. 보수적 시각의 연구들은 북침설, 북침유인설, 대리전쟁설 등의 전쟁기원에 대한 수정주의적 논의를 반격했고 일부는 당시 소련 측 전쟁 관련자들이 북의 기습남침을 확인해준 사실을 확인, 남침설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적 입장은 기존의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의 논의 중요성을 저평가했으며 전쟁전후 상황과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³¹⁾ 이는 보수와 진보의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의 기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2014년에 이재봉은 한반도 분단을 세 유형으로 바라본다. 첫째는 1945년 8.15와 동시에 국토가 남북으로 잘렸으며(국토 분단 또는 지리적 분단) 둘째는 1948년 8월 남쪽에는 자본주의 지향의 대한민국이 9월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짐에 따라 체제가 둘로 나뉘어졌다(체제분단, 정치적 분단). 셋째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으로 같은 민족이 두 진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민족 분단). 즉, 국토분단에 이은 체제 분단이 민족분단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재봉은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분단에 의한 투쟁 등에 의해 10만 명이나 사망하였는데, 6.25가 그날에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6.25전쟁이라 칭하기도 어색하다고 주장한다. 즉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그 배경과 이유보다 날짜와 어떤 주체가 시작했는지에만 초점을 둔 강요당한 역사인식이라 그는 비판한다. 또 전쟁을 누가 왜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해 상대에 대한 적대를 키우는 것보다 당시까지

31) 중앙일보, 1990. 6.7. <https://news.joins.com/article/2468673>

휴전 혹은 정전협정을 종전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³²⁾ 이는 ‘하루’로 지정된 6.25 기념일보다 더 큰 시야의 확장을 통해 거시적으로 6.25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남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는 시각이다.

그리고 위에서 정영욱이 지적한 한국전쟁의 심리전이 반공의식을 환기시키고 고정된 이미지와 관념을 생산해왔다는 점은 아직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실 한국전쟁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 대한 각성일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은 휴전과 올해 가을 종전선언³³⁾을 앞두고 있음에도 진영 간의 적대와 환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젝에 의하면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의 목적은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상은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균열을 미리 고려해놓는 방식으로 사회적 상징적 동일성을 부과하는 모든 동일시 작업의 실패를 보상해준다. 이를테면, 유태인은 사회가 하나의 완결되고 동질적 전체로 자신의 동일성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다. 이에 따라, 부정성(유태인은 질병을 옮기고 그들의 자본이 경제 및 사회를 뒤흔들어놓고 일자리를 뺏어간다 등을)을 유태인 형상 속에 집중시킨다.³⁴⁾ 공산당을 완전히 없애면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을 열망하는 반공투쟁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환상이었다. 이렇게 한국전쟁은 일제에 의해 구멍 뚫린 근대화애 다시 상흔을 남김으로써 지워지기 힘든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6.25 50주년의 기념행사는 그 상징성이 매우 컸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정부는 해당 기념일을 국제적 행사를 통해 부각시켰다. 국내외 참전 전사자 명비 봉헌과 명각을 기념관 회랑에 각인하고 참전 21개국 참여로 6.25전쟁을 재조명했다. 그리고 국립

32) 프레시안. 2014. 9.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966&ref=kko#09T0>

33) BBC. 2018. 4.27. <https://www.bbc.com/korean/news-43921390>

34) Žižek, S., 1989/2013, *op. cit.*, pp.209~210.

묘지 참배와 전쟁희생자 추모를 비롯 참전용사 오찬, 위로연, 참전국 대표전적비 참배, 관광견학을 추진했다. 또 열린 음악회와 6.25전쟁 50주년기념 온 겨레 평화대행진 특별기획전 등을 열었다.³⁵⁾ 이런 의례방식은 6.25라는 날짜를 중심으로 참전국 용사들의 공간을 초점화 시킴으로써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간과 국제적 공간을 환기시켰다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이자 ‘6.25전쟁’이라는 의미를 하나로 수렴시키는 기념행사이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열강들의 전쟁이자 한국 내부에서의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성을 일깨우고 조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념 행위의 방향성에 덧붙여, 2010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에, 카톨릭 뉴스기사³⁶⁾는 전쟁에서 기념되는 것이 대부분 군인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충성심, 영웅화가 중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쟁기념 속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폭력에 대한 성찰과 평화에 대한 고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념일이 기념해야할 대상이 은연중에 은폐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념은 그 안에 부분적 망각을 또 기념일이 지시하는 대상은 기념 이면의 가려진 측면이나 소외를 낳기 때문이다.

3. 3.1절 기념 : 근대적 기념 투쟁의 시작

1946년의 3.1절은 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으로 우익은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좌익은 민족대표들은 리더쉽이 부재했기에 실패로 끝났으며 노동자, 농민이 진정한 민족대표라고 주장했다.³⁷⁾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일을 주최하

35)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2008, 25쪽.

36)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0.6.21..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1>

37) 박명수, 「1946년 3.1절 : 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 『한국정치 외교사 논총』제38집, 2016, 85~118쪽.

는 진영의 입장에 따라 해당사건에 대한 인식의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즉 기념일이라는 날짜의 기원 문제뿐 아니라 함축된 의미의 기원까지도 기념투쟁의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사건	기념일 날짜 기표	기념일에 대한 명명 기표	외연적·내포적 기의
실재	상징적	상징적	상상적

[그림 4] 기념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속성

먼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사람들은 날짜가 언제인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정한다.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던 상징화되기 이전의 실재³⁸⁾에 해당한다면 기념일 날짜 기표와 그에 대한 명명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기념일에 대한 기의는 상상적이다. 설령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념일 날짜 기표를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기념일에 서로 다른 명명을 할 수 있는 것(8.15)이다. 혹은 기념일에 대한 날짜 기표와 명명을 각각 상이하게 할 수 있다(건국절, 광복절). 그리고 기념일 날짜기표와 명명이 같더라도 외연적·내포적 기의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1946년 3.1절 기념투쟁을 했던 기념행사의 양측의 투쟁입장이 그렇다. 위의 표에서 보듯 기념투쟁은 사건에 대한 명명과 기

38) 1940년대와 1950년대 라캉은 상징계와 상상계의 대립으로 정신의 지형을 파악했다. 즉 이때 상상계는 부정적 속성을 지닌 것이었고 상징계는 치료와 연관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오게 되면 라캉은 그 지형에 실재를 추가한다. 실재는 이전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상상계의 개념과 비슷한 면을 가진다. 즉 트라우마적 속성을 갖게 되고 상징화할 수 없는 것이 된다(Bracher, M., *How Analysis Cures According to Lacan*. In Kareen Ror Malone&Stephen R.Friedlander(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pp.190-192). 이 세계는 재현의 상징계와 재현불가의 실재 그 사이의 상상적인 상상계라 말할 수 있다. 즉 ‘말해지는 대상’이 실재이며 ‘언어’는 상징계, ‘의미’는 상상계에 해당한다. 단 의미는 열려져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정적 속성도 내포한다(홍준기, <라캉, 클라인, 자아심리학 : 정신분석 역사 속에서 <에크리>와 <세미나>바로 읽기 1>, 새물결출판사, 2017, 184~186쪽).

념일 지정, 이와 연관된 기의간의 대립과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다. 역사적 실재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 체험과 기억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념투쟁이 단지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체험과 기억을 기록을 통해 역사화하며 나아가 기념일을 통해 후대의 사회구성원들이 다시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부여 및 지속적인 의미누적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 기념일은 역사의 상징적 수렴점이다. 그리고 기념투쟁은 이런 수렴점을 기표와 기의 측면에서 다른 근거와 입장에 따라 싸우는 것이다.

태지호에 따르면, 역사는 인간의 과거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사례를 통해 수집 및 정리를 거친 뒤 역사가의 특별한 인식과 방법을 통해 역사학으로서 현재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³⁹⁾ 그런데 이런 선택의 과정, 수집 및 정리의 과정, 인식과 방법 경유의 과정, 현재화의 과정 등의 역사 서술에는 작업의 연속성 뿐 아니라 간극이 자리한다. 그 간극에는 당연히 다른 가능성들이 개입하고 역사 서술을 단일하게 구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담론으로서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역사가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시각으로서, 역사의 구성은 내러티브를 방법적으로 활용한다.⁴⁰⁾ 여기서, 역사가 내러티브로 구성된다는 입장은 기념투쟁에 있어서 더 많은 쟁점과 함의를 낳게 할 것이다. 역사의 내러티브 구성에는 선택과 배제의 작업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로 역사를 재현한다는 것은 재현이 곧 이데올로기를 배태함을 뜻한다. 볼로쉬노프(Volosinov)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재현의 영역에 존재하며 여분의 주관적 의미이자 관찰자에 의해 물질 세계에 더해지는 것이다. 기호들의 영역이 곧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된다.⁴¹⁾ 임종명은 3.1절 국정

39)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viii쪽.

40) 같은 책, x ~ x v 쪽.

41) Hawkes, D., *Ideology*, 1996, 고길환(역), 『이데올로기』, 동문선, 2003, 162~163쪽.

화가 정치적 의제에 의한 과거에 대한 선택적 기억 및 배제의 이중적 과정을 거친 작업이었음을 밝힌다. 초기의 대한민국은 3.1절을 국가기념일화하고 관련행사를 국가축제화함에 따라 3.1절을 지방화·전국화는 물론 가정화와 개인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제 3.1’을 통해 남한사람들은 자기희생적인 국가의 국민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이는 국가에 의한 국민이라는 정치적 주체의 생산동원이 이뤄졌음을 알게 한다. 또 이런 국가기념일로서의 3.1절은 역설적으로 3.1이라는 과거를 역사에서 배제하고 망각시킨다. 1946년의 3.1 기념행사에서 볼 수 있듯 투쟁하는 기억과 담론은 공식적 국가 기념일이 됨에 따라 억압되고 남한사회의 집단기억과 역사책에서 소거된 것이다. 이렇게 과거 기억의 선택과 배제는 배제될 과거의 대안적 함의 또한 소거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다.⁴²⁾ 이런 점을 참작할 때 기념일의 구성은 역으로 역사의 다기한 갈등과 쟁점들을 억압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기념일 자체가 지닌 이데올로기다. 공식적 기념일은 기념일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가진 정치적 상대진영 뿐 아니라 역사적 실재가 가진 다양한 맥락과 역동적 의미들을 억누른다. 앞서 인용했듯 프로이트에 의하면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 기념투쟁은 어쩌면 이런 기념일 지정의 억압이 다른 기억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2006년에 있었던 서울시에서 열린 3.1절 60주년 기념행사는 그런 억압을 다시 재현을 통해 의미를 되새겼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는 과거 역사의 행적에 오늘날의 행사를 포개어 놓는 일종의 오버랩(Overlap)과 같은 방식을 취했다. 우선 3.1절 정오에 보신각에서 기념타종행사를 개최했는데 약8분간에 걸쳐 총33번의 종을 치는 사람으로는 직접 독립운동을 했던 12명의 인사를 초청했다. 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 거리축제를 통해 당시 민족대표33인을 재현하고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기미년 당시

42) 임종명,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절과 국민생산」, 『역사학 연구』 제38집, 2010, 377~381쪽.

복장을 하고 보신각까지 태극기 물결행진을 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도 ‘1919 그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마련했다. 강북구에서는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준비한 우이동 천도교 봉황각에서 3.1운동 독립만세 운동 재현퍼포먼스를 개최했다.⁴³⁾ 이런 기념행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퍼포먼스를 통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쓰는 웅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에 있을 3.1절 100주년 축제⁴⁴⁾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남북한의 대화의 장이 열리는 지금 3.1절 100주년을 근대화에 따른 우리 역사의 균열점과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제시해줄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다.

4. 임시정부 : ‘대한민국정부’의 기념 투쟁의 장

3.1독립선언 이후 한반도 및 그 주변에는 8개의 임시정부가 생겼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교통, 통신의 불편 및 일제 강점상황 때문에 상호연락과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8개중 5개는 실체가 지속되지 않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민국의회’(3.17수립),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4.13), 서울의 ‘한성정부’(4.23), 이 3개의 임시정부가 실체유지를 하다가 1919년 9월11일 헌법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통합독립항쟁기구였고 임시정부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임시정부의 존재와 활약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독립투쟁이 임시정부 때문에 독보적으로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서 그 가치를 폄하했다. 즉 구성자체가 부르주아 계급의 집결체라 대표성이 없고, 내부 분쟁에 열을 올렸다 비판, 독립투쟁의 역할을 부인했으며, 외국의 지원급을 횡령하는

43) 서울특별시, 2006,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30058_8736.html

44) 폴리뉴스.2018.10.5.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8936#08mq>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⁴⁵⁾ 이런 임시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임시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태도와 공교롭게도 겹쳐진다. 보수진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부인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윤대원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남북한 역사인식에 단절의 골이 깊은 이유는 3.1운동에 대한 성격규정문제가 남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적 정당성과 깊이 관련되어왔기 때문이다. 외부의 타자 일제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입장 차이는 결국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고 서로를 타자화시켜 왔다. 또 공교롭게도 남한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있어서 보수가 임시정부의 가치를 부인했다면 북한도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한반도 내부의 남북한 대립과 남한 내부의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이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인식을 흐트러 놓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위치는 일제에 의해 부인되고 척결되어야하는 대상이었듯 현재 정치적 위치와 쟁점관계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 된다.

박혁은 임시정부의 위상재정립의 필요성을 해방 이후 정치 이념적 필요에 의해 부정 무시해 온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르게 인식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본다. 1987년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명시되었음에도 여전히 건국절 논란을 통해서 그것은 부인된다. 그는 임시정부에 대한 일방적 폄하나 특정 인물 중심의 배타적 정통론 논쟁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한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확립은 곧 정체성 확립으로 국민을 통합하게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처럼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근거는 상징성을 가지며 국민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임시정부는 소파등 받이점이 된다. 즉 대중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며 통일체를 창조한

45) 윤우, 「‘광복’의 역사, 새롭게 인식해야 - ‘건국60주년’은 부적절하다」, 『삼균주의 연구논문집』 제30집, 2009, 135~136쪽.

46) 박혁,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 민주연구원, 2018, 10~11쪽.

다. 이는 집합성과 일체감을 만들며 이데올로기 장의 동일성을 창조·유지시켜준다. 이런 유대감과 집합성, 일체감을 수렴하고 있는 소파등받이 점이 남과 북,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격렬한 인정투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4월13일에 열린 임시정부 수립 87주년 기념식 메시지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작성했고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했다. 그 내용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통을 지켜냈으며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토대를 놓았으며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것을 설득하고 있다.⁴⁷⁾ 국가지도자의 메시지는 국가공동체를 묶는 힘과 역할을 갖는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내력을 얘기하는 것은 현국가의 근원을 명시하는 역사적 토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2007년 임시정부 수립 88주년이 되는 기념식 기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사의 전환점이었으며 광복에 이르기까지 자주독립 의지를 널리 알린 항일투쟁의 구심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임시정부는 청사를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도 법통을 굳건히 지켰는데 중경(中京/重慶)이라는 장소는 1940년부터 광복을 맞기까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역할을 했던 곳이자 그 유적이 많이 남아있음을 강조한다.⁴⁸⁾ 즉 중경은 임시정부 유적이 물적 자료로 남아있는 국외의 장소지만 항일투쟁이 이뤄졌었던 곳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의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물적 증거를 거론하는 기념사는 당시 나라 잃은 상태에서 임시정부의 실재성과 역사적 근거를 명시한다.

47) 청와대, 2006. 4.13.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a5787148aa9e9ba32c164949

48) 국무총리실, 2007. 4.13. http://www.allim.go.kr/jsp/dataroom/dataroom_speech_view.jsp?id=91012395

V. 나가며

이상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둘러싼 기념투쟁의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이런 투쟁의 근거를 외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화 초입이라는 문제적 지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불완전한 근대화는 우리 민족과 역사에 외상의 흔적을 남겼고 그것은 기념일을 둘러싼 기념투쟁으로 다시 반복·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용했듯 알튀세르적 관점에서 주체는 기념일의 호명하는 순간에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거꾸로 구성해내어 항상 이미 현재와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살아온 듯 착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점에서 기념투쟁은 기념일 너머 근대의 균열점으로 주체를 불러들인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기념투쟁은 그 주체들에게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다. 즉 주체는 기념일의 호명 장치들 한복판으로 돌발해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 지젝이 해석하는 라캉적 관점에서 주체는 환상을 통해서 호명의 실패를 완성시킨다. 기념일의 호명은 주체의 환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기념투쟁은 주체들에게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타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념일은 다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은 우리가 누구인지 집단 정체성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처럼, 기념투쟁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보면 근대화라는 역사적 균열점과 트라우마에 이른다. 본 논문의 ‘들어가는 말’에서 기념일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인정하고, 투쟁하는 인정투쟁 행위를 넘어 ‘근거를 형성하는 틀’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기념일의 근거를 형성하는 틀은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 사례분석에서 보듯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혹은 분열된 근대로의 열망에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기념일을 둘러싼 논쟁은 근대화 과정의 균열지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동시에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호명의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2008.
- 김덕영, 『환원근대 :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4.
- 김용학, 「대한민국, 건국절이 필요하다」, 『국회보』, 통권442호, 2003.
- 맹정현, 「한국판 특집-무의식의 정치학」, 『베스텐트』, 사월의 책, 2015.
-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 박명수, 「1946년 3.1절 : 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 『한국정치 외교사 논총』제38집, 2016.
-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 박 혁,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 민주연구원, 2018.
- 양동안, 「1948년 독립 · 건국... ‘광복’, 1945년은 ‘해방」, 『자유마당』 Vol. 78, 2016.
- 윤선자, 「광복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역사학보』 191집, 2006.
- 윤 우, 「‘광복’의 역사, 새롭게 인식해야 ‘건국60주년’은 부적절하다」, 『삼균주의 연구논문집』 제30집, 2009.
- 이 환,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 지성사, 1999.
- 임종명,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절과 국민생산」, 『역사학 연구』제38집, 2010.
-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 정용욱, 「미군 의 빼라 심리전 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사실로부터 총체적 인식으로』,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 조덕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82집, 2017.
- 최 원, 『라캉 또는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도서출판 난장, 2016.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기념일의 해석 : 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 홍준기, <라캉, 클라인, 자아심리학 : 정신분석 역사 속에서 <에크리>와 <세미나> 바로 읽기 1>, 새물결출판사, 2017.
- Bracher, M., *How Analysis Cures According to Lacan*. In Kareen Ror

- Malone&Stephen R.Friedlander(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Chiesa, L., *Subjectivity and Otherness*, 2007, 이성민(역), 『주체성과 타자성』, 도서출판 난장, 2007.
- Ferretter, L., *Louis Althusser*, 2006, 심세광(역),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앨피, 2006.
- Fink, B., *The Lacanian Subject :Beanguage and Jouissance*, 1997,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 b, 1997.
- Freud, S., *Die Verdrängung*, 1915, 윤희기(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4.
- Hawkes, D., *Ideology*, 1996, 고길환(역), 『이데올로기』, 동문선, 2003.
- Honneth, A., Fraser N., *Umverteilung 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2003, 김원식 문성훈(역), 『분배냐, 인정이나?』, 사월의 책, 2014.
- Masaski, M., *ラカン入門*, 2016, 조현준(역), 『라캉 대 라캉 : 가장 명료하고 알기 쉬운 자크 라캉』, 새물결 출판사, 2017.
- Muller. J., *The Origins and Self-Serving Funcnions of the Ego*.In Kareen Ror Malone&Stephen R.Friedlander(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 Nora, P., *Les Lieux de mémoire*, 2005, 김인중 유희수 외(역), 『기억의 장소 ① 공화국』, ㈜나남, 2010.
- SATO Takumi., *HACHI GATSU JUGO NICHI NO SHINWA*, 2005, 원용진 · 오카모토 마사미(역), 『8월15일의 신화 : 일본역사교과서, 미디어의 정치학』, 궁리출판, 2007.
- Sobel, D., *LONGITUDE*, 1999, 김진준(역), 『경도이야기』, 웅진싱크빅, 2012.
- Stavarakakis, Y., *Lacan and the political*, 1999, 이병주(역), 『라캉과 정치』, 도서출판 은행나무, 2006.
- Zizek, S., *The Subline Object of Ideology*, 1989, 이수련(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출판사, 2013.
- Zizek, S., *Less Than Nothing : Herel and the Shadow of Dialectical Materialism*, 2012, 조형준(역), 『라캉 카페: 헤겔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그늘』, 새물결 출판사, 2013.
- 국무총리실, 2007. 4.13. http://www.allim.go.kr/jsp/dataroom/dataroom_speech_view.jsp?id=91012395

노컷뉴스, 2018.5.15. <http://www.nocutnews.co.kr/news/4969729>
 대자보, 2005. 4.8. <http://www.jabo.co.kr/10170>
 서울특별시, 2006,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30058_8736.html
 시사전북, 2018.8.21. http://www.sisajb.com/default/editorial_index_view_page.php?part_idx=393&idx=37914
 연합뉴스아카이브, <https://y-archive.com/%EA%B6%8C%EB%86%8D%EC%9D%BC/>
 중앙일보, 1990. 6.7. <https://news.joins.com/article/2468673>
 청와대, 2006. 4.13.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a5787148aa9e9ba32c164949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0.6.21.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1>
 폴리뉴스, 2018.10.5.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8936#08mq>
 프레시안, 2014.9.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966&ref=kko#09T0>
 BBC, 2018. 4.27. <https://www.bbc.com/korean/news-43921390>

Anniversary for whom?:

Approach of Lacan and Althusser about Anniversary

Son, Seong Woo · Tae, Ji Ho

This study, approaching through view of Lacan and Althusser, is focused on conflicts and struggles concerning anniversaries in our society. August 15, Korean War, March 1 and Provisional Government a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examining aspects of commemorative Struggle and changing process to those subjects. Means of the study are used through theories of Lacan and Althusser. The result of the study is analyzed that commemorative Struggle set up a starting point as the early modern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In other words, influence of modernization, which has been built up with a high hand though Japanese occupation, caused trauma and cracks. And this has been generated social conflicts, joining with ideology and fantasy. Converged point of this is Anniversary. If Anniversary and commemorative Struggle were inevitable to be existed as a phenomenon about social memory in the past, willpower heading to future should be reviewed through those days, to fill cracks of the society, not to return to the splitting past.

Keywords : Anniversary, commemorative struggle, Modernization, The desire of Other and subject, Lacan and Althusser, memory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미생』에 나타난 신체 행위소 구조의 이중성에 관한 고찰 - 장그래를 중심으로

송태미*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텍스트의 이중 구조
- III. 장그래의 현존양식
- IV. 해리적 신체-행위소
- V. 가치 체계의 재조정
 - 1. 사례 I
 - 2. 사례 II
- VI. “미생”적 현존의 동시대성
- VII.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때 “노동”을 주제로 한 공론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웹툰 『미생』의 ‘다시 읽기’를 시도하였다. 주인공 장그래의 행위소 구조가 갖는 이중적 성격이 텍스트 전체에 이중적 구조를 부여하며 이는 기존 담론의 장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텍스트 의미를 발견토록 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독서 가설이었다. 이는 아즈마 히로키가 그의 포스트모던 문학론에서 이야기한 ‘탈이야기적 캐릭터’ 개념에 기초한 생각이다. 우리는 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파리학파의 주축을 이루는 기호학자 풍타뉴의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장그래는 발화체 층위의 주체 ‘캐릭터’와 발화 층위의 주체 ‘플레이어’로 분열된 이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

원적 행위소 구조를 보인다. 인물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본 작품은 발화체 주체와 발화 주체 간의 ‘연동/탈연동’ 관계를 메타 픽션의 양식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 캐릭터 층위에서 장그래는 “결핍(현동화)”의 현존양식을 보이지만 플레이어 층위에서 장그래는 “무력감(가능화)”의 현존양식을 보인다. 그의 신체성 또한 이원적 성격을 보이는데 이를 신체-행위소 모델로 나타내면, 캐릭터 층위에서 장그래는 육적 자아와 동일성-자기가 결합된 행위소로, 플레이어 층위에서는 주로 내부수용적 지각을 담당하는 육적 자아와 자기성-자기가 결합된 행위소로 이해될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역할’로서 움직이며 외부수용적 지각을 담당한다면 후자는 주로 ‘태도’로서 움직이며 내부수용적 지각을 담당한다.

이 해리적 성격으로 인해 장그래의 두 ‘자기’는 환경이 요구하는 가치 체계와 개인의 독자성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지 않고 가치의 재조정을 유도한다. 이는 환경과 ‘자기’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고뇌하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범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관례가 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규범 체계는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본 작품의 한 축에는 관례 속에 매몰되어 자기를 잃어버린 인물들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기존 규범을 해체시키고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외에 달리 살 수 없는 장그래가 있다.

장그래는 가치 포화의 시대, 공동체적 가치 공유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현존양식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인물이며 이러한 행위소 구조는 또한 발화체 주체보다 발화 주체에 더욱 감정이입하는 오늘날의 독자와 소통한다.

열쇠어 : 미생, 아즈마 히로키, 행위소적 구조, J. 폰타뉴, 신체-행위소, 현존양식, 가치 선별도식

I. 들어가며

제목부터 바둑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웹툰 『미생』¹⁾은 그 매체적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바둑 게임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형식을 먼저 살펴보면 1989년에 있었던 조훈현과 네웨이핑의 프로 바둑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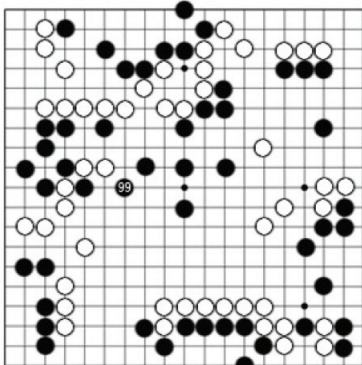
국(이하 조훈현 대국)이 145수까지 소개되고 이와 나란히 바둑연구생 출신 대기업 신입사원 장그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145화의 에피소드로 나뉘어 연재된다. 조훈현 대국의 한 수는 각 에피소드의 서두에 이미지로 등장한다.

이것은 바둑판 위의 한 수가 에피소드 한 편의 전개와 연결되어 있는 인상을 준다. 145수는 아홉개 테마로 분류되며, 각 테마의 소제목 역시 “착수”, “도전”, “기풍”, “정수”, “요석”, “봉수”, “난국”, “사활”, “종국”과 같은 바둑 관련 용어로 되어 있다. 조훈현 대국과 무관하게 장그래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지만, 바둑의 수를 읽을 줄 아는

독자는 그 수와 해당 에피소드의 상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추론해볼



- 99 수 -



제1회 용씨배 결승5경기 제5국
백 九단 네웨이핑(중국) / 흑 九단 조훈현(한국)

1) 윤태호 글, 그림, 『미생(未生)-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Daum 웹툰, 2013년 7월 19일 시즌1 완결.

수 있다.²⁾ 스크롤 방식의 웹툰 화면에서 독자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바둑의 한 수, 만화 한 편, 댓글의 순서로 매 수를 감상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두 텍스트는 서로 ‘대화’한다. 장그래의 이야기는 주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일상을 그리고 있지만, 바둑연구생 출신 주인공이 바둑을 필터로 세상을 본다는 설정에 맞춰 다수 컷 속에 바둑판 이미지가 비유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때 크고 작은 바둑판의 이미지들은 주인공의 현실 인식과 맞물려 마치 조훈현이 놓은 바둑돌이 에피소드 내에서 여러 등장인물들로 인형화(人形化)incarné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흔히 『미생』을 읽을 때 이 모든 바둑 관련 요소들은 비유적 장치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 회사원의 삶’으로 읽을 때 그 생존 경쟁, 업무 기술, 협상 기술, 대인 관계의 요령 등을 바둑판 위에서 펼쳐지는 대결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들이 남긴 댓글 중에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애환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³⁾

e3hyung - 『미생』이 시작될 무렵 저도 직장에서 막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장그래가 보잘 것 없는 저와 얼마나 닮았던지(...)

gms8098 -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때부터 회사원이 되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한 편, 한 편 기다리며 읽었던 만화 『미생』. 『미생』은 회사의 현실, 직장인의 생활이라는 작은 구슬들을 윤태호 작가님의 상상력과 이야기로 꿰어 (...)

2) 실제로 연결지어 읽는 독자들이 적지 않았음이 댓글로 확인된다.

3) 윤태호, 『미생(未生)-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단행본 9권, 위즈덤 하우스, 2013, 250쪽~251쪽.

비평 중에도 노동을 주제로 한 것 외에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김수환은 『미생』에 관해 다음의 물음을 제기한다.⁴⁾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리처드 세넷의 ‘작업장’ 모델과 앙리 르페브르의 ‘리듬 분석’을 참조하여 장그래가 속한 영업3팀을 작업자들 간 협력의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각자 주체적인 노동의 리듬을 습득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보았다. 또 다른 관점을 표현한 김진희의 칼럼을 보자.⁵⁾ 그가 인용한 케이시 워스의 말은 비평의 핵심을 잘 요약해준다. “의아한 것은 이렇게 일해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기꺼이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일이 그토록 고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일이 다른 취미나 여가 활동보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김진희는 『미생』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를 벗어나면 생존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암시밖에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미생』을 ‘노동’이라는 테마로 읽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마땅해 보인다. 특히 ‘오과장’의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부분은 작가가 그 인물을 통해 노동의 의미에 관해 묻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난 왜 일에 의미를 부여했을까... 일일 뿐인데...(<138수>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텍스트의 즐거움’⁶⁾에 기대어 조금 다른 독

4) 김수환, “미생이 판타지라고? 아니, 불가능한 성장 소설 - [이렇게 읽었다] 윤태호의 <미생>”, 프레시안, 2013년 12월 05일자.

5) 김진희 칼럼,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겨레:온, 2016년 01월 23일자.

6)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바르트의 표현은 텍스트의 해석에 독자의 자율적 개입의 여지를 확보해준다. 여기서 즐거움은 텍스트의 조각들을 짜맞추는 브리콜라주bricolage의 즐거움을 가리킨다.

서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신입사원 장그래가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둑기사 장그래가 마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바둑을 둔 것이라면? ‘대기업 신입사원’에 맞춰졌던 초점을 ‘게임 플레이어’로 이동시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물음은 주인공 장그래의 특이성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는 이름부터 말, 행동, 외모까지 평범한 신입사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다. 그는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서가 아니라 개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서 이상하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상사 김 대리는 <46수>에서 다음과 같은 심경을 밝힌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 우리 하는 일은 팀워크가 생명인데, 지금 우린 최상이야. 난 그게 불안하거든. 보통 신입이 취업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힘들어하거나, 합격했다는 기쁨에 오버하는 게 보통이거나, 좀 침착한 사람이라도 ‘자기’라고 하는 지점이 돌출되기 마련이거든. 당신은 그게 없어. 뭐든 우리 뜻을 기꺼이 따르고 한 마디 불평이 없지. (...) 당신은 정말 모든 걸 수용하겠단 자세로 회사에 들어온 것 같단 말이야. (<46수> 중)

입사 동기들과는 다르게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장그래의 태도가 김 대리는 거슬렸던 것이다. 장그래의 이러한 특징이 김 대리와의 갈등을 묘사하기 위한 부분적인 요소로 등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몇몇 대목을 짚어보자.

“장그래? 그래? Yes? 이렇게 긍정적인 이름이 있나.”

(<4수> 중 첫 출근 날 인사과 직원의 말.)

“YES! YES! YES! JJANG! 누가 있겠어요, 또.”

(<48수> 중 우연히 만난 어린이집 직원과의 SNS 문자 메시지.)

‘Yes 짱’⁷⁾의 태도를 의심스러워하는 김 대리에게 장그래는 자신이 과거에 바둑을 두었고 현재도 ‘바둑을 두고 있음’을 은밀히 고백한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둔 대국들입니다. 저 혼자서, 하루를 한 판의 바둑으로 보고 둔 일기대국이죠.”

“근데 왜 하루가 여러 장이야?”

“바둑에 다면기라고 있어요. 바둑은 기본적으로 1:1인데, 다면기는 바둑의 고수가 나와 여러 명의 대국자와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고수가 다 이기죠. 사회에도 다면기가 있더군요. 사회의 다면기는 좀 다른 것이... 하수도 다면기를 뒀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리님과 한 판이 있고, 과장님과 한 판이 있고, 타 부서와의 한 판에, 경쟁상대와의 판을 벌여야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회사 자체와도 한 판을 뒀야 할 것입니다. (...) 기력차가 있는 바둑에서, 하수는 흑돌을 쥐고 선수를 두죠. 먼저 둡니다. 더 낮은 하수는 접바둑이라고 해서 8점, 4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둑에선 하수가 고수와 마주할 때, 급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사회에선, 고수를 상대로 신입사원이 접바둑을 둡니다. 고수가 이미 4점, 8점,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돌을 깬 곳에 들어가는 거죠.”
(<46수> 중)

장그래는 바둑 연구생 시절에 했던 대로, 회사에서 겪는 일들 속에서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밤마다 복기를 한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대국에서 장그래는 자기 자신을 흑돌로 사용하는 바둑 기사이다. 장그래에게 오 과장은 백돌, 김 대리도 백돌, 원 인터내셔널은 백돌이 잔뜩 깔린 바둑판인 것이다.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기’와 ‘노동 환경’간의 갈등이 장그래라는 사람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대리의 궁금증이었다.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바둑을 둡니다.”라는 장그래의 말은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엄밀한 의미에서 장그래가

7) 극중 장그래의 SNS 계정 아이디가 ‘yes jjang’이며, 발음을 국어로 표기하면 ‘에스 짱’이다.

말하는 바둑은 바둑일 수 없다. 그것은 바둑과 같은 어떤 게임이다. 게임 플레이어는 게임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게임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주어진 게임 환경과 규칙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장그래의 대답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장그래라는 인물 속에 ‘신입사원 장그래’와 ‘(유사 바둑 게임의) 플레이어 장그래’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소적 이중 구조가 드러나는 양상을 특별히 파리학파 기호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한 후 주인공 장그래의 현존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장그래의 현존양식이 보이는 특징이 그의 신체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 체계의 재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의미를 읽고자 한다.

II. 텍스트의 이중 구조

웹툰 『미생』의 스크롤 화면은 다음의 순서로 독자의 시선을 이끈다. 먼저 조훈현 대국이 펼쳐지는 바둑판 이미지가 있고 이어서 여러 컷으로 이루어진 만화 텍스트가, 그리고 댓글이 있다. 웹툰의 이러한 매체적 형식에 관해서는 다방면의 흥미로운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둑판 이미지와 만화 텍스트의 관계만 주목해보자. 일차적으로 이들은 ‘파라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텍스트para-texte’는 주네트 G. Genette 가 정의한 개념으로, 제목, 서문, 각주 등과 같이 텍스트의 주변에 배치되어 주 텍스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보조 텍스트들을 가리킨다.⁸⁾ 주네트는 파라텍스트가 주 텍스트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파라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8) G. Genette, *Seuils*, Paris, Seuil, 1987. 파라텍스트 중에서도 페리텍스트 *péritexte* 에 해당한다.

만, 이는 두 텍스트의 관계가 어디까지나 작가가 의도한 배치와 기능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신입사원 장그래의 이야기를 주 텍스트로, 바둑판 이미지를 파라텍스트로 읽는 것은 표준적인 독서일 것이다. 그런데 『미생』은 장그래라는 묘한 인물을 통해 또 다른 독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중 구조의 텍스트로 읽는 방식이 그것이다. 1989년에 있었던 조훈현과 네웨이핑의 프로 바둑 대국을 만화 텍스트와 동등한 또 하나의 주 텍스트로 읽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작품에서 두 개의 텍스트가 상호작용하며 한 편의 담화를 생성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훈현 대국 텍스트와 만화 텍스트를 횡단하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장그래의 역할 속에서 두 텍스트는 더 이상 파라텍스트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호텍스트적 관계(Intertextualité⁹⁾)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형식의 이중 구조가 내용의 이중 구조와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중 구조는 만화 텍스트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내용면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이야기를 단일한 구조로 읽는다면 본 작품은 대기업 신입사원 장그래의 이야기다.

- 장그래는 한국 기원에서 바둑 연구생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입단에 계속 실패한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 더 버티지 못하고 사회로 나온다. 지인의 소개로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대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다. 업무 능력은 부족하나 바둑으로 길러진 승부사 기질을 바탕으로 인턴사원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러나 고졸 학력에 별다른 스펙도 없어 계약직 직원이 된다. 팀웍이 좋은 영업3팀에서 오과장, 김대리와 함께 일하면서 나름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정규직 전환에는 실패한다.

9) G. Genette, *Palimpseste*, Paris, Seuil, 1982.

주네트는 본 저서에서 텍스트들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é), 파라텍스트성(paratextualité), 메타텍스트성(métatextualité), 아키텍스트성(architextualité), 트랜스텍스트성(transtextualité)의 다섯 가지 분류를 소개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살펴본 장그래의 이중적 정체성을 텍스트의 이중성에 대입해보면, ‘신입사원 장그래’는 만화 텍스트 층위에서, ‘플레이어 장그래’는 바둑 게임 텍스트 층위에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둑 게임 텍스트 층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바둑은 게임이다. 게임마다 조금씩 룰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게임은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면 게임이 종료된다. 그리고 게임이 리셋된다. 플레이어 장그래는 한국 기원을 떠나며 게임의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새로운 바둑판에서 새로운 유형의 바둑 게임에 직면한다. 이 게임에서 그는 흑돌 대신 ‘신입사원 장그래’를 한 수 한 수 두며 게임에 도전한다.

‘신입사원 장그래’의 이야기는 ‘플레이어 장그래’가 도전하는 게임 텍스트에 해당한다. 전자는 후자가 두는 바둑알, 움직이는 캐릭터이다. 장그래는 두 층위를 왕복한다. 이 알레고리의 관계를 통해 플레이어 장그래의 이야기는 신입사원 장그래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장그래가 바둑을 시작해서 바둑 연구생이 되고, 입단에 실패한 후 기원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이 소개되는 <착수>는 플레이어의 층위에 속한다.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바둑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1수>와 <2수>, 그리고 오과장을 소개하는 <3수>는 캐릭터 층위의 텍스트가 열리는 과정이며, 바둑판 위에 첫 흑돌이 놓여진 <4수>, 즉 장그래가 <원 인터내셔널>에 첫 출근을 하는 상황으로부터 플레이어 층위의 텍스트와 캐릭터 층위의 텍스트의 본격적인 이중 구조가 시작된다.

이러한 ‘다시 읽기’의 방식은 아즈마 히로키의 포스트모던 문학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장그래에게서 히로키가 말한 ‘캐릭터의 탈 이야기적 혹은 메타 이야기적 태도’¹⁰⁾를 본다. 히로키는 라이트노벨 분

10) 아즈마 히로키 지음, 장이지 옮김,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 현실문화, 2012, 25-36쪽.

석을 통해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보다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창작,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캐릭터를 둘러싸고 작품(이야기)의 층과 환경의 층(캐릭터의 데이터베이스)이 별개로 존재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환경이 출현하였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상상력의 환경이 이야기 수용과 디지털 게임 플레이에서 유사하게 작용함을 밝히고 그의 문학론을 ‘게임적 리얼리즘’이라 명명한다. 『미생』을 게임적 리얼리즘 소설로 읽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장그래가 ‘탈이야기적 캐릭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작품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하자.

우리의 방식으로 작품을 읽을 때 『미생』은 담화 기호학에서 말하는 발화 실천(*praxis énonciative*¹¹⁾)의 메커니즘 자체를 재현하고 있는 메타 픽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발화 실천은 폰타뉴 J. Fontanille 가 고안한 개념으로, 폰타뉴는 이 개념을 통해 기호학의 두 흐름을 종합한다. 파리기호학과에 한편에는 서사적 변형과 프로그램된 행위소 구조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는 흐름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위치의 장과 발화 심급을 중심으로 하는 현존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있다. 이를 두고 일찍이 코케 J.-C. Coquet 는 객관의 기호학(*sémiotique objectale*)과 주관의 기호학(*sémiotique subjectale*)으로 구분한 바 있다.¹²⁾ 폰타뉴의 공헌은 이러한 구분에서 더 나아가 이 두 관여성 영역을 통합한 것에 있다.

(...) les deux domaines de pertinence doivent être désormais associés au sein d'une même sémiotique du discours. En effet, on ne peut ni réduire l'instance de discours au champ positionnel, ni réduire le discours énoncé à la scène prédicative. (...) Entre une option qui consiste à tout éclairer à la lumière du champ positionnel du discours, et une autre qui consiste à tout

11)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aris, Pulim, 2003, pp.284-288.

12) J. -C.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 Paris, Klincksieck, 1985, pp.27-153.

ramener à une structure actantielle narrative, nous avons donc choisi de conserver à chacun de ces points de vue son domaine de pertinence, et de les associer grâce à la notion de praxis énonciative.

(...) 우리는 이 두 관여성 영역을 담화의 기호학이라는 하나의 기호학 내에서 연결시키고자 한다. 담화 심급을 위치의 장에 제한할 수도 없고, 발화된 담화를 서술 장면에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모든 것을 담화의 위치의 장으로 조명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서사적 행위소 구조에 소환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발화 실천praxis énonciative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이 그 관여성 영역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둘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Fontanille, *ibid.*, p170-171)

앞서 우리가 구분한 캐릭터 층위의 장그래의 이야기는 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발화체énoncé, 즉 서술 장면scène prédicative에 해당하며, 플레이어 층위의 이야기는 발화énonciation의 층위에 해당한다. 발화체 층위에서는 발화자와 스토리의 탈연동débrayage이, 발화 층위에서는 둘의 연동embrayage이 이루어진다. 요컨대 『미생』의 플레이어 층위와 캐릭터 층위의 이중 구조는 “연동/탈연동brayage”¹³⁾의 관계를 메타 픽션의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화의 관점, 다르게 말해 실행 중인 담화discours en acte의 관점에서 바둑기사 장그래가 신입사원 장그래의 현실로 “탈연동débrayage”할 때 이 “탈연동”은 ‘위치의 장’을 형성하는데, 바둑기사 장그래는 장의 중심에 위치하며 신입사원 장그래의 현실은 장의 지평을 구성한다. 이 중심과 지평 사이의 거리는 담화의 통사를 구성하는 장치 중 하나인 ‘깊이profondeur’를 형성한다.¹⁴⁾

Le débrayage est d'orientation disjonctive. Grâce à lui, le monde du

13) J. Fontanille, *ibid.*, 2003, p.99.

14) 풍타뉴의 담화 기호학 이론에서 ‘깊이’는 현존의 장을 구성하는 중심과 지평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 중심과 지평 사이의 긴장 관계는 강도와 외연의 균형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균형이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야만 깊이가 존재할 수 있다.

discours se détache du simple “vécu” indicible de la présence; le discours y perd en intensité, certes, mais y gagne en étendue. (...) L’embrayage est en revanche d’orientation conjonctive. Sous son action, l’instance de discours s’efforce de retrouver la position originelle. (...) Le centre est institué par le corps sensible lui-même; c’est le lieu de l’intensité maximale, pour une étendue minimale. (...) Les horizons sont ceux qui délimitent le domaine de la présence. (...) ils correspondent à l’intensité minimale, pour une étendue maximale.

탈연동은 분리하는 작용이다. 탈연동 덕분에 담화의 세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현존의 “체험”으로부터 분리된다. 담화는 이 과정에서 강도를 잃어버리지만 외연을 얻는다. (...) 반면 연동은 접합하는 작용이다. 연동의 작용으로 담화 심급은 기원적 위치를 되찾으려고 한다. (...) 위치의 장의 중심은 감각하는 신체 자신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은 최소 외연에 대한 최고 강도의 지점이다. (...) 장의 지평은 현존의 장을 한정하는 지평을 말한다. 이는 최대 외연에 대한 최소 강도에 해당한다. (...) 깊이는 중심과 지평 사이의 이 거리를 말한다.¹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담화가 “탈연동”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부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 “연동”의 시뮬라크르¹⁶⁾를 보여주는데 반해 『미생』은 불완전한 “탈연동”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또는 “탈연동”과 “연동”을 반복함으로써 장그래라는 인물이 분열된 상태에, 복수(複數)적인 상태에 머무르도록 만든다. 따라서 담화의 깊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미생』의 텍스트적 이중 구조는 <4수>에서 예고된다. 장그래는 첫 출근날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자리에 나간다. 미팅 약속 시간에 늦은 오과장을 대신해 바이어를 잠시 잡아놓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바둑 퀴즈로 바이어의 환심을 사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고 오과장을 만난다.

15) J. Fontanille, *ibid.*, 2003, pp.99-101.

16)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419쪽.

“아까 낸 퀴즈가 이거였어?”

“네.”

“환격!7)이네~ 먹여치기”

“네.”

“바둑 둘 줄 알아?”

“아뇨.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어~ 머리 좋은데? 어떻게 바둑으로 퀴즈 낼 생각까지 했어?”

“바둑이 간단한 규칙이잖아요. 그 안에 이런 절묘함이 숨어 있으니 매력적인 거구요.”

“바둑 둘 줄 알아?”

“아뇨... 인터넷에서...” (<4수> 중 장그래와 오과장의 대화)

출근 첫날 접한 업무의 상황은 장그래가 퀴즈로 낸 바둑 대국의 상황과 일치한다. 상사는 바이어를 붙잡아 놓기 위해 장그래를 보낸다. 그리고 장그래는 바둑 퀴즈를 통해 바이어를 붙잡아 두는 데에 성공한다. 이 장면은 이후에 전개될 텍스트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다. 하나는 대기업 노동의 현장이 바둑판 위의 게임에 비유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그래가 바로 이 상황에서처럼 바둑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이면서 동시에 대기업 노동 현장이라는 바둑판 위의 돌(게임 캐릭터)이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이중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장그래의 행위소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III. 장그래의 현존양식

장그래를 제외한 『미생』의 주요 인물들은 한편으로는 대기업 노동자의 위상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는 노동의 의미를 찾

17) 바둑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돌 하나를 잡게 놓아둔 뒤에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놓아서 상대 돌을 잡는 일.

지 못해 고민한다. <81수>에서 <원 인터내셔널>을 떠난 김선배는 오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 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회사에 소속된다는 것은 곧 삶다운 삶을 의미하며 회사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는 말일 것이다. 밖이 지옥이라면 대기업 노동자의 자격은 반드시 획득해야 할 가치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물들에게서 가치 대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치를 재고하는 불안한 모습,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예컨대, <17수>부터 <20수>까지 전개된 에피소드의 주인공 박대리와 <21수>부터 <22수>까지, <121수>부터 <123수>까지 전개된 에피소드의 주인공 선차장도 그러한 인물에 해당한다.

“행복한데... 행복하긴 한데... 나만 문제야... 이만한 행복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거야.”(<17수> 중 박대리의 말)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22수> 중 선차장의 말)

“직장인이 승진하고 월급 빼면 뭐 있나? 아무리 좋은 의미 갖다 붙여봤자 말이야.”(<50수> 중 김대리의 말)

예의 인물들은 그레마스 A.J. Greimas 의 초기 이론인 행위 기호학의 틀을 벗어나 있다. 행위 기호학은 가치 대상을 획득하기 원하는 ‘욕망하는 주체’를 표준적인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며,¹⁸⁾ 따라서 가치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가치 대상으로 인해 압박을 느끼는 주체는 예외적인 주체로 취급한다. 이러한 주체의 행정을 서사 도식으로 설명한다면 단순하고 피

18)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Seuil, 1966, p.180. (rééd. 1986, PUF)

상적인 수준의 분석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의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들의 서사 프로그램보다는 현존의 양식(양태)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폰타뉴는 지향visée과 외연étendue의 긴장 관계 tensivité를 통해¹⁹⁾ 네 가지 유형의 가능한 현존 양식mode d'existence을 구분하였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⁰⁾

	강한 지향성(Visée intense)	약한 지향성(Visée affaiblie)
확장적 외연의 포착 (Saisie étendue)	충만함 (Plénitude) 실현화 (Mode réalisé)	무력감 (Inanité) 가능화 (Mode potentialisé)
제한적 외연의 포착 (Saisie restreinte)	결핍 (Défaut) 현동화 (Mode actualisé)	공허 (Vacuité) 잠재화 (Mode virtualisé)

『미생』의 주인공들이 노동의 가치를 추구할 때, 이들의 현존 양식은 “결핍défaut”에 기초한 <현동화> 양식임에 틀림이 없다. “결핍”의 현존 양식은 강한 지향성과 제한적 외연의 포착을 특징으로 한다. 인물들은 노동자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한 사람의 팀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인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자주 회의를 느끼고 갈등한다. 회의를 느끼면서도 행위를 멈추지 못할 때 이들의 현존 양식은 “결핍”보다는 “무력감 inanité”에 기초한 <가능화> 양식에 가깝다. “무력감”의 현존 양식은 약한 지향성과 확장적 외연의 포착을 특징으로 한다. 인물들은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큰 허무함을 느낀다.

19) 폰타뉴는 ‘의미는 지각이다’라는 명제를 토대로 하나의 의미가 의미로 확립되기 이전 단계, 즉 ‘선조건 층위’에서 의미는 지각하는 신체corps sensible가 지향하는 강도visée와 포착하는 외연étendue의 상관 관계를 통해 결정됨을 주장하였다. 의미를 생성하는 담화는 이 지향과 외연의 관계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현존 양식을 나타낸다.

20) J. Fontanille, *ibid.*, p.141.

“다들...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40수> 중)

정반대되는 특징을 지닌 두 현존 양식 사이 어디쯤에서 『미생』의 인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표면적으로 탐색quête의 서사 도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 중에는 탐색 도식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종종 발견된다. 19세기 작품이지만 놀라운 모더니티를 보여주는 도스토예프스키 Dostoevskii의 『노름꾼 *Le Joueur*』은 그 대표적인 예²¹⁾로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행위에 의미를 재부여하기 위해 소유물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탐색quête”이 아니라 “위험/도전risque”의 도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위험/도전risque”의 서사 도식은 대상에 대한 인물의 “무력감inanité”에 기초한다. 애초에 대상의 가치가 약하게 지향되는 상태에서 인물은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재활성화한다.

퐁타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제기되는 문제는 결핍의 문제보다는 포화의 문제이다.²²⁾ 가치 대상이 결핍된 상황에서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의 어려움보다는 가치 대상의 지나친 현존을 개인이 감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포 또는 불안이 쟁점인 것이다. 실제로 현대의 이야기꾼들은 이러한 포화 상태에 직면한 다양한 인물들의 대응 방식을 보여준 바 있다. 퐁타뉴가 언급한 사례를 보면²³⁾ 이오네스코 작품에서 서사 주체들은 감당할 수 없이 다가오는 가치 대상들 앞에 공포를 느끼고 도주한다. 누보 로망으로 분류되는 소설들 중 로브-그리에 Robbe-Grillet의 『질투 *La Jalousie*』, 르 클레지오 Le Clézio의 『조서 *Le Procès-verbal*』는 가치 대상들에 의해 압박을 느끼는 주체를 보여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페렉 Pérec의 『사물들 *Les Choses*』은 “가치 대상의 탐색이 어떻게 상투적인 행동들을 유도하며, 이런 대상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

21) J. Fontanille, *Op. cit.*, PULIM, 2003, pp.124-125.

22) J. Fontanille, *ibid.*, pp.124-125.

23) J. Fontanille, *ibid.*, p.124.

들의 가치가 점차 소거되는가”²⁴⁾를 보여준다.

Cette convergence tendrait à prouver qu’aujourd’hui, la question qui se pose serait moins celle du manque que celle de la satiété: il faudrait fuir, ou apprendre à supporter la présence envahissante des objets, ou inventer de nouveaux systèmes de valeur, pour des quêtes inédites à imaginer.

서사의 이 같은 다양한 흐름은 오늘날 제기되는 문제가 결핍의 문제보다는 포화의 문제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망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치들의 침략적인 현존을 감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도 아니면 새로운 가치 체계를 고안해내야 하는데, 이는 어쩌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탐색을 가능케 할지 모른다.²⁵⁾

이중 구조의 정체성을 가진 장그래의 경우를 보자. 캐릭터 층위에서 장그래는 노동자의 위상을 추구하는 탐색 서사 프로그램을 따르며, 강한 지향성과 제한적 외연의 포착을 특징으로 하는 “결핍”-현동화-의 양태를 보인다. 장그래가 갖춘 스펙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자격을 얻기가 힘들지만 인턴사원을 거쳐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러한 행정은 전형적인 “탐색quête” 도식에 상응한다.

1월은 연봉 조정, 임금 인상 시기다. 물론 계약직은 해당 사항 없다.
(...) 같은 사람이고 싶다. (<94수> 중 장그래의 독백)

“평소대로만 하면, 이대로만 하면 정사원 되는 거죠?” (<94수> 중 장그래와 오차장의 대화)

고졸에 특기 하나 없는, 사장 뺨으로 들어온 낙하산이지만, (...) 길은 내

24) J. Fontanille, *ibid.*, p.124.

25) J. Fontanille, *ibid.*, p.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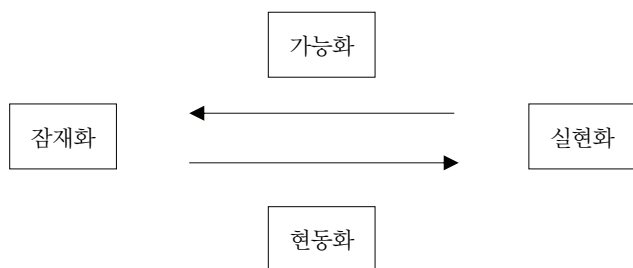
힘으로 열어야 한다. 작년 고졸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은 전무하다.
(<95수> 중 장그래의 독백)

그러나 플레이어 장그래에게 이것이 하나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그는
“위험/도전risque” 도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불이다! 바둑도, 사업도. 바둑의 고수들은 대개 다혈질이다. 승부를 결정
하는 그 순간만큼은 불이다. 불이어야 한다. 승부를 결정지어야 할 때는
재가 되듯 타올라야 했다! (...) 나의 바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99수>
중 장그래의 독백)

“탐색quête”의 서사는 “결핍”의 현존 양식에 기초하며 이는 결핍된 가치 대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운동으로 <현동화 양태mode actualisé>에 해당한다. 반면, “위험/도전risque”의 서사는 대상의 가치를 의심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대상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존 가치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잠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운동으로 <가능화 양태mode potentialisé>에 해당한다. 그런데 풍타뉴는 “위험/도전” 서사가 “무력감inanité”의 현존 양식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대상을 포착하면 할수록 지향성이 하락하는 “무력감inanité”의 상태는 노동을 지속하면서도 노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탈해하는 <원 인터내셔널>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동화>의 양태와 <가능화>의 양태를 이중적으로 가진 장그래의 현존양식은 “결핍”으로도, “무력감”으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네 가지 양태 중 이 둘은 모두 운동성을 지닌 양태이면서 이들의 운동성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동화>는 잠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며, <가능화>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잠재적인 차원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이다.



장그래는 이 두 유형의 현존양식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현동화>하는 행위소와 <가능화>하는 행위소는 뚜렷하게 분리되어 장그래라는 한 인물 속에 공존하기 때문이다.²⁶⁾

『미생』의 다른 등장인물들이 노동을 지속하면서도 노동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inanité”의 현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부과되는 가치 체계에 대한 그들의 신체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장그래의 현존 양식은 행위소의 신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검토할 것이다.

IV. 해리적 신체-행위소²⁷⁾

퐁타뉴는 그레마스가 고안한 ‘행위소actant’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이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계획된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능적 단위로서만 존재했던 기존 행위소에 ‘신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담화에 등장하는 행위자 중 서사적 역할rôle로서만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26) 이러한 행위소가 우연히 한, 두 작품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퐁타뉴의 분류에 나타나 있지 않은 두 가지 현존 양식의 결합에 관해 기호학은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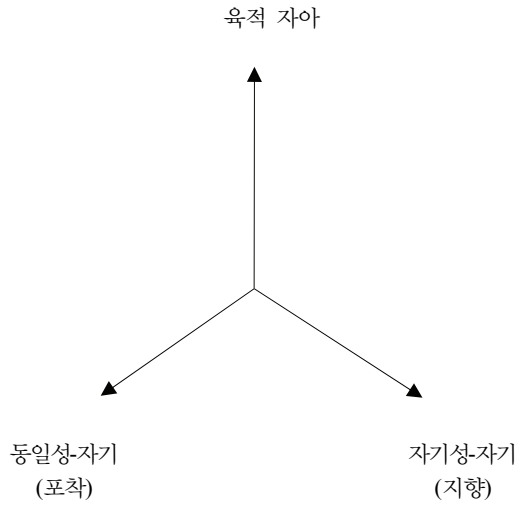
27) ‘해리적’이라는 말은 본래 정신의학 용어 ‘해리성 다중인격장애 Dissociative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에서 유래한 것인데, 아즈마 히로키는 캐릭터와 플레이어의 이층 구조로 이야기를 수용하는 독자의 의식을 ‘해리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아즈마 히로키 지음, 이은미 옮김,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문학동네, 2012, 131-165쪽.

비서사적 인물, ‘역할rôle’²⁸⁾보다는 ‘태도attitude’²⁹⁾로서 존재하는 인물들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한 ‘신체-행위소 Corps-actant’ 모델은 ‘자아moi’와 ‘자기soi’의 구분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³⁰⁾ ‘자아’와 ‘자기’는 그 신체성에 따라 다시 ‘육적 자아Moi-chair’와 ‘신체적 자기Soi-corps’로 나뉜다. ‘자아Moi’는 현존의 장에서 행사되는 긴장과 압력에 순응하는 감각 신체를 뜻하며 피육chair은 모든 변형 행위에 저항하거나 참여하는 발화의 심급instance énonçante으로서 지시의 중심centre de référence이면서 동시에 위치 설정의 중심centre de la prise de position이 된다. ‘육적 자아’는 감각-운동성sensori-motricité의 요체로서, 현존의 장에서 행사되는 압력과 긴장의 강도에 반응한다. 이때 ‘육적 자아’는 두 가지 관성inertie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데, 그것은 각각 ‘잔류rémanence’와 ‘포화saturation’이다. ‘잔류’는 힘의 전복에 대한 시스템의 저항으로, 주로 반사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포화’는 힘의 강도에 대한 저항으로,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신체적 자기’는 매순간 육적 자아의 움직임을 참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수정하는 행위소이다. 이때 끊임없이 타자성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신체적 자기’는 다시 ‘동일성-자기Soi-idem’와 ‘자기성-자기Soi-ipse’로 세분된다. ‘동일성-자기’는 반복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기성-자기’는 지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갱신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성-자기’가 주어진 서사적 “역할”에 충실하다면 ‘자기성-자기’는 고유한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이에 저항하는데, 이 두 ‘자기’의 긴장적 관계 속에서 ‘육적 자아’의 이동이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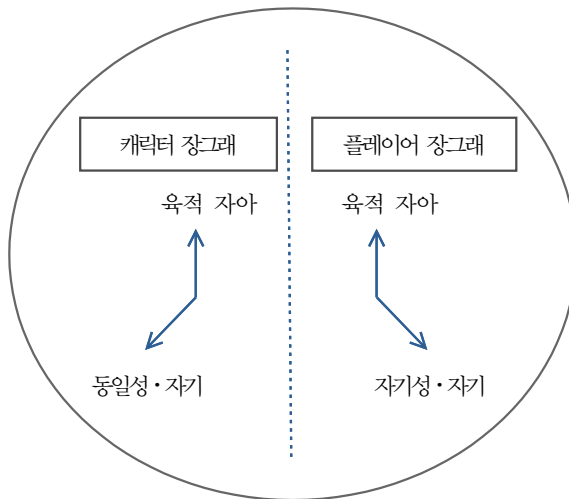
28) 기호학에서 ‘역할rôle’은 ‘기능fonction’과 거의 동의어로서, 서사 프로그램이 부여하는 고정된 자리, 순수한 기능을 뜻한다.

29) 풍타뉴의 답화 기호학에서 ‘태도attitude’는 ‘역할rôl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역할’이 인물의 고정된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반면, ‘태도’는 정체성을 혁신함으로써 정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며 행위소 또는 행위자를 “~되기”, 즉 생성의 과정에 둔다.

30) J. Fontanille, *Corps et sens*, Paris, PUF, 2011, pp.11-28.



〈신체 행위소 모델〉³¹⁾



31) J. Fontanille, *ibid.*, 2011, p.26.

장그래는 한편으로 ‘육적 자아Moi-chair’와 ‘동일성-자기Soi-idem’가 강하게 결합된 캐릭터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육적 자아Moi-chair’와 ‘자기성-자기Soi-ipse’가 강하게 결합된 플레이어로서도 존재한다. 둘은 두 층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독특한 관계에 있다.

‘육적 자아’는 감각성과 운동성을 가지는데, 캐릭터 층위에서 움직이는 장그래의 ‘육적 자아’는 외부 환경을 지각하는 감각성과 운동성, 즉 외부수용적 감각-운동성extéroceptivité으로 특징지어 지며, 플레이어 층위에서 움직이는 장그래는 주로 내부를 지각하는 감성, 즉 내부수용적 감각intéroceptivité으로 특징지어 진다. 캐릭터는 주로 “역할rôle”로서 움직이며 ‘외연적 포착saisie/extension’을 담당하고 플레이어는 “태도attitude”로서 움직이며 ‘강도적 지향visée/intensité’을 담당한다. 따라서 ‘동일성-자기’와 ‘자기성-자기’의 갈등이 캐릭터 층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장그래는 환경과의 갈등을 겪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하는 듯 보이는 것이다.

우리 하는 일은 팀워크가 생명인데, 지금 우린 최상이야. 난 그게 불안하거든. 보통 신입이 취업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힘들어하거나, 합격했다는 기쁨에 오버하는 게 보통이거나, 좀 침착한 사람이라도 ‘자기’라고 하는 지점이 돌출되기 마련이거든. 당신은 그게 없어. 뭐든 우리 뜻을 기꺼이 따르고 한 마디 불평이 없지.<46수> 중)

또한 플레이어 층위에서 장그래는 ‘동일성-자기’의 방해 없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

신입의 입에서 나온 파격적인 아이디어에, 누구 하나 쉽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74수> 중)

『미생』은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원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시스템

과 매뉴얼을 통해 “효율성”을 실현하는가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신입사원 교육 시스템과 해당 매뉴얼(<35수> 중), 물량 운송 시스템과 해당 매뉴얼(<15수> 중), 기획서와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시스템과 해당 매뉴얼(<39수> 중), 사업 아이템 결정 및 보고 시스템과 해당 매뉴얼(<41수> 중)... 심지어 임원급 회의실에 어떤 다과와 비품을 어떻게 선별하여,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서까지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86수> 중). <원 인터내셔널> 사내의 모든 일들은 시스템과 매뉴얼에 의해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미생』은 <원 인터내셔널>의 “효율성”을 바둑(게임)의 “효율성”과 대비시킨다. 바둑(게임)도 효율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바둑은 효율의 게임이며 (...) 모든 행마는 생과 사 이전에 효율을 추구한다. 효율이 치명적으로 무너질 때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13수> 중 조훈현의 바둑 대국 한 수에 대한 박치문 기보 해설가의 해설³²⁾)

효율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원 인터내셔널>의 가치체계와 바둑의 가치체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합리적’이라는 게 나를 떠나 모두를 품으면 더 이상 나만의 ‘합리성’은 고집하기 힘들어진다. 조금씩 각각의 개성을 양보한 총합이 단체의 ‘합리성’인 것인가? 바둑의 ‘합리적’인 ‘정석’은 승자의 역사에 출현한 신형(新型)과 신수(新수)의 계속된 업데이트로 비롯된 결과다. 새로운 의견(新수)이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둑에서는 이것이 ‘합리성’이다. 개인의 파일 분류 기준을 효율성에 따라 회사의 기준에 따르는 것은 이해되는 바지만, 업데이트되지 않는 회사의 기준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35수> 중 장그래의 독백)

32) 윤태호 글, 그림, 박치문 기보 해설, 『미생』 단행본 1권, 위즈덤하우스, 2012년, 235쪽.

<원 인터내셔널>의 합리성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기준 체계와 매뉴얼에 의해 보장된다면, 바둑(게임)의 합리성은 각 개인의 개성적 선택을 통한 체계의 업데이트에 의해 보장된다. 전자는 각 개인이 정해진 “역할rôle”에 충실하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개인의 고유한 지향성을 가진 “태도attitude”를 통해서 실현되는 합리성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있고 매뉴얼이 지켜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노동자들도 모두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의 신체는 조직의 합리성이 행사하는 압력에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 <원 인터내셔널>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뉴얼을 따르는 합리성에 익숙해진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야근을 하고 형식만 채운 기획서를 올린다. 반면 어렵고 위험한 아이টে에 집착하는 오과장, 게임을 필터로 세상을 보는 장그래와 같은 이들은 게임의 합리성을 버리지 못한다. 이들은 <원 인터내셔널>의 합리성이 가하는 압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신체성을 보여준다.

습관적으로 야근을 하는 한석률의 선임, 형식만 채워진 기획서를 작성하는 안영이의 선임, 직장인 사춘기를 겪는 장백기의 모습은 모두 잔류³³⁾ 관성으로 설명되며 ‘대기업 사원’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일성-자기의 사례를 보여준다.

직장인의 일상이란 것이 내 손안에 쥐어진 성취라고 마땅히 느껴지던 어느 날, 홀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직장인 사춘기. 계통이 다 파악된다. 선임의 의례적 힐책에 적절한 표정도 제법 갖췄다. 피시방 의사 각도가 나오고, 수화기 쥐는 품이 달라진다. (<124수> 중)

33) ‘잔류’ 개념에 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 최용호, 「자크 퐁타뉴의 ‘신체 행위소’ 개념에 대하여」, 『프랑스학연구』 82, 프랑스학회 2017, 104-105쪽.

‘잔류’ 관성을 보이는 인물들은 『미생』의 주요 주인공들과 대비를 이룬다. 성취 동기가 강한 한석률, 도전 정신이 강한 안영이는 자신의 고유한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변화 속에서 정체성을 갱신하는 ‘자기성-자기’의 사례로서 <원 인터내셔널>의 합리성과 자주 충돌하며 ‘동일성-자기’가 강한 선임과 갈등을 겪는다. 승부사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오과장은 ‘동일성-자기’와 ‘자기성-자기’의 긴장감이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이러한 기질은 <원 인터내셔널>의 합리성과 상충하기 때문에 사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오과장님은 (...) 자꾸 어렵고 위험한 아이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그걸 피를 꿔게 하는 거지.” 승진이나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일 자체의 멋과 맛에 취한 남자... “45세에 과장은 많이 늦은 거지.” (<43수> 중)

게임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장그래의 출현은 오과장의 승부사 기질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그는 중요한 상황에서 ‘포화’³⁴⁾ 관성으로 반응하는 장그래의 기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용한다.

그런가 하면 <원 인터내셔널>의 합리성과 맞지 않는 어떤 개인적 성향 때문에 ‘잔류’의 관성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어찌지 못해 괴로워하는 박대리와 같은 인물도 있다. 그는 기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어떤 사안이든 상관없이 단호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의 신체는 모든 외부 자극에 우유부단함의 ‘잔류’ 관성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자주 <원 인터내셔널>의 이익과 상충하여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그가 장그래와의 만남을 계기로 ‘잔류’의 관성을 극복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장그래는 박대리 에피소드에서 두 단계에 걸친 ‘포화’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장그래의 개인적 가치 선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서사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신체-행위소’의 의의는

34) 같은 글, 106-107쪽.

새로운 가치 부여의 가능성에 있다.³⁵⁾ 우리는 다음 장에서 박대리 에피소드를 통해 장그래의 이중적 행위소 구조가 가치선별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V. 가치 체계의 재조정

플레이어 장그래는 입사 이후 줄곧 게임 상대가 누구인지, 경쟁자와 협력자, ‘나’와 ‘우리’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여기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5수> 중)

“이건 뭐 소린가? 정사원 되기 전엔 서로 경쟁자 아닌가? 경쟁해야 할 사람들끼리 스터디라니...” (<5수> 중)

“혼자 싸워야 하는 반상 위보다 세상은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것 같다.” (<10수> 중)

“세상은 훨씬 냉정하고 차갑다.” (<10수> 중)

“일원이 된 기분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위해주는 사람이나 (...) 모두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12수> 중)

플레이어 장그래가 새로운 게임의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은 <17수>부터 <20수>까지 이어지는 박대리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레마스의 행위 기호학 이론을 적용하여 캐릭터 층위의 이야기만 분석한다면 캐릭터 장그래가 인턴 사원으로서 일을 시작한 <5수>부터 인턴 사원 P.T. 시험을 치르고 계약직 사원으로 합격하는 <33수>까지는 <자격 시련>에 해당하는 텍스트로 분할될 것이다.

그런데 <5수>부터 <33수> 사이에는 <자격 시련>에 임하는 장그래의

35) 같은 글, 109-110쪽.

‘역량compétence’ 획득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변 인물들의 에피소드 세 편이 비중 있게 펼쳐진다. <15수>부터 <16수>까지 스티브 한과 김부장의 갈등 에피소드가 있고, <17수>부터 <20수>까지 박대리의 에피소드가, <21수>부터 <22수>까지 선차장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캐릭터 층위에서 독자는 이 에피소드들을 주요 서사를 풍성하게 해주는 주변적 사건들로 보거나 전체 담화를 움니버스 형식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레이어 층위를 고려하여 읽을 때 이 에피소드들은 담화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플레이어 장그래는 이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의 정체를 파악하기 때문이다.³⁶⁾

스티브 한과 김부장의 에피소드(15수~16수)에서 장그래는 자신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이 시스템과 매뉴얼에 의해 돌아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번 매뉴얼과 관례를 재고하여 업데이트해야 하는 치열한 현장,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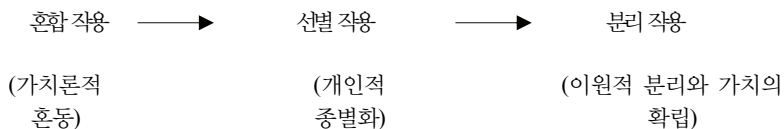
“외길수순이라면... 말을 살 찌워선 안된다. 버려야 한다. (...) 끝났어야 할 문제(죽은 말)가 계속 이어져서 커지게 되면(대마) 판 자체가 큰일 나지 않을까요?”(<16수> 중 오과장, 김대리, 장그래의 대화)

1. 사례 I

행위소의 독자적 신체 반응은 서사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가치 체계에 균열을 가져온다. 풍타뉴는 이 과정을 ‘가치론적 선별 도식schéma de triaxiologique’으로 정식화했다.³⁷⁾

36) 바둑을 둘 때 장그래는 상대 플레이어와 바둑판을 마주 하고 있지만,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인 게임에 임해야 한다. 후에 장그래는 이것을 ‘하수가 두는 다면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

37) J. Fontanille, *ibid.*, 2011, p.25.



‘혼합 작용’이란 다수에 의해 확립된 가치 체계가 있을 때 이와 맞지 않는 어떤 개인의 독자적 반응이 기존 체계와 부딪혀 혼란을 야기하는 단계를 말한다. ‘선별 작용’은 개인이 기존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말하며, 마지막 ‘분리 작용’은 기존 가치 체계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가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단계를 말한다.

17수부터 등장하는 박대리 에피소드를 통해 ‘신체-행위소’의 반응이 어떻게 ‘가치론적 선별’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자. 원 인터내셔널 IT 영업 팀 박대리는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유부단한 기질로 인해 매번 자신의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다. 퇴사를 고민하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회사 옥상에서 장그래를 만나고 거래처 방문을 제안한다. 그러나 박대리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그 동안 그들이 박대리를 기만해 왔음을 알게 된다. 평소대로라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부드러운 대응을 했을 것이다.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신체가 하는 ‘잔류’의 반응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장그래라는 신입사원과의 동행은 그의 ‘자기성-자기’를 자극하여 평소와 달리 ‘포화’의 관성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박대리의 ‘자기성-자기’는 상상 속에서 늘 “강단 있는 모습”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

“내가 단호하게 한 마디 했지! 절차대로 합시다!” (뽕이 좀 췌나. 말만으로도 뭔가 속이 후련한데?) (<18수> 중 옥상에서 장그래와 대화하는 박대리의 말)

폰타뉴는 ‘자기성-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을 ‘신체 행위소’의 정체성이 혁신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자기성-자기’가 지배하는 이 영역”은 “신체 행위소의 생성적 구축의 영역”이며 목표지향적인 이 긴장성은 ‘육적 자아’의 개인화하려는 긴장성과 ‘동일성-자기’의 반복과 유사성의 요구를 누르고 나아간다. 이 행위소의 행정은 하나의 지향성과 “태도”로부터 발생한다. 지향성과 태도는 경우에 따라 목표-이미지, 모델, 시뮬라크르, 희망 또는 이상이 될 것이다.³⁸⁾

박대리의 첫 번째 ‘포화’의 반응은 박대리를 기만하고도 좋은 말로 타일러 넘어가려는 거래처 직원에 대한 대응이었다.

“박대리, 이거 우리 실수했네. 바로 처리할게. 됐지? 응?”
“절차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8수> 중)

이 장면이 보여주는 화려한 날개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박대리의 이 대답이 그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컷의 시각적 효과는 박대리의 신체가 이 순간 느끼는 자기 혁신의 전율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게끔 한다. 일반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놀랍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박대리는 그에게 맡겨진 이 서사 프로그램을 매번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에게 의지 vouloir, 의무devoir, 지식savoir, 능력pouvoir의 역량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신체적 관성, ‘동일

38) J. Fontanille, *ibid.*, 2011, p.28. «La zone où le Soi-ipse domine est celle de la construction en devenir du corps-actant, et la tension téléologique l'emporte à la fois sur les tensions individualisantes du Moi et sur les exigences de répétition et de similitude du Soi-idem. Le parcours de l'actant procède alors de la définition d'une visée et d'une attitude, qui, selon les cas, sera une image-but, un modèle, un simulacre, un espoir ou un idéal.»

성-자기'의 힘이 그를 방해해 왔다. 그런데 이 날 갑작스럽게 그의 신체
가 '잔류'가 아닌 '포화'의 반응을 한 것이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은 과장된 사죄의 말과 행동으로 심약한 박대리를
압박하고 박대리는 오랜 거래처와의 파트너십이 깨지지나 않을까 전전
궁궁한다.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그래는 상황이 박대리의 서사 프로
그램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파악한다. 이 상황은 승부사 기질을
지닌 장그래의 '자기성-자기', 즉 플레이어 장그래를 자극하고 신입사원
장그래의 서사 프로그램을 이탈하여 '포화'의 반응을 하도록 만든다.

“(판이 안 좋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두는 한 수.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
한 수를 묘수 또는 꼼수라 부른다.) (...) 묘수... 혹은 꼼수는, 정수로 받습
니다.”(<19수> 중 장그래의 독백)

이것은 장그래의 첫 번째 '포화' 반응이다. 선배를 따라 협력업체 현장
견학을 간 신입사원 장그래의 서사적 역할은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
만히 있거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역할에서 완전
히 벗어나 박대리의 서사 프로그램에 개입함으로써 대기업 간부급 긴급
회의가 소집되도록 일을 키운다.

자신의 서사 프로그램을 이탈한 장그래의 '포화' 반응은 결과적으로
박대리가 자신의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신체의 '포화' 반
응은 자주 “서사 프로그램 해체déprougrammation”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
서 풍타뉴가 ‘가치론적 선별tri axiologique’이라고 부른 가치체계의 재조
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사 프로그램의 해체”는 빗나간 행동과 실수에 의해 유발되는 일련의
주변적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이것은 탐색 프로그램의 유예로서 해석되
는 동시에 가치론적 선별이 일어나는 데에 필요한 독자성의 출현으로서
해석된다.³⁹⁾

박대리가 담당해온 거래처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초기 거래에 집중하느라 <원 인터내셔널>의 제품 운송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 그리고 마음 약한 박대리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며 무마해온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장그래의 돌발적 행동으로 상황이 엉뚱하게 진행된 것이다. 장그래의 ‘포화’ 반응은 자신의 서사 프로그램을 해체하였지만 결국 문제적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 박대리의 서사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승인되도록 만든다.

업체 사장은 새로운 계약서를 맺는 데 합의했다. 재발 방지는 물론 (...)
향후 2년간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품대금에서 3%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1수> 중)

2. 사례 II

같은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장그래와 박대리의 두 번째 ‘포화’ 반응을 볼 수 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또 다시 박대리는 장그래의 참석을 제안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사건의 관계자도 아닌 신입사원의 참석은 이례적이며 그의 서사적 역할은 가만히 있거나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박대리의 ‘동일성-자기’가 또 다시 ‘잔류’(자신을 기만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래처를 걱정하는)의 신체적 반응을 보이려 하자 플레이어 장그래는 다시 상황에 개입한다. 그는 박대리에게 ‘붕위수기(위기에 처한 경우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 전략을 적은 쪽지를 건넨다. 이것은 박대리의 서사 프로그램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전략임이 틀림없다.

39) J. Fontanille, *ibid.*, 2011, p.25. «(...) la «déprogrammation», et qui se manifeste par une succession de péripéties provoquées par des actes manqués et des maladroites, s’analyse donc à la fois comme une suspension des programmes de quête, et comme l’émergence d’une singularité, nécessaire à la mise en oeuvre du tri axiologique.»

“무책임해 지세요!” (<20수> 중)

그러나 장그래의 두 번째 ‘포화’ 반응은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에서 박대리의 두 번째 ‘포화’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 메시지를 받은 박대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이없는 고백을 하고 만다. 무책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나약한 태도와 퇴사에 관한 고민을 사측에 고백하며 거래처를 변호하고 만다.

“저들이 ‘그래도 돼’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저입니다. (...) 회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20수> 중)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서 경과보고를 해야 할 자리에서 박대리는 엉뚱한 고백을 하며 그의 서사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이탈한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의 반응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낭만적인 대리야~”

“자네가 뭘데? 자네가 뭐라고 책임을 물어?” (<20수> 중)

대기업 노동자의 위상을 추구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박대리의 행동은 대상과의 ‘연접conjunction’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장면에서 그에게 요구된 서사 프로그램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협력업체의 잘못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박대리는 회사에게도, 자신에게도 전혀 유리하지 않은 고백을 함으로써 서사 프로그램에서 이탈한다. 그러나 이 ‘포화’의 경험을 통해 그는 우유부단함의 ‘잔류’ 반응을 반복하는 ‘동일성-자기’를 극복하고 “강단 있는 사람”을 지향하는 ‘자기성-자기’의 힘을 회복한다. 이 순간 서사가 그에게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해체되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던 ‘동일성-자기’와 ‘자기성-자기’ 사이의 갈등은 균형 잡힌 방향으로 해소된다.

박대리의 ‘포화’는 상사와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다. 박대리의 첫 번째 ‘포화’ 반응이 얼떨결에 튀어나온 것이었다면 두 번째 ‘포화’ 반응은 박대리의 ‘자기성-자기’가 충분한 지향적 힘을 얻었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론적 선별로 이어진다.

“그런 고민 지금 하는 게 좋아. 그런 고민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고 잘 정리만 하라고.” (<20수> 중 임원의 말)

[박대리] “여보, 그거 [학원] 보내지 말자. 난 우리 애가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랐으면 해. 난... 그래.”

[아내] “...”

[박대리] “여보?”

[아내] “고마워.”

[박대리] “고마워?”

[아내] “당신이 분명히 선택해줘서. (...) 난 당신의 생각이 필요했거든...”
(<20수> 중 박대리와 아내의 통화)

장그래의 경우 그의 첫 번째 ‘포화’ 반응이 자신의 서사 프로그램을 해체시키고 박대리의 서사 프로그램 수행을 도운 반면, 또 한번 박대리의 서사 프로그램 수행을 도우려 한 그의 두 번째 ‘포화’ 반응은 박대리의 엉뚱한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장그래는 인지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식 양태savoir를 획득하게 된다.

“어떤 바둑을 졌을 때보다 처참했다. 다 자기만의 바둑이 있는 건데...”(<20수> 중 장그래의 독백)

이 순간은 플레이어 장그래에게 <월 인터내셔널> 바둑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바둑판은 모두가 ‘각자’ 자기 ‘만’의 바둑을 두고

있는 게임 공간에 다름 아니다. 그는 이 게임이 박대리와 협력업체간의 대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캐릭터 박대리의 게임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플레이어 박대리가 직면한 게임은 플레이어 장그래가 알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게임이었다. 그것은 ‘동일성-자기’(캐릭터 박대리)의 ‘잔류’ 관성이 ‘자기성-자기’(플레이어 박대리)의 지향성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신체적 자기’와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자신의 강단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가진 장그래와의 대화는 박대리로 하여금 ‘자기성-자기’의 지향적 힘을 키우도록 했고 평소 유지해왔던 태도와 다른 ‘포화’의 반응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은 장그래도,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박대리 자신만의 게임이며, 여기서 박대리의 미션은 “기만적인 협력업체와의 대결”이 아니라, “결정과 책임” 능력을 획득하여 ‘자기성-자기’의 지향적 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 장그래가 이기는 수로서 조언한 ‘무책임해지세요’의 수는 역설적으로 박대리의 게임에서는 정확히 지는 수가 되었던 셈이다. 만약 박대리가 플레이어 장그래의 조언을 따라 ‘붕위수기’의 수를 두었다면 이는 다시 ‘잔류’의 관성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을 깨닫고 장그래는 처참한 심경을 느낀 것이다. 엉뚱한 수읽기를 하여 처참한 장그래와 자신의 신체적 관성을 극복하여 기쁜 박대리의 마지막 대화는 이렇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수> 중)

요컨대 플레이어 층위의 장그래는 훌륭한 게임 전략으로 박대리를 도우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박대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에게나 자기 ‘만’의 바둑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함의한다. 하나는 모두가 플레이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누구와도 동일한 바둑판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 자기의 바

독판이 있고 그 게임에 홀로 임할 수밖에 없다. 박대리가 도전 중인 게임 속에서 장그래는 캐릭터로서만 그를 만날 수 있을 뿐, 플레이어 장그래는 플레이어 박대리를 만날 수 없다. 타자도 플레이어이며 그의 게임을 플레이어로서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난 후 장그래는 다음 수에서 이어지는 선차장의 에피소드(21수~22수)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선차장을 돕지만 철저히 캐릭터로서만 움직일 뿐 플레이어 장그래는 놀라울 정도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요컨대 플레이어 장그래의 두 번째 ‘포화’ 반응은 그의 서사 프로그램과도, 박대리의 서사 프로그램과도 관계없이 인지적 차원에서 <원 인터내셔널>의 속성에 관한 지식 역량을 획득하도록 만든다. 본 담화에서 <원 인터내셔널>은 장그래, 박대리를 비롯한 모든 행위소들에게 서사 프로그램을 조종하는 발신자와도 같다. 이 장면에서 장그래는 더 이상 대상을 추구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맺어진 발신자-수신자의 관계에서 “발신자 원 인터내셔널”의 정체, 발신자와 다른 수신자들의 관계, 수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지식 역량을 획득한다. 그레마스의 서사 도식⁴⁰⁾에 따르면 탐색 주체는 서사 프로그램을 ‘수행 performance’하기 위해 ‘역량compétence’을 획득한다. 이와 달리, 게임 플레이어 주체는 ‘역량’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한다. 따라서 플레이어에게 역량 획득은 수행보다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그래의 두 번째 ‘포화’ 반응이 캐릭터 층위의 서사 프로그램을 이탈하여 플레이어 층위에서 추구하는 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가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0) 계약 - 역량 - 수행 - 승인.

VI. “미생”적 현존의 동시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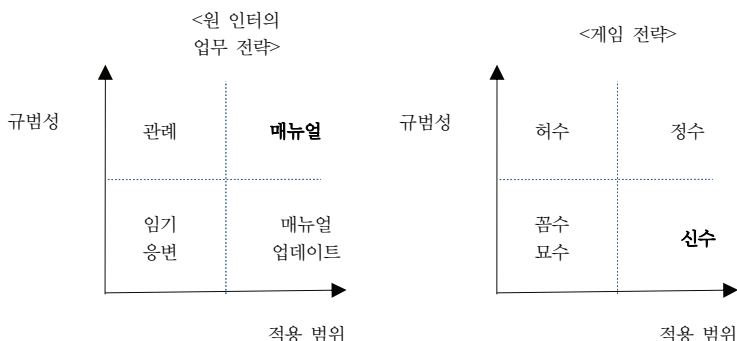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장그래가 캐릭터 층위의 행위소와 플레이어 층위의 행위소를 이중적으로 가진 인물임을 보았다. 캐릭터 층위에서 주어진 서사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플레이어 층위에서 서사 프로그램을 해체시키고 가치론적 선별을 유도하는 장그래의 행위소 구조는 해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서에서 담화의 의미는 표준적인 독서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긴장도식schéma tensif’과 ‘기호사각형 carré sémiotique’⁴¹⁾을 통해 알아보자.

‘긴장 도식’은 지각 활동의 두 양상인 ‘강도intensité’와 ‘외연extension’의 상관관계로 정의된다. ‘강도’는 지각 주체의 활동으로서의 ‘지향’의 정도를 나타내고 ‘외연’은 지각 대상의 관여성 영역의 정도를 가리킨다. 여기서 두 상관 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계적으로 변화하는데,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외연’이 확장하거나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외연’이 축소하는 비례 관계로 나타나거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외연’이 축소하거나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외연’이 확장되는 반비례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⁴²⁾

플레이어 층위의 장그래를 고려하여 이중적 행위소 구조로 담화를 읽을 때 우리는 <원 인터내셔널>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집단적 전략”과 게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개인적 전략”의 대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략의 “규범성”과 그 “적용 범위”의 상관관계를 ‘긴장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1) 그레마스 Greimas 와 쿠르테스 Courtès 가 쓴 『기호학 언어 이론 이성 사전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의 정의에 따르면, 기호 사각형은 임의의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에 대한 시각적 표상이다. 이것은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에서 가장 심층, 기호 층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론적 도구이다.

42) 최용호, 「긴장도식과 기호 모델」, 『프랑스학연구』 55, 프랑스학회 2011, 355-372쪽.



<원 인터넷서널>은 규범성이 높아질수록 적용범위도 확대되는 전략 매뉴얼을 통해 조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나’라는 뜻의 기업명처럼 “One international”을 지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뉴얼은 그 규범성이 높아질수록 실질적 의미는 망각되고 형식만 남은 관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뉴얼’이 ‘관례’가 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려면 자율적인 개인을 통해 ‘업데이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율적인 개인은 조직의 통일성과 부딪힌다는 이 모순으로부터 “One international”의 난제가 시작된다. 『미생』 담화의 굼직한 사건들은 사원급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전무급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왜곡된 관례 속에서 어긋나버린 개인들을 보여 준다.⁴³⁾ 작품은 이들의 대척점에 장그래를 세운다. 게임의 세계에서는 신수를 통해 정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효율성에 익숙한 플레이어 장그래는 관례에 매인 인물들의 어긋난 지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파격”을 통해 매뉴얼의 업데이트를 시도한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담화 의미는 결코 “노동”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고

43) 박과장 에피소드, 김전무 에피소드 등.

이 간극을 살아야하는 개인들은 본 작품 속 주인공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는다. 작품은 대기업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삶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⁴⁾

작품에서 나타나는 캐릭터 장그래의 행정과 플레이어 장그래의 행정을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내보자. 캐릭터(신입사원) 장그래는 조직의 규범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점차 <원 인터내셔널>이 요구하는 매뉴얼을 익히는 방향의 행정을 따른다.

개인적 전략 → - 개인적 전략 --- 집단적 전략

반면 플레이어 장그래는 게임의 규칙과 사례를 연구하여 자신만의 신수를 찾는 방향의 행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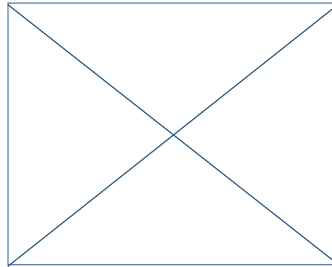
집단적 전략 → - 집단적 전략 --- 개인적 전략

여기서 플레이어 장그래는 캐릭터 장그래의 행정이 ‘- 개인적 전략’에서 ‘집단적 전략’으로 완료될 수 없도록 개입하여 장그래가 규범화된 매뉴얼을 배우되 의심하도록 한다. 캐릭터 장그래는 주어진 현실의 규칙과 사례를 긍정함으로써 플레이어 장그래의 행정이 ‘- 집단적 전략’에서 ‘개인적 전략’으로 완료될 수 없게 만든다. 두 행위소의 행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장그래는 한편으로 ‘- 개인적 전략’, 다른 한편으로 ‘- 집단적 전략’의 두 중립항의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44) 작가 윤태호는 만화 『이끼』(2008)에서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한국 사회를 압축해놓은 듯한 작은 시골 마을을 상징적 공간으로 연출하는 작업에서 탁월함을 보여준 바 있다.

집단적 전략

개인적 전략



- 개인적 전략

- 집단적 전략

최용호와 신정아는 기호사각형의 중립항이 제기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중 부정, 교차모순의 지점이 “주체성”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⁴⁵⁾ A와 B의 반대관계는 의미론적 근거를 가지며 A와 -A의 모순관계는 논리적 근거를 갖는데 반해 -A와 -B의 관계는 의미론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아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는 교통신호등 체계의 노랑 신호등처럼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결정불가능성의 지점이면서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최용호와 신정아는 이 지점을 주체가 자신의 주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의 지점이라고 보았다.

공동체의 가치관을 따를 수도, 개인적 가치관을 고수할 수도 없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자칫 실질적 가치를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을 고수하는 냉소적 태도를 갖거나 형식뿐인 규범 체계를 거부하고 퇴행적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우리의 작품은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보여준다. 이들과 대비를 이루는 장그래의 독특한 태도를 우리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결과로 보았다.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표

45) 최용호·신정아, 『노랑 신호등 - 포스트모던 비평의 지점』, 인간사랑, 2012; 최용호,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기호학 연구』 44집, 311~336쪽.

현은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퇴행적 증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태도를 집단화된 삶도, 개인화된 삶도 아닌 교차모순의 지점에서 가능한 하나의 미학적 실존 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자기 주체의 역량을 끊임없이 혁신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 “미생(未生)”으로서 말이다.

VII. 나오며

웹툰 『미생』은 2012년에 “국민 웹툰”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고 이후 2014년 드라마로 2차 창작되면서 재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⁴⁶⁾ 그 즈음(2012-2016)에는 드라마 『미생』에 관한 다수 비평과 학술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⁴⁷⁾ 흥미로운 관점과 분석을 보여준 비평들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본 작품을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의 현실”을 그린 리얼리즘 소설로 읽었다. 여러 해가 흘러 이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이 작품을 우리가 뒤늦게 재조명하고자 한 것은 당시 우리가 사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었던 십대, 이십대 청(소)년들(웹툰이라는 매체의 주요 수용자층이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의 『미생』 독서가 공론의 장에 반영되지 못한 채 지나갔다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작품이 표면적으로 그리는 서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것이 오늘날 이야기 수용의 새로운 양상, 즉 독자들이 발화체의 주체보다 발화 주체에게 감정이입하는 경향⁴⁸⁾과 관련된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본의 서브컬처 비평가 아즈마 히로키의 포스트모던 문학론의 영향을 받았으나 기호학적인 작품 분석에

46) 2014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원작 웹툰과 동일한 제목의 tvN 금토 드라마 방영.

47) 나은희(2015), 조한렬(2016) 등.

48) 박기수, 『웹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가능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히로키의 이론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조훈현 바둑 대국과 만화를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놓고 장그래의 이중적 행위소 구조에 관한 기호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풍타뉴의 담화 기호학과 신체 행위소 모델을 도구로 삼아 캐릭터/플레이어의 이원적 층위에서 움직이는 장그래의 ‘신체-행위소’ 구조를 살펴보았다. 장그래의 현존은 <현동화>와 <가능화>의 이중 양태를 보이며 이러한 현존의 주인공은 가치 대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치를 재고함으로써 가치 재조정을 가능케 한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가치 포화의 시대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현존 양식 중 하나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끝으로 풍타뉴가 분류한 네 가지 현존 양식 - 충만함plénitude(실현화), 결핍défaut(현동화), 무력감inanité(가능화), 공허vacuité(잠재화) - 과 관련하여, 담화 상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양태가 결합하여 복합적인 현존의 양식이 실현되는 현상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출현한다면 이에 관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물음이 다루어질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김수환, “미생이 판타지라고? 아니, 불가능한 성장 소설 - [이렇게 읽었다] 윤태호의 <미생>”, 프레시안, 2013년 12월 05일자.
- 김진희 칼럼,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겨레:온, 2016년 01월 23일자.
-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 박기수, 『웹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가능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아즈마 히로키 지음, 이은미 옮김,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문학동네, 2012.
- 아즈마 히로키 지음, 장이지 옮김,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 현실문화, 2012.
- 윤태호 글, 그림, 『미생(未生)-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Daum 웹툰, 2013년 7월 19일 시즌1 완결.
- 윤태호 글, 그림, 박치문 기보 해설, 『미생』 단행본 1권, 위즈덤하우스, 2012년.
- 최용호, 「자크 폰타뉴의 ‘신체 행위소’ 개념에 대하여」, 『프랑스학연구』 82, 프랑스학회 2017, 97-127쪽.
- 최용호, 「긴장도식과 기호 모델」, 『프랑스학연구』 55, 프랑스학회 2011, 355-372쪽.
- 최용호, 신정아, 『노랑 신호등 - 포스트모던 비평의 지점』, 인간사랑, 2012.
- 최용호,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기호학 연구』 44집, 311~336쪽.
- Coquet, J. C., *Le discours et son sujet I*, Paris, Klincksieck, Fontanille, J., *Corps et sens*, Paris, PUF, 2011.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aris, Pulim, 2003.
- Genette, G., *Palimpseste*, Paris, Seuil, 1982.
- _____, *Seuils*, Paris, Seuil, 1987.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Seuil, 1966.
- Greimas, A. J. & Courtè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93.

On a “duality” of the Corps-actant structure in *Misaeng*: with *Jang Geurae* as the central figure

Song, Taemi

This paper attempts to “re-read” the webtoon *Misaeng*, which was once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public discourse on “labor”. Our hypothesis was that the dual actantial structure of *Misaeng*’s hero Jang Geurae gave a dual structure to the entire text, which leads to the discovery of text meaning that was not mentioned in the existing discourse. This is based on the concept of ‘meta-story character’, which Hiroki Azuma talked in his postmodern literary theory. To verify this hypothesis we analyzed the text by applying the Parisian semiotics, more specifically J. Fontanille’s theory.

Jang Geurae is observed to be a actant of dual structure divided into ‘character’ of the enunciated level and ‘player’ of the enunciation level.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 of the hero, *Misaeng* can be interpreted as a metafiction that shows the ‘shifting’ between the subject of the enunciated level and the subject of the enunciation level. On the level of ‘character’ *Jang*’s existence mode turns out to be “Deficiency (actualized)”, but on the level of ‘player’ *Jang* ’s existence mode turns out to be “Inanity(potentiallized).” His somatic responses also show a duality, which is represented by Fontanille’s corps-actant model, where on the level of ‘character’ the somatic actant of Jang consists of ‘Moi-chair(ego-flesh)’ and ‘Soi-idem(self-idem)’, and on the level of ‘player’ it consists of ‘Moi-chair(ego-flesh)’ and ‘Soi-ipse(self-ipse)’. The former mainly acts as a ‘role’ and takes charge of exteroceptive perception, while the latter mainly acts as ‘attitude’ and takes charge of interoceptive perception.

Because of this dissociative nature of actant, Jang’s two ‘self’ draw the re-adjustment of values without serious conflict between the collective

norms and the individual identity. This is in sharp contrast with other characters who struggle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environment and “self”. It becomes customary to adopt norms that are suspected to be ineffective, but if you raise questions, the normative system can be updated. On one axis of *Misaeng* there are characters who have lost themselves in customs. On the other axis, there is Jang who can not help dismantling the existing ineffective norms and updating the normative system.

Jang’s existence mode seems to be one of many possible modes generated by this era where people share no longer solid community values. His actantial structure also communicates with readers of these days who put themselves more in subject of enunciation level than of enunciated level.

Keywords : *Misaeng*, actantial structure, J. Fontanille, corps-actant, mode of existence, schema of axiological sort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

한국기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기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기호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지 발간
-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 4) 국제 기호학회와의 교류
- 5) 연구 문헌 수집
-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3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기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기호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 4)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6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 2) 회칙 개정
- 3) 예산·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8조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0명 이내
- 4)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 중에서 총무·섭외·편집·학술·재무·정보이사를 둔다.

제15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수발 및 조직·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섭외이사는 언론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대내외 교류 관계는 물론 학술발표자의 섭외와 학회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진흥재단 지원신청 업무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정보이사는 본 회의 웹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1조 국제이사는 외국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제22조 연구이사는 각종 학술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기호학회 학술총서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23조 교육이사는 기호학 관련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제24조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사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심의·의결·집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3) 연구발표회(연례발표회·월례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기호학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 5) 외국과의 학술 교류
- 6)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부회장·총무이사·섭외이사·편집이사로 구성된다.

제7장 학회지

제29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기호학 연구』라 칭한다.

제30조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묶어 『기호학 연구』를 발간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31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7인 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4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제35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9장 연구 분과

제37조 본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 1) 문학 기호학 8) 종교 기호학
- 2) 언어 기호학 9) 철학 기호학
- 3) 연극 기호학 10) 신화 기호학
- 4) 음악 기호학 11) 문화 기호학
- 5) 시각 기호학 12) 커뮤니케이션 기호학
- 6) 건축 기호학 13) 영화기호학
- 7) 광고 기호학 14) 기타

제38조 각 분과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그의 주도 하에 주례발표회·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조성비

4) 사업 수익금

제40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4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 1) 본 회칙은 2001년 1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편집위원회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기호학 연구』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진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제9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를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편집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제12조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에 정함)

3. 논문 심사 절차와 기준

제13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6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는가
- 2) 논문 제목은 내용과 부합하는가
- 3) 초록은 적절한가
- 4) 연구 목적과 방법,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가
- 5) 연구 자료 및 인용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 6) 논문은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7) 내용 분석이나 해석에 응용된 방법론이 참신하거나 타당성이 있는가
- 8) 연구 내용은 독창성이 있는가
- 9) 연구 결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10)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제17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학회의 소정 양식(별첨 1)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 2)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
-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 4) 게재 불가: 59점 이하

제18조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수정 논문에 대한 교정지 제출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사항 확인)를 거쳐 당호의 『기호학 연구』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 다음호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편집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대로 진행 후 다시 투고한다. 끝으로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4. 편집회의

제20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1조 편집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기호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제23조
- 1)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6)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7)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한국기호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기호학회는 우리의 삶과 문화, 우리가 만든 예술 텍스트들은 물론 사회현상과 자연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분석하여 그 질서와 구조를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소통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호학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호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기호학 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기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윤리 및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들이 연구 논문의 작성과 학술지의 편집에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전직 회장이 상임위원은 전·현직 총무이사과 편집이사가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구성원은 직책 임기를 따르고, 임시 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확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사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반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반복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3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4)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론, 모델, 연구 결과 등을 원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그 중 일부 문장이나 단어를 변조하여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나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전을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

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원동정 및 학회 공지 사항

-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오장근 교수가 12대 한국기호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박영원 교수가 제10대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백선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WCA (World Communication Association)에서 2019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뉴질랜드의 수도 Wellington에 있는 University of Massey에서 2019 WCA 국제학회를 개최한다.

한국기호학회 임원

고 문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명예회장 : 김치수(이화여대), 김현자(이화여대), 전성기(고려대),
신현숙(덕성여대), 송효섭(서강대), 박인철(연세대),
송기정(이화여대), 김성도(고려대), 박여성(제주대)

회 장 : 이도흙(한양대)

부 회 장 : 김운찬(대구가톨릭대), 김기국(경희대)

감 사 : 오장근(목포대)

편집위원장 : 최용호(한국외대)

총무이사 : 오세정(충북대)

분과 상임이사

섭외이사 : 송치만(건국대)

편집이사 : 김민형(한국외대)

학술이사 : 전형연(건국대)

재무이사 : 박수진(한양대)

정보이사 : 이선화(영남대)

국제이사 : 김수환(한국외대)

연구이사 : 조윤경(이화여대)

교육이사 : 심지영(인하대)

비상임 이사 : 김정희(선문대), 백승주(전남대), 심현주(인하대),
이수진(인하대), 이윤희(한국외대)

편집위원 : 고경난(한국외대), 김남시(이화여대), 김민형(한국외대),
김성도(고려대), 김수환(한국외대), 김운찬(대구가톨릭대),
백승주(전남대), 오세정(충북대), 오장근(목포대),
이윤희(한국외대), 이수진(인하대)

해외편집위원

Anne Henault (프랑스 소르본대학)

Hamid Reza Shairi (이란 테헤란 국립대학)

Jose Enrique Finol (베네주엘라 줄리아 대학)

Lenone Massimo (이탈리아 토리노대학)

Paul Cobley (영국 미들섹스 대학, 세계기호학회회장)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박여성(제주대)

상임위원 : 이수진(인하대), 오세정(충북대), 김민형(한국외대)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Honorary Advisor>

Lee, O-Young (The Joongand Ilbo Daily)

<Honorary President>

Kim, Chie-Sou (Ewha Women's U)

Kim, Hyeon-Ja (Ewha Women's U)

Jeon, Seong-Gi (Korea U)

Shin, Hyun-Sook (Duksung Women's U)

Song, Hyo-Sup (Sogang U)

Park, In-Chul (Yonsei U)

Song, Gi-Jeong (Ewha Women's U)

Kim, Sung-Do (Korea 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President>

Lee, Do-Heum (Hanyang U)

<Vice-President>

Kim, Gi-Gook (Kyung Hee U)

Kim, Woon-Chan (Catholic U of Daegu)

<Internal Auditor>

Oh, Jang-Geun (Mokpo U)

<Chair of Editorial Board>

Choi, Yong-Ho (Hankuk U of Foreign Studies)

<Secretary General>

Oh, Se-Jeong (Chungbuk U)

<Excutive Board>

– Public Relation

Song, Chi-Man (Konkuk U)

– Journal Edition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Research

Jeon, Hyeong-Yeon (Konkuk U)

– Treasurer

Park, Su-Jin (Hanyang U)

– Information

Lee, Sun-Hwa (Yeungnam U)

– Internal Affairs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Investigation

Cho, Yun-Kyung (Ewha Women's U)

– Education

Shim, Ji-Young (Inha U)

<General Board>

Lee, Soo-Jin (Inha U), Baik, Seung-Joo (Chonnam U),

Kim, Jung-Hee (Sunmoon U), Shim, Hyun-Joo (Inha U),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Editor

Koh, Kyung-N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Nam-Si (Ewha Women's U),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Sung-Do (Korea U), Kim, Woon-Chan (Catholic U of Daegu), Baik, Seung-Joo (Chonnam U), Oh, Se-Jeoung (Chungbuk U), Oh, Jang-Geun (Mokpo U),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Lee, Soo-Jin (Inha U)

– Editor Abroad

Massimo Lenone (Università degli Studi di Torino, Italy)

Anne Henault (Université la Sorbonne, France)

Paul Cobley (Middlesex University, UK/IASS president)

Hamid Reza Shairi (National Univ. of Tehran, Iran)

Jose Enrique Finol (Universidad del Zulia, Venezuela)

– Research ethics committees

Chairman : Park, Yo-Song (Jeju National U)

Standing member of committee : Lee, Soo-Jin (Inha U),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Oh, Se-Jeong (Chungbuk U)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 1) 기고는 한국기호학회 회원에 한한다.
- 2) 한국기호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필자는 투고 가능하다.

2. 게재 조건

- 1)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 2) 다른 논문집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재수록은 허용치 않는다.
- 3) 2회 이상 연속 게재는 불허한다(2회까지는 허용). 단,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투고를 의뢰했거나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원고 규격

다음 사항들은 명시된 통일안에 따라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1) 편집구성

- ① 원고 투고 시에는 필자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제목-필자명-국문초록-국문열쇠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열쇠어 순으로 구성한다.
- ②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150매를 넘지 못한다. 150매를 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용지 크기: A4(210×297)
- ④ 용지 여백: 위 20, 머리말 15, 왼쪽·오른쪽 20, 제본 0, 아래쪽 15, 꼬리말 15
- ⑤ 글자 모양: 바탕체, 장평 100, 자간 0
- ⑥ 글자 크기: 제목 15, 장 제목 12, 절 제목 11, 본문 10, 각주·인용 9
- ⑦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첫줄 보통, 본문 줄 간격 160, 각주·인용 줄 간격 130, 문단 위·아래 0
- ⑧ 주석은 각주로, K. L. Turabian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이도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기호학 연구』 25, 한국기호학회, 2009, 69쪽.
 - 이어령,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2007, 109~110쪽.
 -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153.
 - Maire-Laure Ryan, “Possible Worlds and Accessibility Relations: A Semantic Typology of Fiction”, *Poetics Today* 12:3, 1991, p.555.
 -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7~12.
 - 바로 앞 주와 동일한 논저일 경우, 같은 책(저서일 경우) 혹은 같은 글(논문일 경우), 외국 논저인 경우 Ibid.로 쓴다.
 - 이미 인용한 논저 사이에 다른 논저가 있을 경우, 앞의 책(저서), 앞의 글(논문), 외국 논저인 경우 Op. cit.로 쓴다.

- ⑨ 참고문헌에는 국내논저, 국외논저, 기타(각종 자료나 웹사이트 출처) 순으로 한다.
- ⑩ 참고문헌에는 간행물에 실린 논문일 경우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밝힌다.
- ⑪ 논문의 본문에서 소제목에 붙이는 번호 표시는 I, 1, 1), (1)의 순서로 한다.

2) 기타

- ① 논문 투고는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에 마감하며, 학회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간행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제1저자와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통상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일 앞에 명기한 저자가 제1저자로 간주됨)
- ③ 기타 모든 체제는 최근호에 준하고, 기타 편집상의 사안은 편집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문의한다.

4. 원고제출

- 1) 논문 게재 희망자는 투고 마감일 전까지 제출한다.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스(윈도용)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후 메일로 송부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년도 및 직전년도 학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투고와 동시에 다음 계좌로 심사비 6만원을 송금한다.

송금계좌: 박수진(신한은행 110-471-453485)

- 4) 마감일자: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
- 5) 발일행자: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6) 제출처: <http://semiosis.jams.or.kr>

5. 게재료 및 조판비

논문 게재료는 심사비 포함 편당 전임 15만원, 비전임 10만원이며(단, 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전임 30만원, 비전임 20만원), 편집 용지 25매를 초과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게재료(조판 기준으로 초과 쪽수 당 1만원)가 부과된다.

기호학 연구 제57집

2018년 12월 30일 인쇄

201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도흠

발행처 / 한국기호학회

편집·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031-940-1118)

<http://www.kstudy.com>

학회지 표지·로고 디자인 / 박영원

한국기호학회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1호(행당동)

☎ 02-2220-0730

<http://www.koreansemiotic.com>